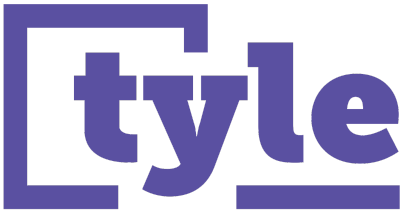


타일 사용설명서

타일팀 작성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주)투블루에 있습니다.

https://tyle.io

목차

들어가며

- 타일의 목적
- 타일의 3가지 원칙
- 타일의 장점과 단점
-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

제작 실습

- 설치 혹은 접속하기
- 텍스트 변경해보기
- 배경 변경해보기
- 슬라이드 관리해보기
- 공통요소 변경해보기

화면과 기능

- 슬라이드와 속성
- 사이드바
- 템플릿
- 동영상 미리보기
- 저장과 추출
- 계정설정
- 고객센터

컨텐츠 요소들

- 슬라이드 컨테이너 요소
- 배경 요소
- 텍스트 요소
- 로고 요소
- 박스 요소
- 공통옵션

추출 및 배포

- 이미지 및 영상 추출
- 페이스북 피드 카드뉴스
- 페이스북 피드 동영상
-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
- 페이스북 슬라이드 광고
- 카카오채널 피드
- 유튜브 동영상 광고

기타 활용팁

- URL을 통한 공유

- 나만의 커스텀으로 시작
- 텍스트 영상 제작
- 웹페이지 내용으로 시작
- 각 플랫폼별 비용 분석

FAQ

- 서비스 전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요금 및 결제
- 제작 관련
- 저작권 관련

들어가며

이 페이지는 타일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설명과 팁들을 설명합니다. 타일의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본격적인 기능 설명을 원하시면, 이 장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타일의 목적

모바일 시대에 카드뉴스나 슬라이드형 동영상은 거의 기본 컨텐츠 형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카드뉴스라는 것이 이미지 넣고, 로고 넣고, 텍스트 넣고, 뭐 어려울 게 있나 싶지만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을 사용한다고 해도 뜻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이죠.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복잡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동영상 강의와 책이 없으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무거운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고 나면 레이어니 캔버스니 타임라인이니 모르는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지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화려한 모션그래픽이 아닙니다. 단지 원하는 거 빨리 만들고, 디자인은 이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타일은 딱! 이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된 도구입니다.

타일의 3가지 원칙

① 사용이 쉬워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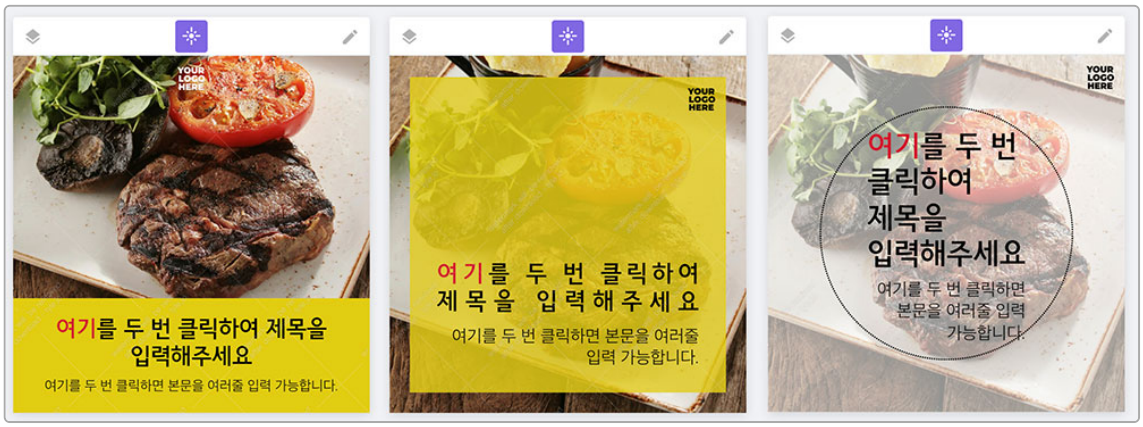
[타일의 목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타일은 메시지를 빠르게 시각화하기 위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도 적게 들어야 하고, 사용 시 헤매게 되는 시간도 짧아야 합니다.

도구를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능 자체가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용성도 떨어집니다.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툴을 만들기 위해 IT기술의 힘을 약간 빌렸습니다. 간단한 사용법과 괜찮은 결과물 사이의 괴리를 이러한 기술이 메꾸어주는 것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디자인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는 이 엔진을 볼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이미지나 텍스트 조각 몇 개 던져 줄 때마다, 이 엔진은 패턴을 찾아내어 가장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되고 그 외에는 크게 손댈 것이 없게 됩니다. 디자인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지나치게 썰렁하지도,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은 모바일 기기에서 보여지기 딱 좋은 디자인을 가지게 됩니다.



▲ 디자인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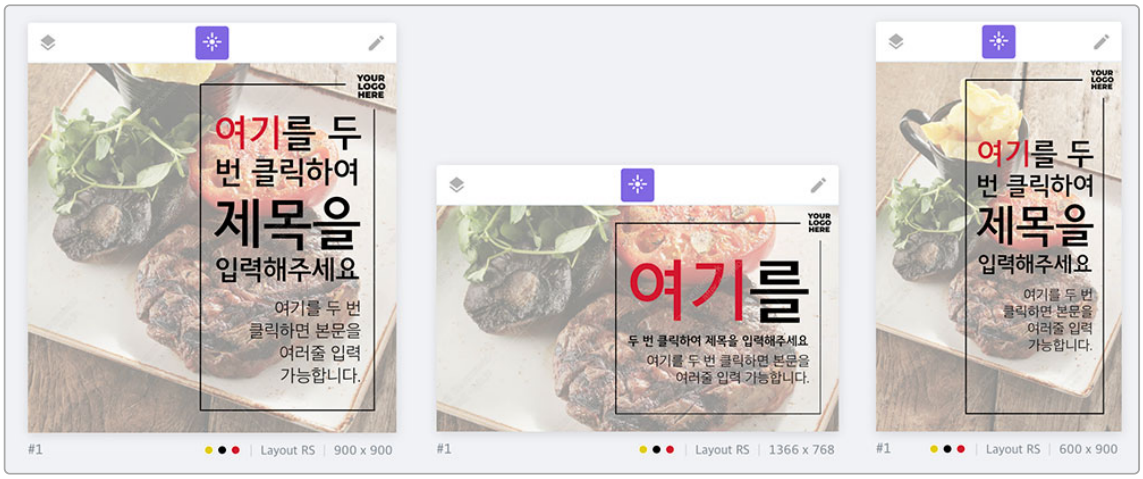
② 디자인은 반응형이어야한다

모든 비주얼 콘텐츠는 크기(size)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900 x 900 이라든가, 1920 x 1080 등이지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서비스들은 각자 플랫폼별 최적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은 이런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때, '이건 어디에 올려야 되니까 어떤 크기, 저건 어떤 크기..'와 같이 미리 크기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만약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려야 한다면 크기를 변경하고, 모든 내부 요소의 크기와 배치 등을 조정해 줘야만 했었지요. 즉, 비주얼 콘텐츠는 사이즈 수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업로드해야 할 플랫폼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플랫폼도 계속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번 사이즈 때문에 여러 번 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컨텐츠 요소들의 사이즈가 가변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고정된 크기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초적인 값만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크기를 변경할 때마다 디자인 엔진이 새롭게 계산하여,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지요.



▲ 크기를 변화에 따라 디자인 엔진이 자동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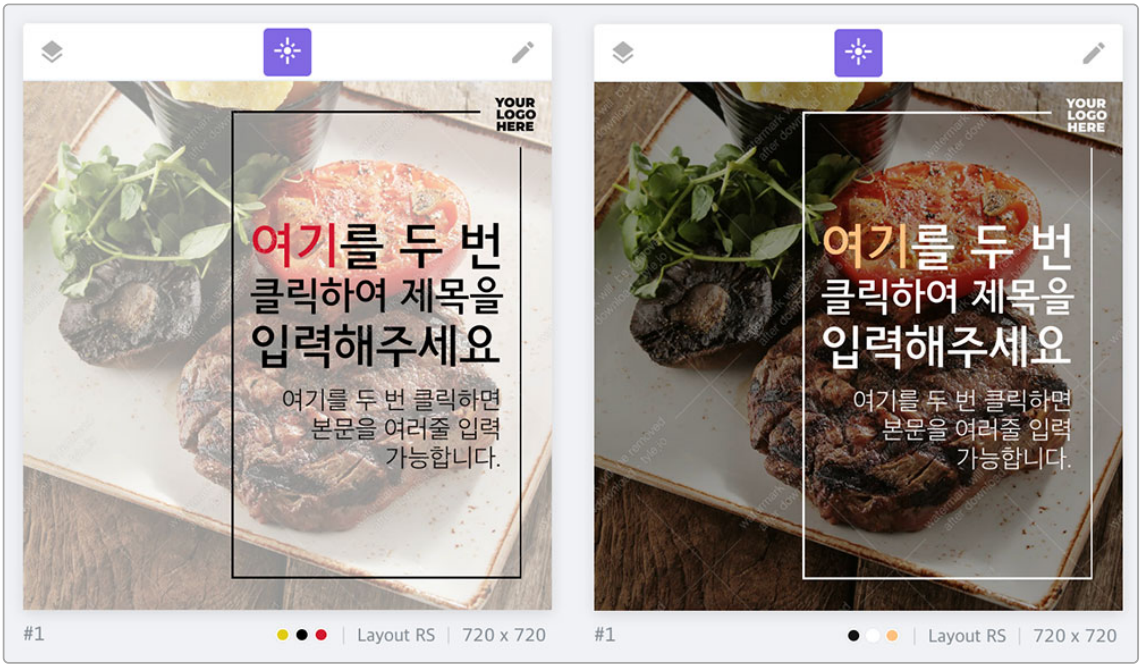
③ 메시지 전달이 최우선이다

카드뉴스나 동영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거나, 혹은 작업을 하게 되면 주객전도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보여지는 디자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미세한 선 두께, 다양한 색상, 화려한 요소들을 자꾸 넣고싶어 집니다. 뭔가 허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백없이 정보들도 꽉꽉 채워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뉴스를 만들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카드뉴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장문의 글보다는 더 잘(그리고 빠르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랑 핵심적인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어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얼핏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좋은 카드뉴스는 보는 사람에게 빠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 딱! 이미지 딱! 한 눈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은 텍스트가 잘 읽히도록 설계하였지요. 어두운 그림 위에 어두운 글씨를 쓰면, 가독성 장치들이 개입해서 뒤에 그림을 밝게 처리해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색상 조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자동으로 보장되는 가독성

타일의 장점과 단점

목적이 분명한 도구다보니 장단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타일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는 정말 잘 맞습니다. 콘텐츠 구성 요소가 단순하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 전달력이 좋은 카드뉴스 제작
- 심플한 디자인의 카드뉴스 제작
- 빨리 혹은 많은 컨텐츠 제작
- 같은 컨텐츠를 여러 플랫폼에 업로드

- 짧은 유튜브용 동영상 광고 제작
- 슬라이드 기반의 동영상 제작

하지만 아래와 같이 전문 디자이너가 개입하여야하거나 복잡한 동영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타일이 부적합 할 수 있습니다.

- 감각적인 디자인의 컨텐츠 제작
- 촬영과 편집이 중요한 유튜브 영상 제작
- 아기자기한 자막과 스티커 등의 컨텐츠 제작
- 인쇄용 포스터 디자인 제작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

최근에는 이 카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많은 서비스들이 카드뉴스라는 키워드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방법들과의 장단점을 비교/정리해 보았습니다.

타일 VS 온라인 디자인 도구

타일의 대체 가능한 가장 근접한 툴은 온라인 그래픽 툴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canva.com 라는 사이트가 있으며,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서비스에 접속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만들어 둔 디자인 결과물(템플릿)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본인의 내용이나 이미지들로 대체하면서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완성된 결과물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맘 편히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적에 잘 맞는 샘플을 고른다면 빠르게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초기의 샘플에서 수정을 가할수록 디자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내용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자인 감각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면서 수정하면 되긴하지만, 모두에게 쉬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툴 수준의 많은 툴바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카드뉴스 뿐만 아니라 포스터나 편집디자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면 기능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툴 사용 방법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타일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카드뉴스에만 최적화된 툴이며,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디자인이 깨지지 않도록 많은 안전장치(가독성, 자동 디자인, 반응형 등)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일 VS 전문 디자인 도구

기능의 많음으로 따지자면 어도비의 포토샵 등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위의 온라인 도구들이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툴들의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작업 속도도 이러한 설치형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빠르고 쾌적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각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입니다. 마음 먹은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생각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배움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를 위해서 전문 디자인 툴을 배운다는 것은, 마치 치킨을 한 번 먹기 위해서 닭을 기르고 튀김기와 조리 도구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일로 아낀 시간을 더 좋은 메시지, 더 많은 채널 배포와 같은 생산적인 부분에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일 VS 카드뉴스 제작앱

모바일 스토어에도 카드뉴스라 검색하면 몇 가지 어플들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는 괜찮지만, 퀄리티와 사용성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활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많은 경우 배경 이미지 위에 텍스트만 배치된 형태라 실전투입을 염두한다면 쉽지는 않지요. 교육 업계에서도 이러한 무료 앱을 이용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다가 점차 타일 학교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계신 추세입니다.

타일 VS 에이전시 서비스

마지막으로 대행사라 불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콘텐츠 기획부터 배포와 채널 관리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컨텐츠 제작에 투입하실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전문가 그룹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비용과 시간입니다. 해당 회사의 전문가가 투입되므로 당연히 비용은 감수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간이라는 숨은 비용도 숨어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시간, 수정사항 발생 시(그것이 한 글자일지라도) 적용이 되기까지의 시간 등이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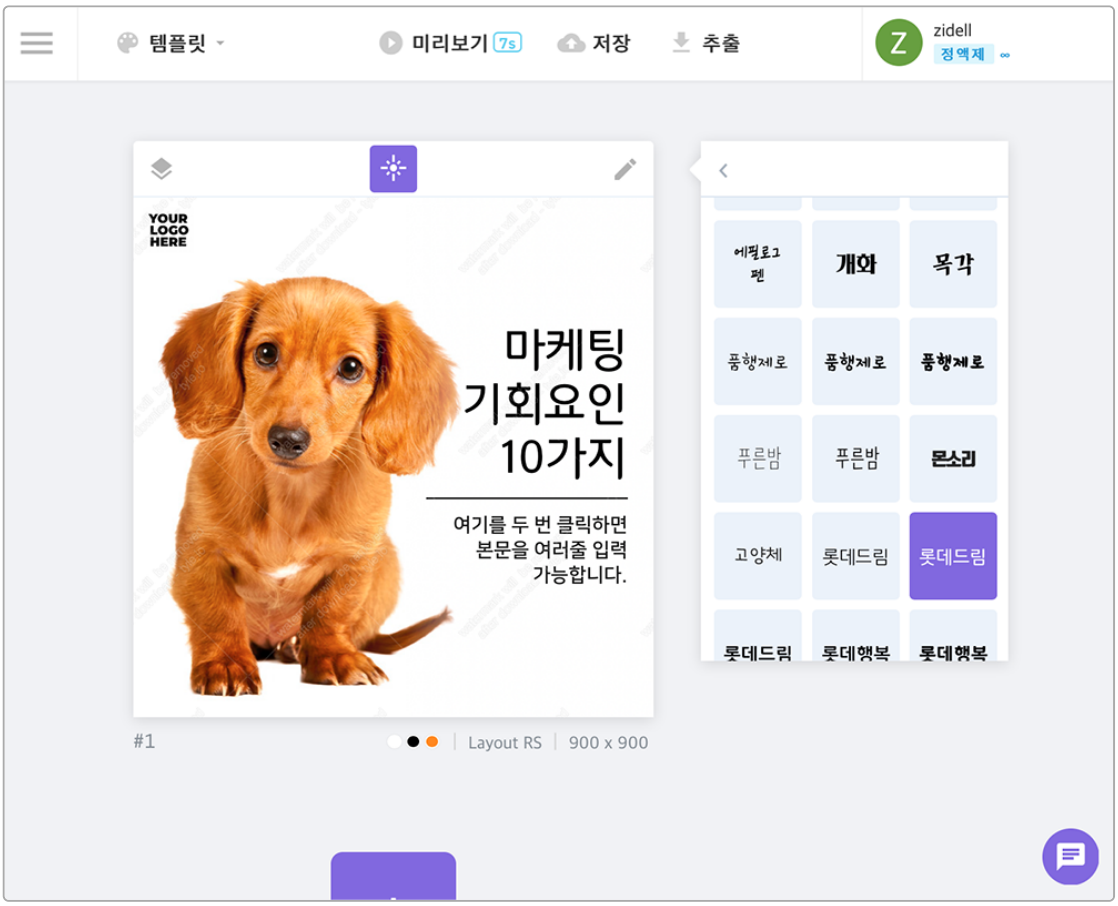
그에 반해 타일은 전달력이 높은 시각적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산해냅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시의성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죠.

가끔은 이러한 갭을 스마트하게 해결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타일을 활용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인데요. 타일로 기초적인 아웃라인이나 전달사항을 제작해서 에이전시와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콘텐츠 제작을 에이전시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즉 타일을 에이전시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각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제작 실습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타일을 처음 접하셨더라도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따라서 해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었어도,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설치 혹은 접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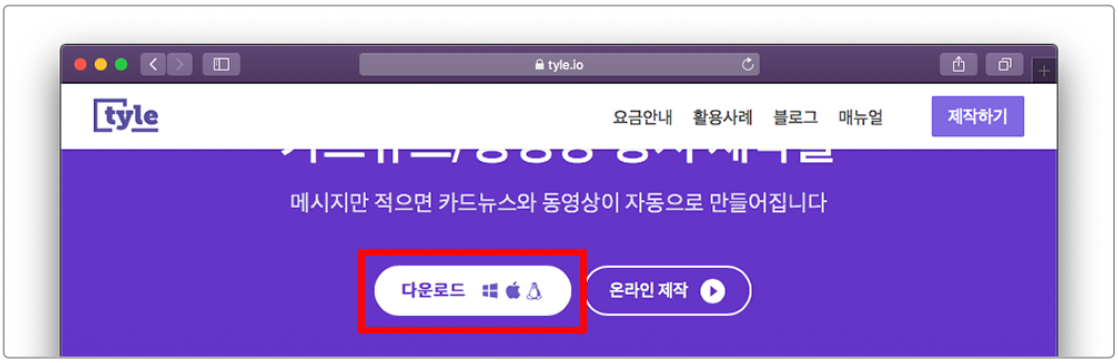


▲ 편집화면, 이곳에서 내용 작성이 가능

타일은 전용 프로그램 이나 크롬 등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용앱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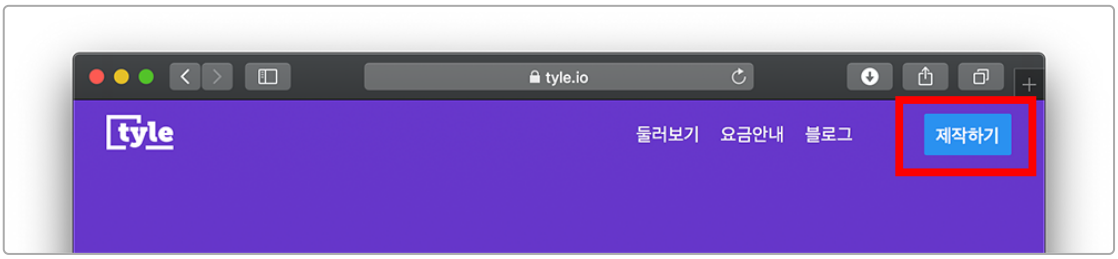
먼저 `https://tyle.io`로 접속을 합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고 안내에 따라 설치를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중앙의 다운로드 버튼

온라인에서 편집하기

`https://tyle.io`에서 우측상단의 `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제작하기 버튼

접속 환경에 따라 화면에 템플릿 리스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바로 슬라이드와 속성 편집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리스트가 나타난다면 화면상의 아무 템플릿이나 선택하고 `바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변경해보기

텍스트 요소 선택

텍스트 요소는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 자체이므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를 변경해보기로 해요.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여기를 두 번..`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마우스를 대면 외각선으로 강조가 되면서 선택 가능하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클릭을 한 번 해보세요. 텍스트 자체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오른쪽에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속성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어떤 요소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클릭해서 속성창을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텍스트를 클릭

텍스트 내용 변경

보통은 속성창에서 다 수정하지만, 텍스트는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이미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라도 한 번 더 클릭해봅니다. 아래와 같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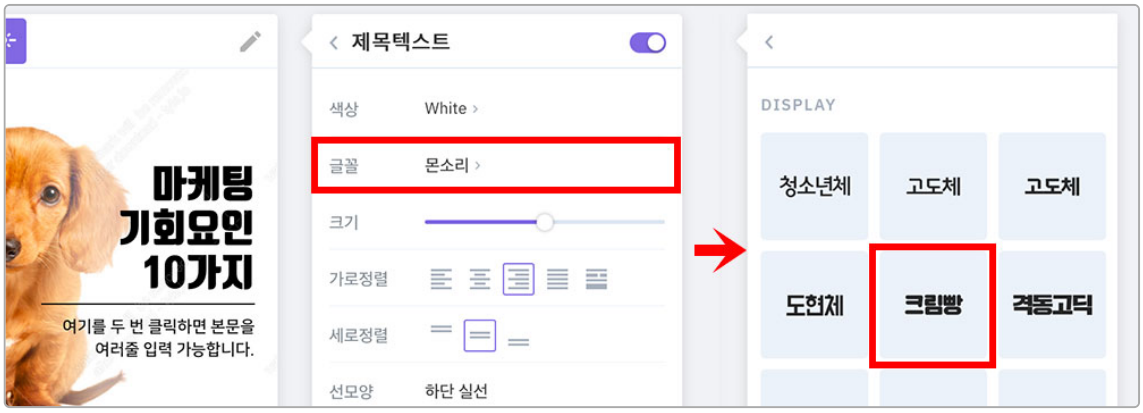
기존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마케팅 기회요인 10가지`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수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텍스트 편집모드를 빠져나갑니다.

▲ 한 번 더 클릭하면 수정모드로 진입

글꼴 변경

타일에서는 유료 상용 폰트 40여 가지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폰트를 두루두루 활용해보아야겠지요?

이미 텍스트의 속성창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우측 속성창에서 바로 글꼴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글꼴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무 폰트를 클릭해주세요.



▲ 속성창에서 글꼴 > 원하는 거 선택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고, 글꼴을 변경해보았어요. 타일의 모든 수정은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에서 수정하고자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우측에 속성창이 뜨면 거기에서 원하는 옵션을 눌러서 바꾸면되어요. 아주 간단하지요?

텍스트의 각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컨텐츠 요소들 > 텍스트 요소을 참고하세요~!

배경 변경해보기

배경 요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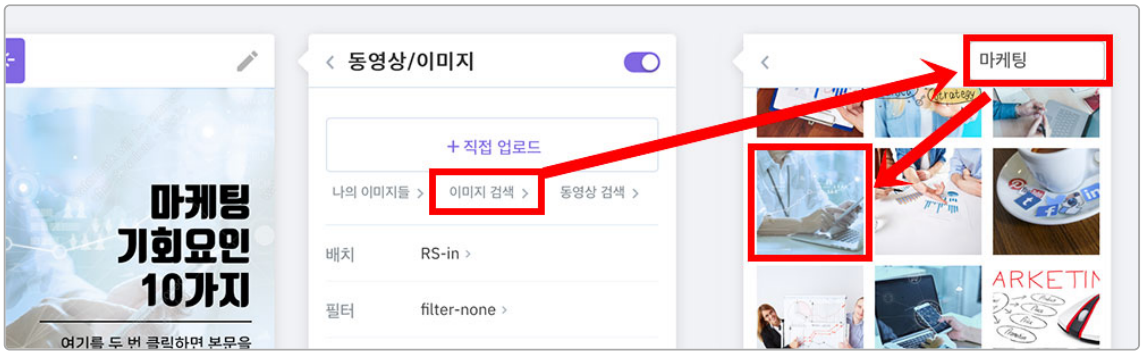
카드뉴스에서는 보통 배경으로 이미지가 쓰입니다. 물론 타일에서는 비디오를 넣어도 알아서 이미지로 추출되어요(반대로 이미지도 동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이는 배경을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배경을 클릭했으므로 배경에 관한 속성창이 우측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 배경을 선택하여 속성창 호출

스톡이미지로 변경

속성창에서 `이미지 검색`을 눌러보면, 타일이 제공하는 수만개의 스톡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Search 입력칸을 클릭하시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마케팅 이미지들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클릭합니다.



▲ 이미지 검색 후 원하는 이미지 선택

만약 동영상을 넣고 싶다면 속성창에서 **동영상 검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직접 업로드**를 통해 올리실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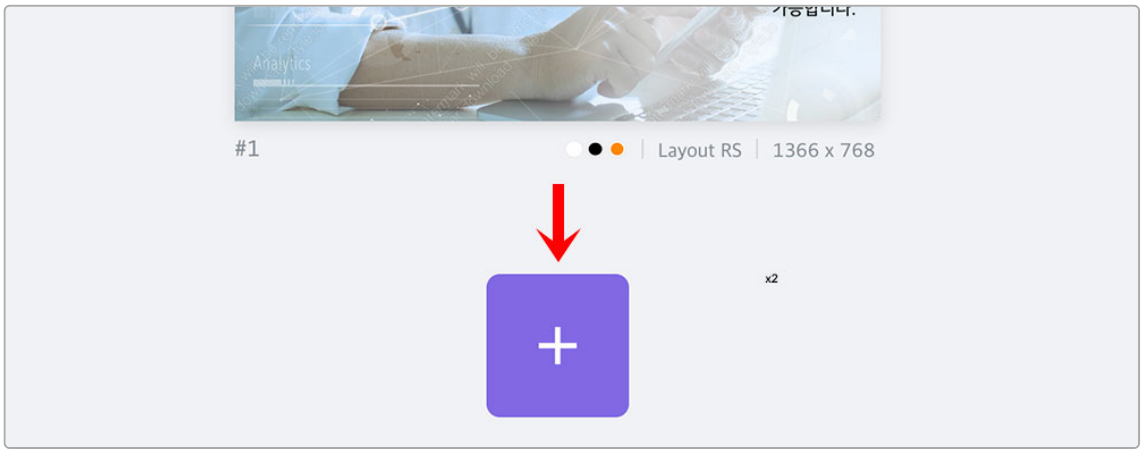
배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컨텐츠 요소들 > 배경 요소을 참고하십시오.

슬라이드 관리해보기

지금까지는 이미 있는 하나의 슬라이드만을 가지고 변경을 해보았어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끝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다수의 슬라이드로 이야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참, 타일에서 말하는 슬라이드는 배경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Page)를 의미합니다.

슬라이드 추가

화면상에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은 슬라이드 추가 버튼인데 마우스로 눌러보세요. 버튼 바로 위의 슬라이드가 복제되어 바로 아래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 총 세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봅니다.



▲ 슬라이드 추가 버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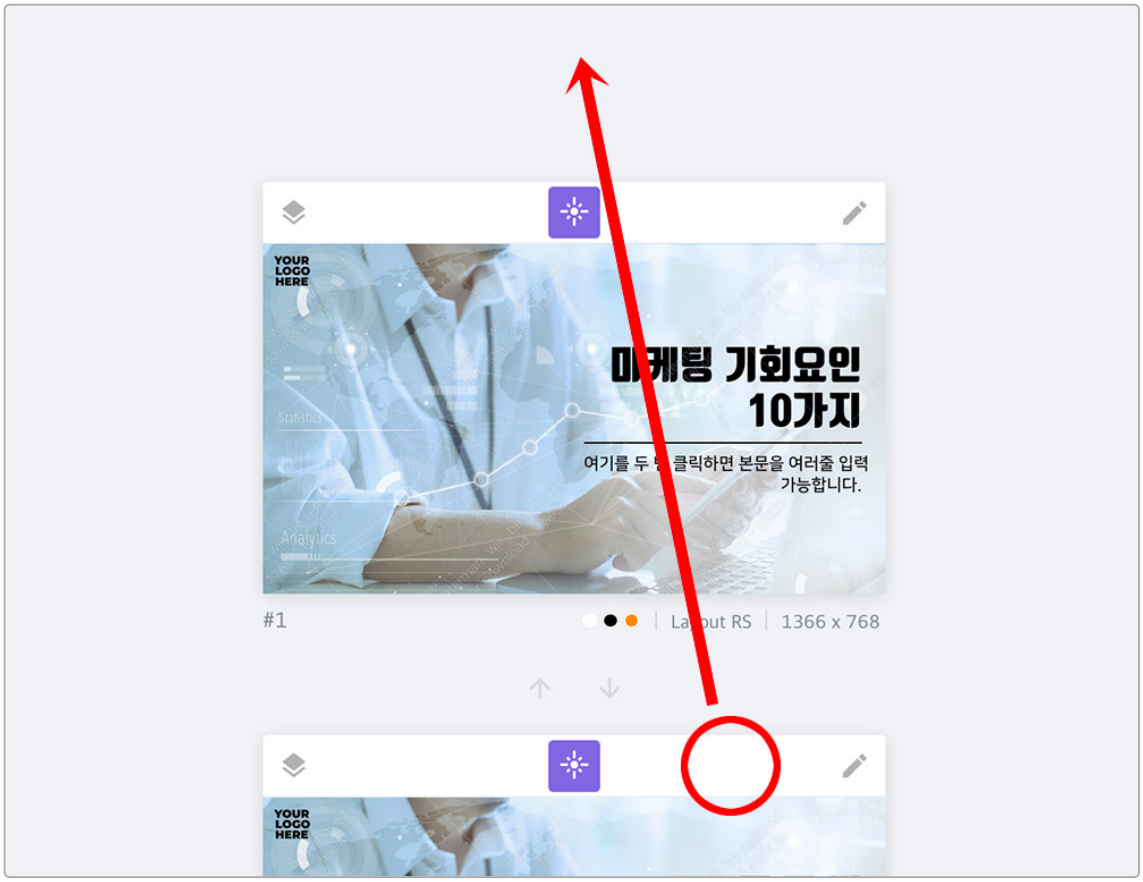
방금 보셨듯이 슬라이드를 추가하면 완전히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되는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가 복제됩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완성된 카드뉴스를 볼 때에는 한 장 한 장 집중해서 보지 않고 빠르고 넘겨보게 됩니다. 이때 각 슬라이드가 매번 새로운 구성과 컬러로 이루

어져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흐름이 끊기겠지요? 따라서 타일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지막장을 복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변경해나가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순서 변경

실제로 카드뉴스를 만들다 보면 순서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흐름을 만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타일에는 손쉽게 슬라이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의 상단에 길게 흰색 영역이 있고 몇 가지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 버튼이 없는 흰색 공간을 클릭하고, 원하는 공간에 두면 순서가 이동됩니다.



▲ 여백을 잡고 드래그하여 순서 변경

슬라이드 삭제

순서 변경과 마찬가지로, 만들다 보면 쓸데없이 추가한 슬라이드도 생기기 마련이겠지요? 필요없는 슬라이드는 바로 삭제해버립시다! 지금 이 실습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표시를 클릭해보아요. 우측에 슬라이드에 관한 속성창이 뜨면 속성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볼 수 있을거예요. 이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완료합니다.

▲ 휴지통 모양의 슬라이드 삭제 버튼

슬라이드 관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컨텐츠 요소들 > 슬라이드 컨테이너 요소을 참고하십시오.

공통요소 변경해보기

지금까지 내용 편집과 슬라이드 관리를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타일의 기본 설계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요소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창에서 옵션 바꾸고, 슬라이드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들만 해도 그럴듯한 카드뉴스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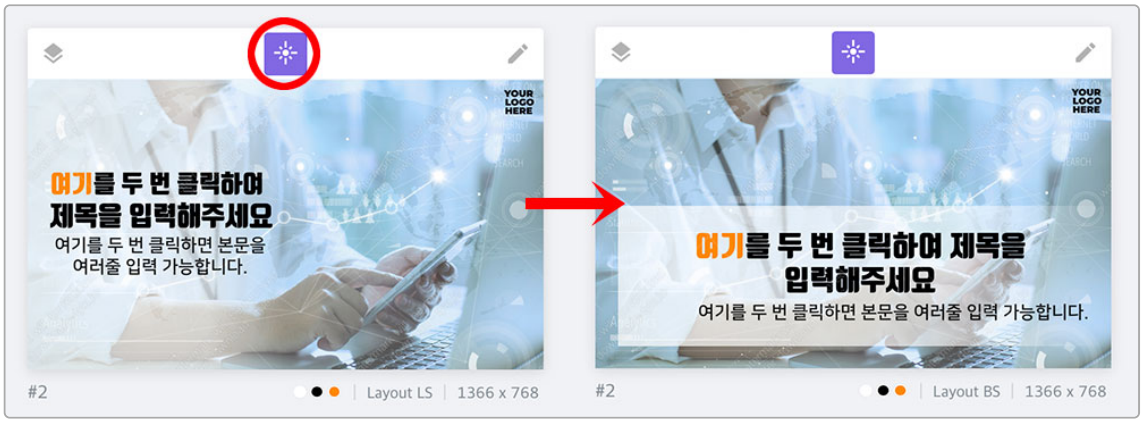
실제 제작시에 필요하면 몇 가지 공통 사항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배치 변경

배치는 레이아웃 혹은 구성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결과물에서 텍스트가 어느쪽에 있고, 이미지는 어디에 있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일이 아닌 다른 도구들을 쓴다면, 화면에 있는 모든 배치들의 적절한 크기와 거리, 위치, 순서 등을 일일이 조절해줘야겠지요? 타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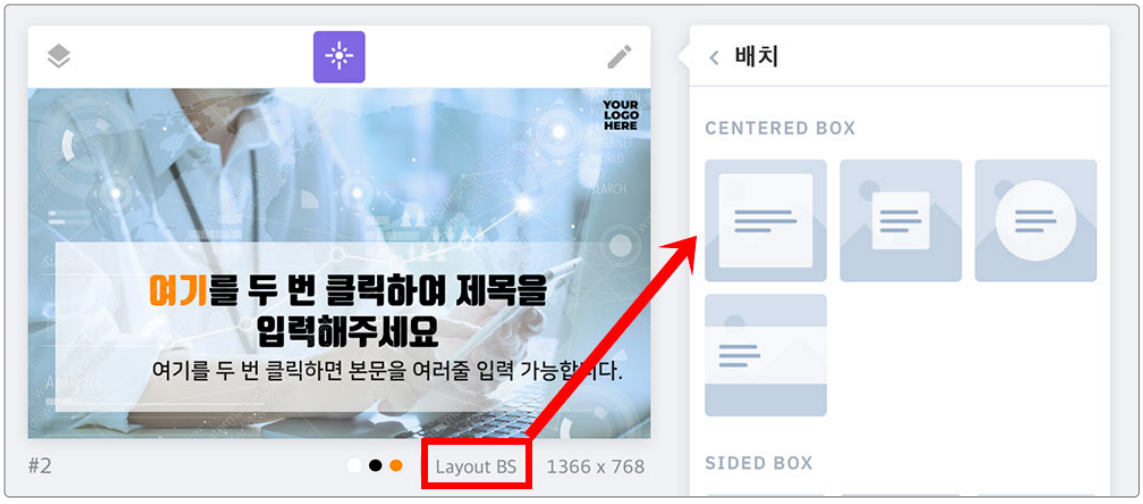
왜냐하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입력된 내용과 배겨 이미지에 따라 적절한 배치를 추천해주거든요! 이것이 내부에서 열일하는 타일의 디자인 엔진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상단을 보시면, 가운데에 보라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무작위로 디자인을 변경해보는 버튼이예요. 이 디자인 변경 버튼을 눌러보세요. 여러번 눌러도 상관없는데, 누를 때마다 전혀 다른 배치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모든 요소들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상단에 있는 보라색 버튼을 눌러 자동 배치 변경

만약 마음속에 어떤 배치를 생각한게 있다면,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배치]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속서창에 배치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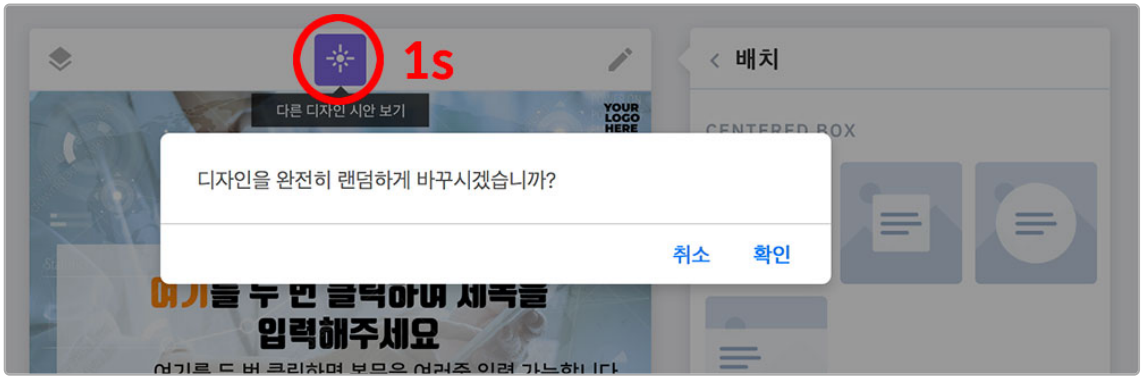


▲ 하단의 버튼을 통해 직접 배치 설정

모든 것을 변경

디자인 변경 버튼의 기본적으로 배치만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위치 정도는 바뀌지만 디자인상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용자의 읽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설계된것이예요.

하지만 중간에 내용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야하거나, 조금 색다른 디자인을 줘야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이럴 때에는 `완전히 랜덤하게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디자인 바꾸기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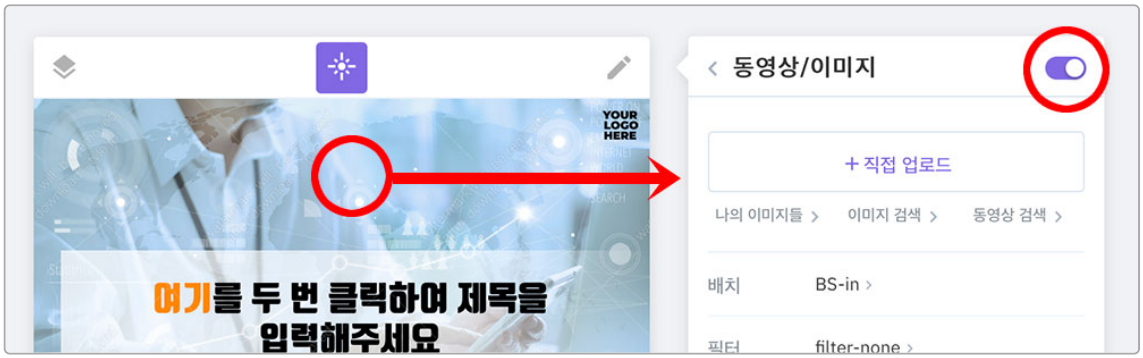
▲ 디자인 변경을 오래 누르면 모든게 바뀜

[글꼴], [색상세트] 등 보다 많은 요소들이 랜덤하게 바꾸며, 이에 따라 해당 슬라이드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요소 가리기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배경 / 텍스트 / 로고 / 박스 등의 컨텐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슬라이드마다 이 요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텍스트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배경 이미지를 없애고 싶다고 가정해보아요. 단순히 배경을 단순한 이미지로 교체해도 되지만, 보다 쉽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배경 요소를 클릭하여 우측에 속성창을 엽니다. 속성창의 우측 상단에 보라색 스위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눌러 안 보이게 하면, 슬라이드에서 해당 요소가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요소의 속성창 우측상단에 있는 가리기 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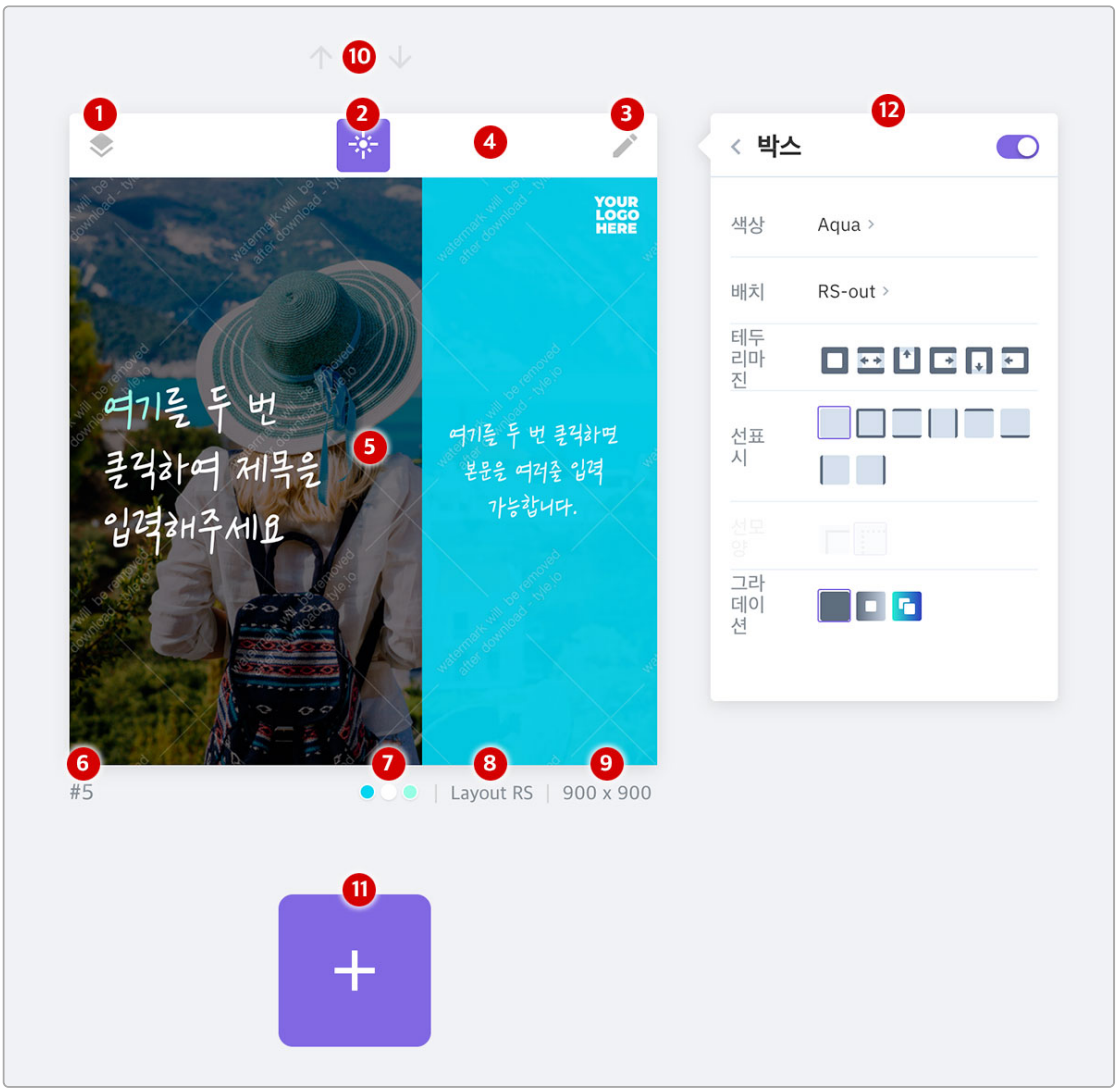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컨텐츠 요소들 > 공통옵션 > 숨김/보임을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별 내용은 없지만, 타일의 기능들을 직접 따라하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예시로 작성한 내용물을 추출하려면 [추출 및 배포]으로 이동하여 보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화면과 기능

타일의 편집화면 구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 배치된 각 기능들의 목적, 그리고 각 기능 간 연결과 흐름을 알게 되면, 사용이 더욱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슬라이드와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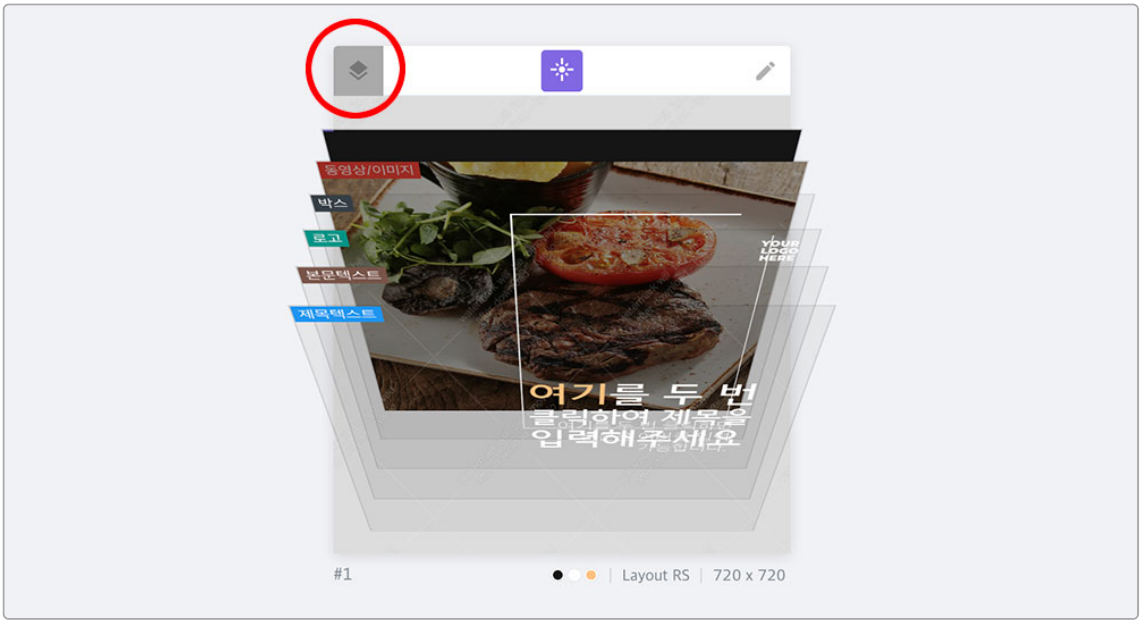
▲ 편집화면의 기본 구조

타일 제작 화면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주요 내용을 작성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는 카드뉴스에서 각 장이며, 영상의 경우 하나의 컷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에는 로고, 텍스트, 비주얼 리소스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구성요소를 클릭하면 우측에 세세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창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① 요소 선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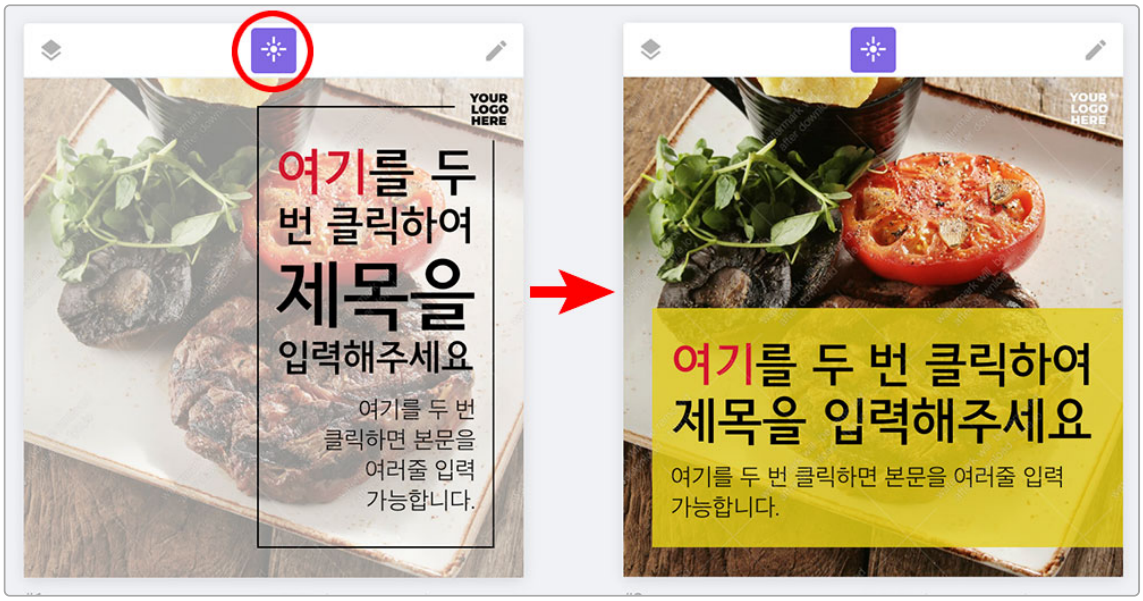
슬라이드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5가지 컨텐츠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 선택기를 클릭하면 각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요소에 관한 속성창이 열립니다. 각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컨텐츠 요소들]를 참고하십시오.



▲ 요소 선택기를 눌러 모든 요소가 펼침

② 디자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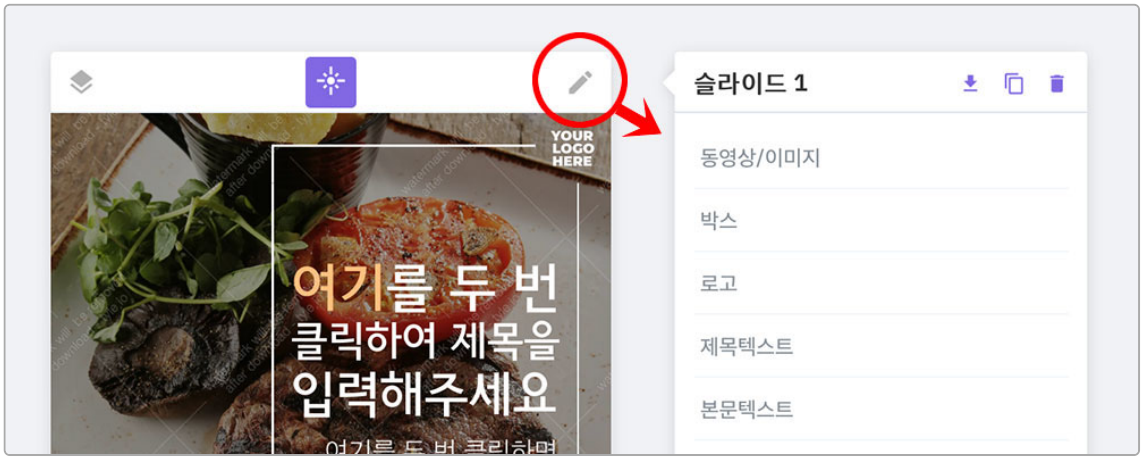
타일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맞춤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조건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변경

③ 속성창 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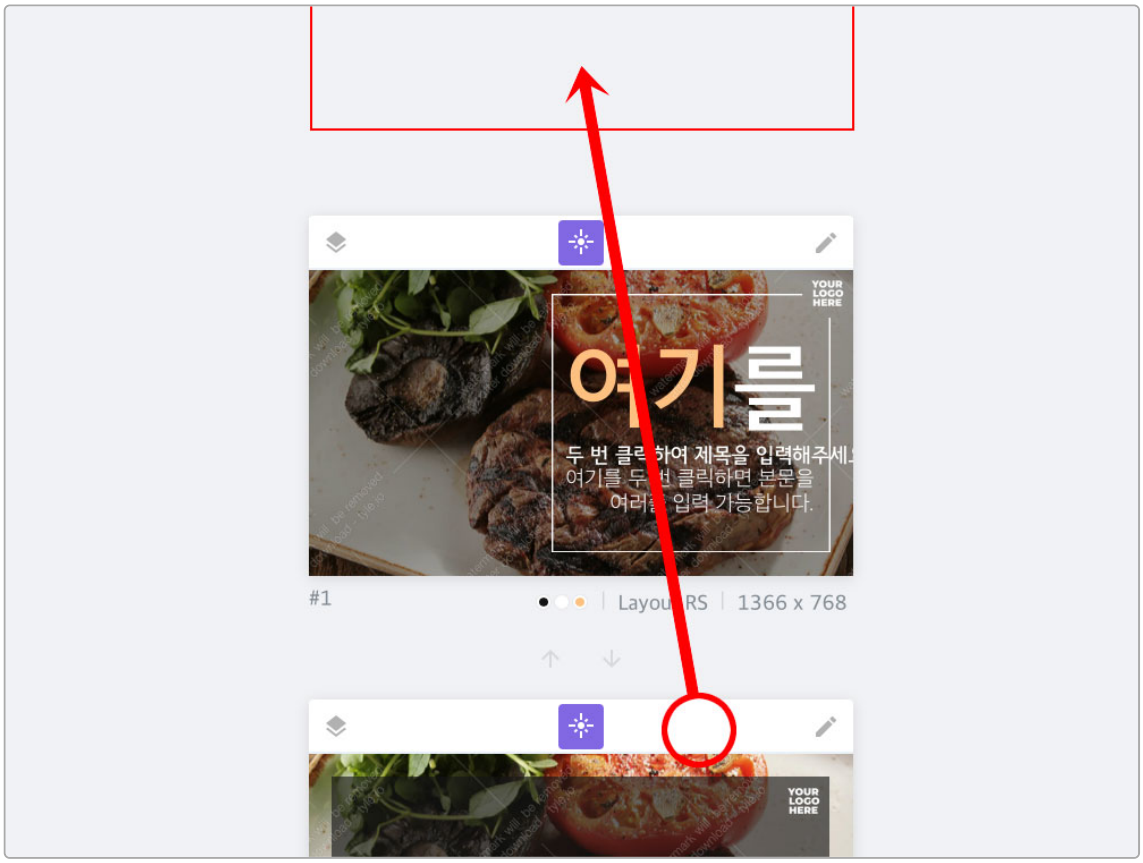
이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에 속성창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슬라이드를 복제나 삭제할 때, 혹은 수동 모드 전환등을 이용할 때 쓰입니다.



▲ 슬라이드에 관한 속성창 호출

④ 순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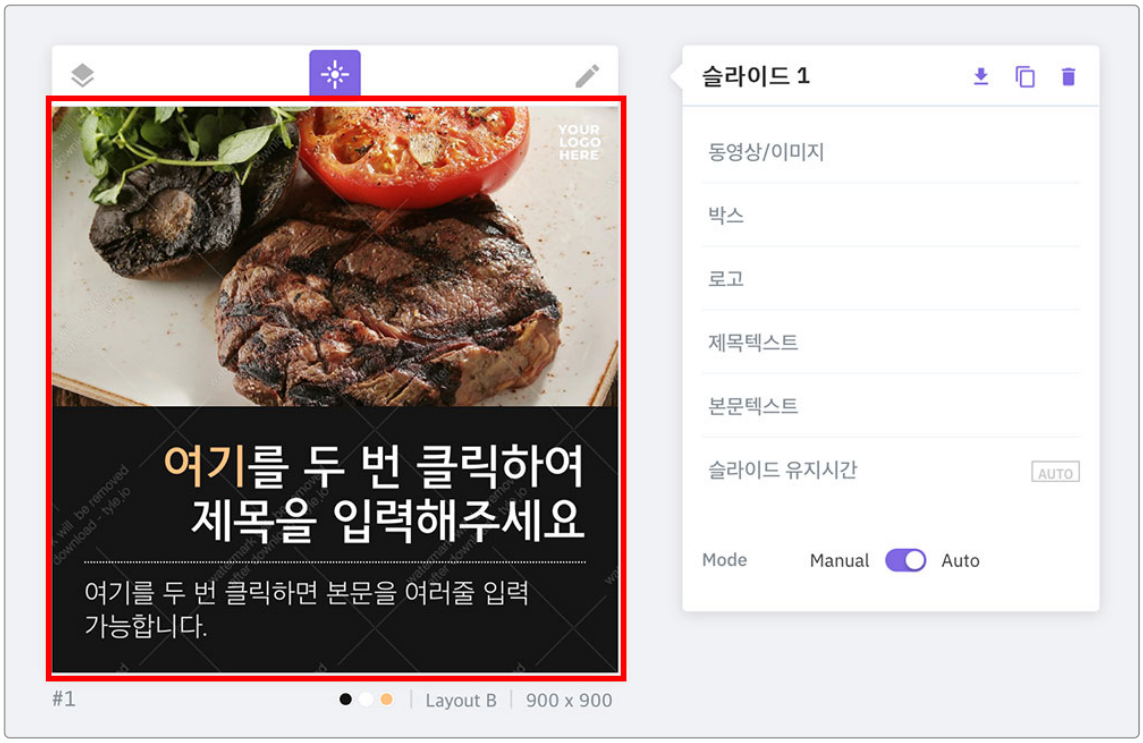
슬라이드 상단의 흰색 영역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슬라이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백을 잡고 드래그하여 순서 변경

⑤ 요소 미리보기 및 편집

슬라이드의 구성 요소들이 위지윅으로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결과물을 바로 예측할 수 있고, 변경을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우측에서 바로 속성창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소는 속성창에서 옵션을 변경하지만, 텍스트에 한해 두 번 클릭하여 바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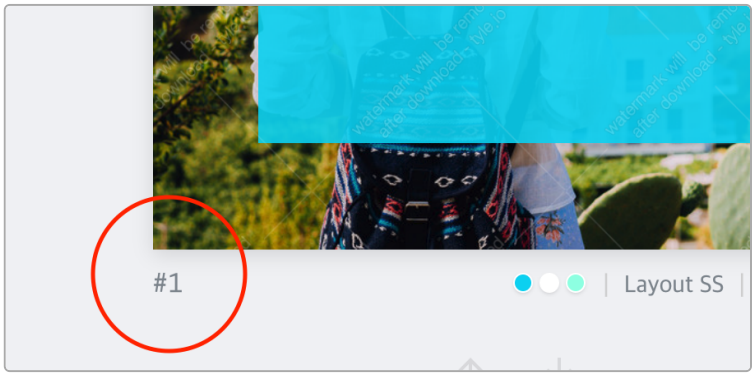


▲ 슬라이드 자체가 대부분 요소를 보여주는 목적

편집중에는 캡쳐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터마크가 있지만 추출하면 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및 영상 추출]을 참고하십시오.

⑥ 슬라이드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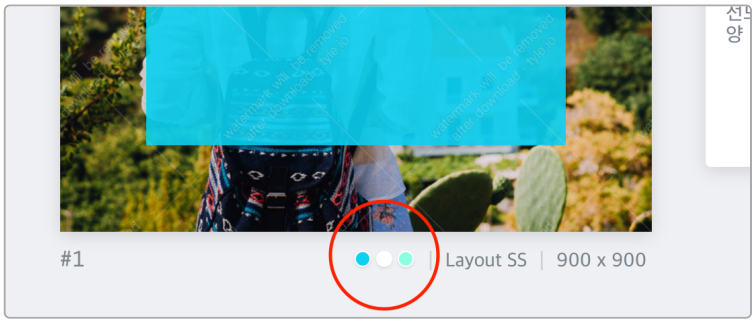
각 슬라이드의 좌하단에는 이 슬라이드가 카드에서 몇 번째인지 번호를 나타냅니다.



▲ 슬라이드가 몇 번째인지 번호

⑦ 색상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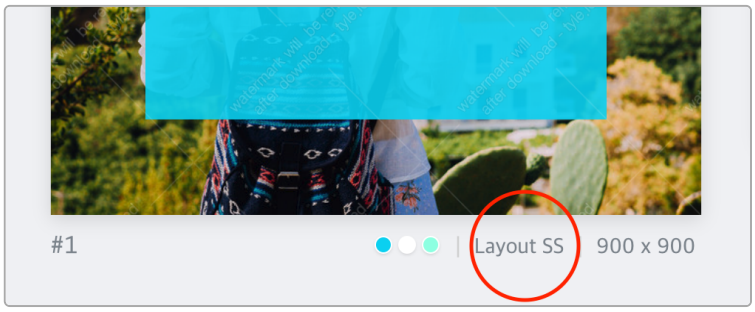
타일에서의 색상은 각 슬라이드별 색상세트로 관리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세트 변경 속성창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색상세트]를 참고해주십시오.



▲ 슬라이드 색상 조합, 클릭하여 변경 가능

⑧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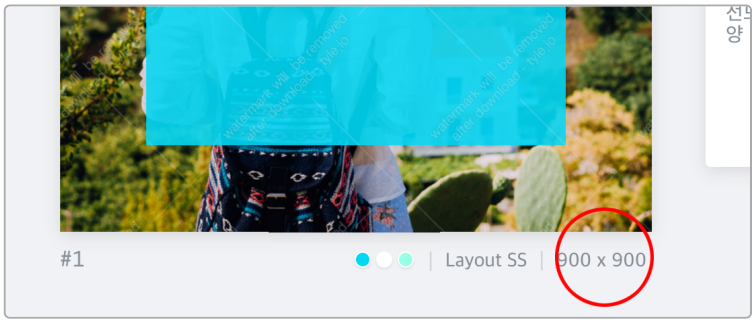
각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이라는 큰 형태의 배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정에 따라 나머지 세부 요인들이 결정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아웃 변경 속성창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치]를 참고해주십시오.



▲ 슬라이드 현재 배치, 클릭하여 변경 가능

⑨ 슬라이드 크기

해당 슬라이드의 실제 픽셀 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사이즈 변경 속성창을 호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즈]을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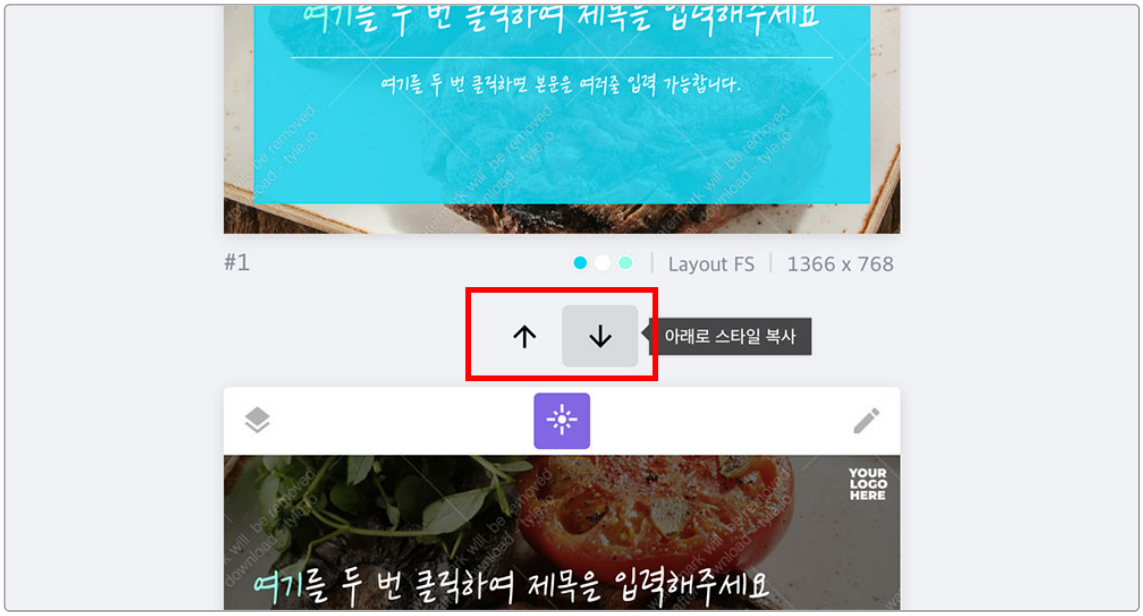


▲ 슬라이드의 현재 크기, 클릭하여 변경 가능

⑩ 슬라이드 스타일복제

슬라이드가 두 개 이상 생성이 되어 있다면 각 슬라이드 사이에 위/아래 버튼이 두 개 보여집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 복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의 사이즈, 글꼴, 색상세트, 배치, 로고 등 대부분의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클릭하면, 해당 방향으로 전체 스타일을 복사합니다. 세부적으로 또는 이후/이전의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면 세부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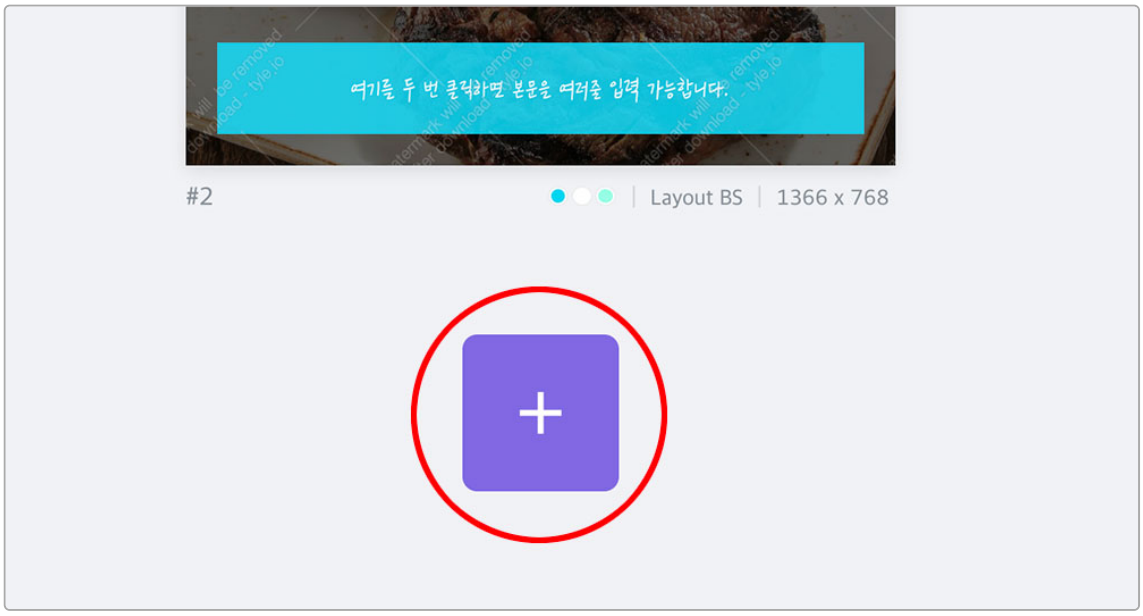


▲ 슬라이드 사이에 있는 스타일 복제 버튼

⑪ 슬라이드 추가

편집화면의 가장 하단(마지막 슬라이드 아래)를 보시면 슬라이드를 새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복제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메시지 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제되어 추가된 슬라이드에서 변경할 부분만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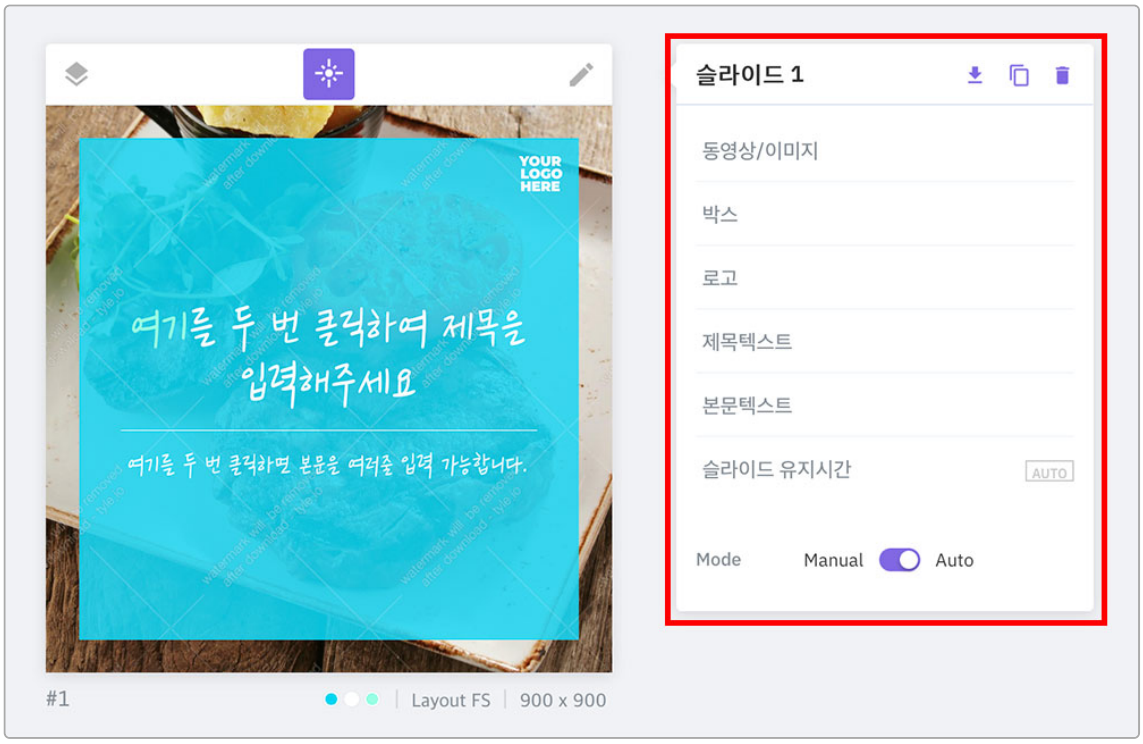


▲ 슬라이드 추가 버튼, 클릭시 마지막 슬라이드 복제

⑫ 속성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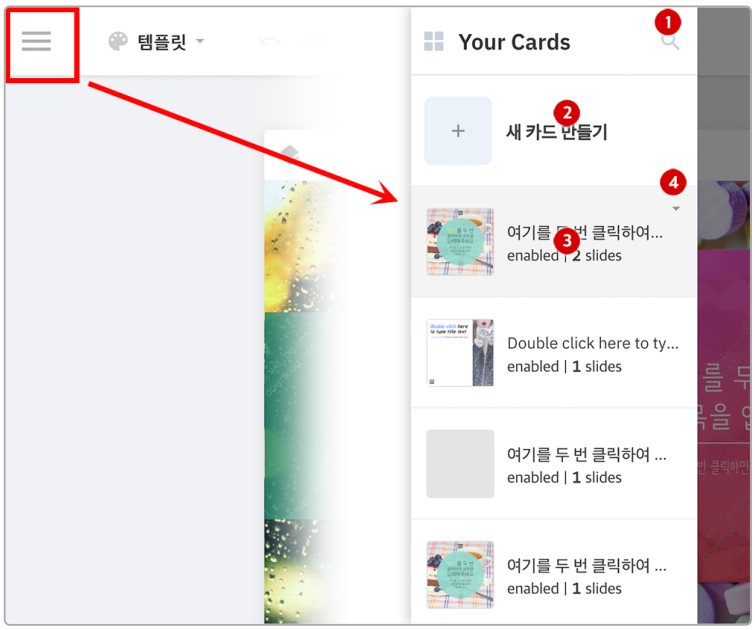
각 구성요소들을 선택할 때마다 우측(모바일에서는 하단)에 속성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속성창에서는 선택된 요소에 관한 세부 옵션들과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값 / 보이기 혹은 숨기기 / 삭제 등의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별 자세한 옵션 설정법은 [컨텐츠 요소들]를 참고하세요.



▲ 속성창은 각 컨텐츠 요소의 옵션을 조절

사이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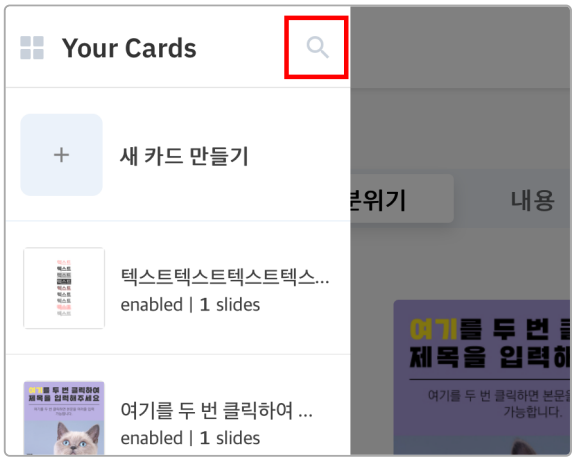


▲ 좌측 상단의 버거메뉴를 클릭하여 사이드바 호출

사이드바는 새로운 카드를 생성하거나, 기존에 작업했던 카드들에 관한 호출 및 관리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상단의 버거메뉴(=)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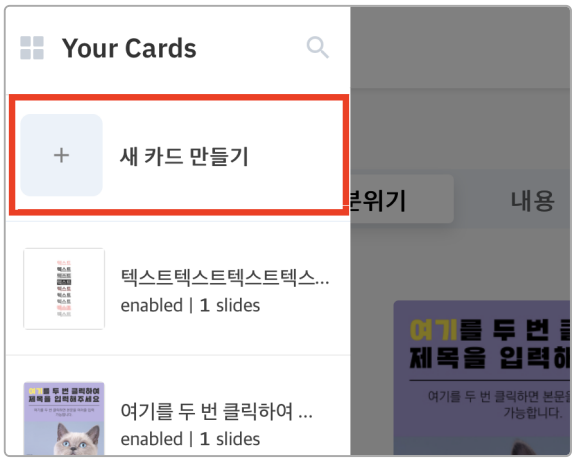
① 카드 검색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카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카드 제목이며, 카드에 별도로 설정된 태그 정보도 포함됩니다. 검색을 위해 별도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정보변경]를 참고하십시오.



▲ 돋보기 버튼을 통해 카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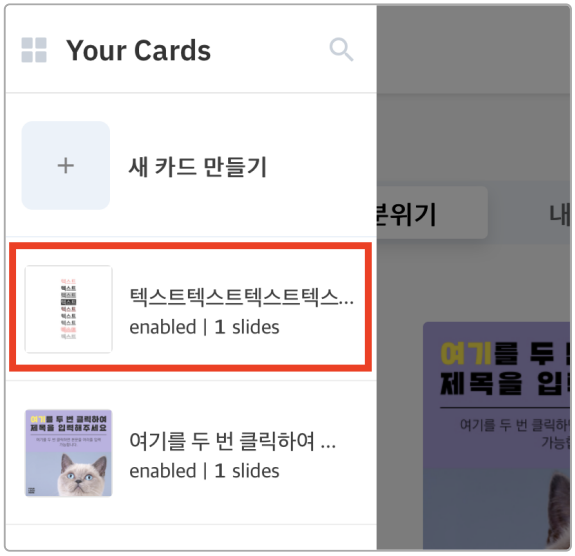
② 새 카드 만들기



▲ 새 카드 버튼

새로운 카드를 생성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편집화면을 벗어나서 새로운 카드 편집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기존 카드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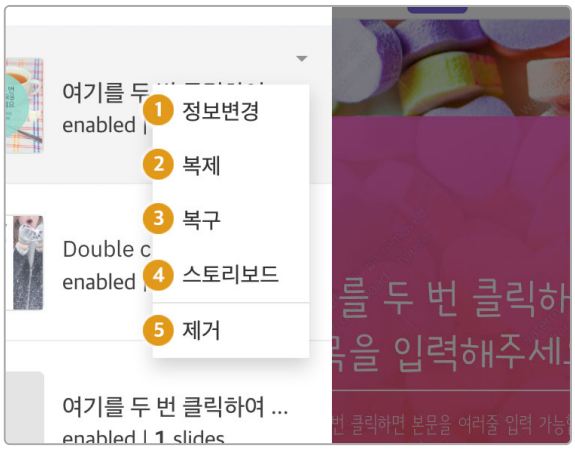


▲ 기존 카드를 클릭하여 수정 모드 호출

리스트에 있는 기존의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카드의 수정화면으로 진입합니다.

④ 기존 카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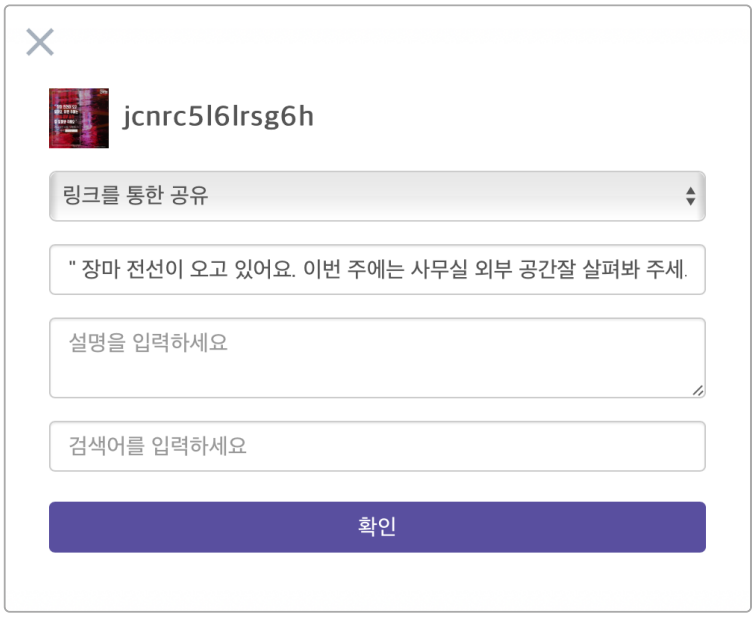
각 카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우측 상단에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카드에 관한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의 우측 상단 버튼을 눌렀을 때

① 정보변경

카드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변경하는 편집창을 호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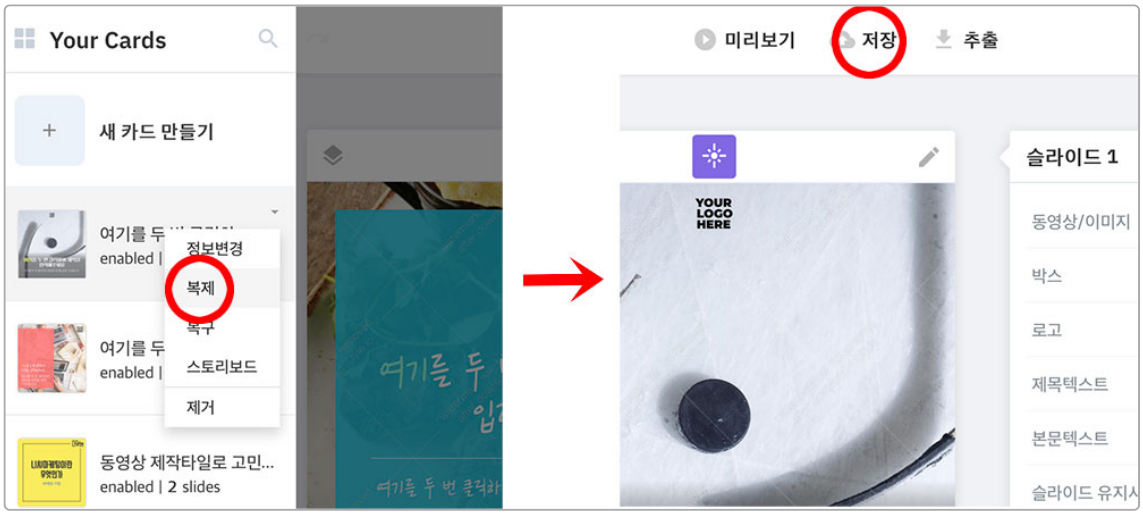


▲ 카드의 정보수정 창

- 공개여부 : 이 카드의 공개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공개범위는 [이미지 및 영상 추출] 완료 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개할 때에는 추출 작업도 완료된 상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미 공개했으나, 미공개로 돌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공개된 작품은 타일의 홈페이지에 있는 둘러보기에 게제되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도 노출됩니다.
- 제목 / 설명 / 검색어 : 이 카드의 메타 정보들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메타 정보중 제목은 사이드바에 표시되며, [카드 검색]에서는 모든 메타정보를 활용하여 결과를 표시합니다.

② 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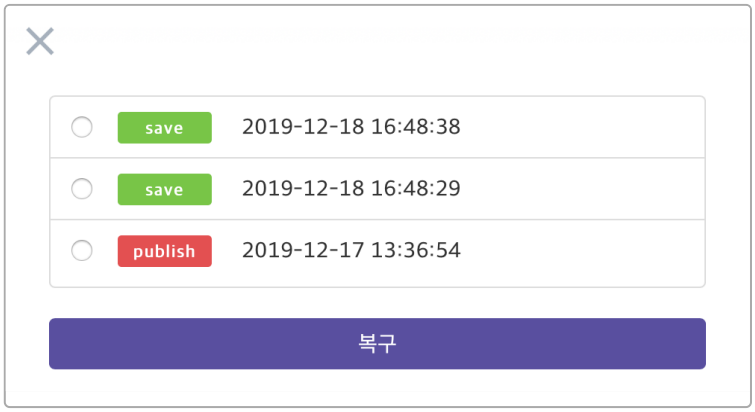
기존의 작업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제를 누르는 경우에 원본과 같은 내용을 가진 카드를 화면상에 띄워줍니다만, [저장]을 완료하셔야 비로소 사이드바에 생성됩니다.



▲ 복제 클릭 후 저장까지 누르기

③ 복구

카드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타일이 자동으로 작업 내역을 중간중간 백업합니다. 이 복구 기능을 이용하면 최근 2일 이내에 백업된 모든 내용을 복구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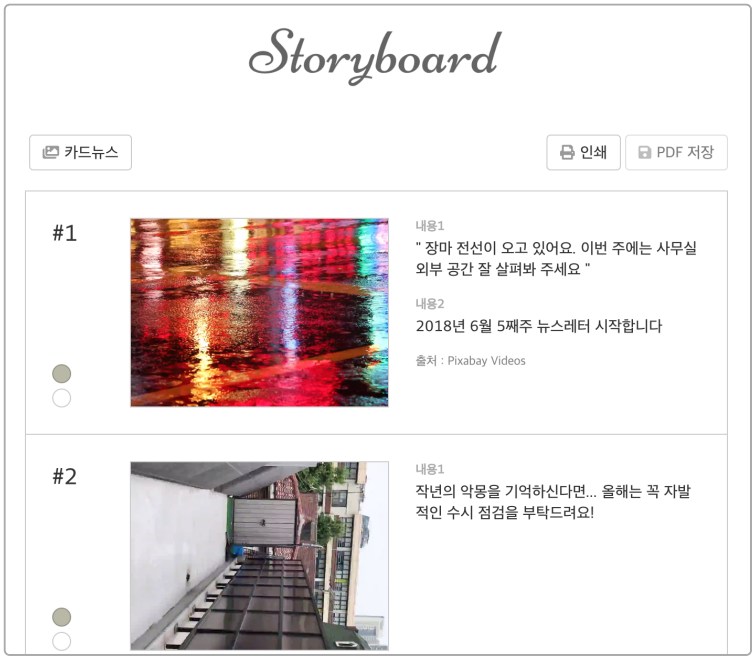
▲ 최근 2일 이내의 복구 가능한 리스트

복구를 진행하면 [복제]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구성된 편집화면이 열리고, 확인 후 [저장]을 눌러 새 카드를 저장함으로써 복구를 완료하게 됩니다.

④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이야기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주얼과 텍스트를 같이 나열한 형식을 말합니다(위키백과 참고). 타일은 작성된 카드를 손쉽게 스토리보드 모드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보드 페이지에서는 (추출이 이미 한 번 이상 된 경우) 카드뉴스 보기, 동영상 보기를 할 수 있으며,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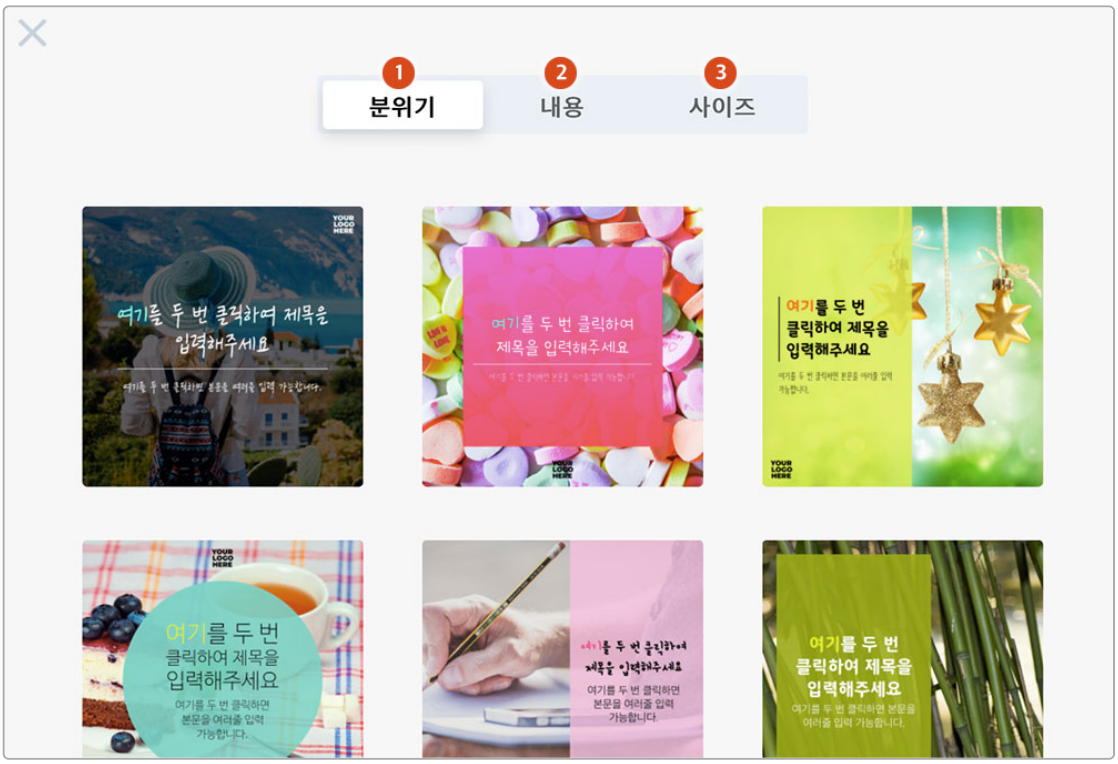
▲ 스토리보드 모드

⑤ 제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카드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삭제된 카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복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센터]을 통하여 운영팀에 별도 요청하여야합니다.

> 운영팀에 문의하여도 제거된지 오래되었거나 이미 탈퇴한 회원의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



▲ 템플릿 변경시 나타나는 화면

기본적으로 타일은 디자인을 주도하고, 사용자는 메시지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많이 쓰는 분위기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제작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많이 쓰는 패턴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타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크게 분위기, 내용, 사이즈 3가지로 결을 나누어서 제공합니다. 3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특성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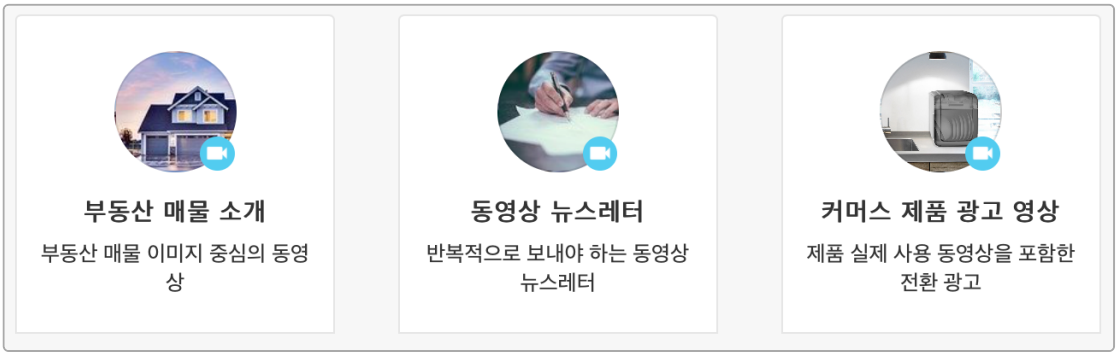
템플릿을 호출하는 것은 상단의 일괄 변경을 누르고, 선택하고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분위기

분위기는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색상세트], [배치], [글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울리는 것들끼리 미리 설정을 마쳐둔 것이며, 마음에 드는 분위기 템플릿을 선택하여 현재의 카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배경 및 텍스트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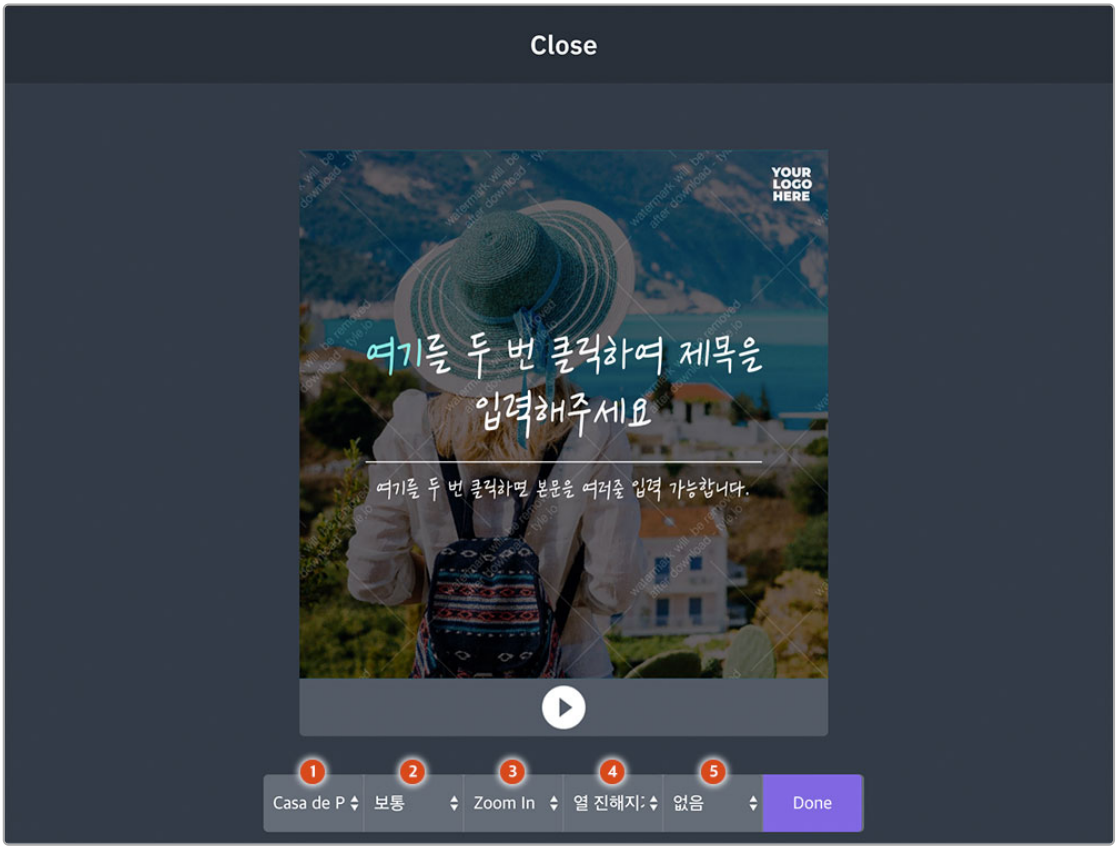
내용은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 이야기를 이미 담아놓은 템플릿들입니다. 다른 템플릿과는 다르게 적용시 기존의 내용을 모두 대체하여 새로운 내용들을 가진 다수의 슬라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시작이 막막할 때 내용 템플릿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둘러보기 페이지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고 공개한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둘러보기 활용]을 참고하십시오.

③ 사이즈

사이즈는 말 그대로 내용물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즈는 사용자가 결과물을 어디에 [export-share/share] 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기에, 알기쉽도록 각 플랫폼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며, 각 슬라이드의 내용도 자동디자인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하나의 작업물로 다수의 플랫폼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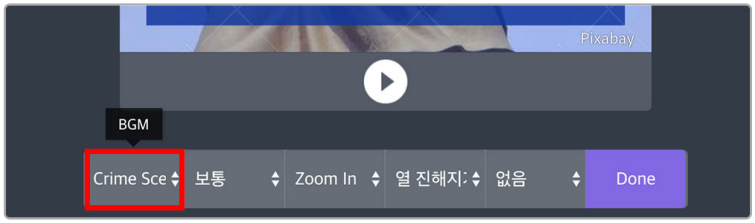


▲ 미리보기 클릭시 나타나는 화면

상단의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작성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리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미리보는 것 외에도 재생에 필요한 약간의 옵션들도 설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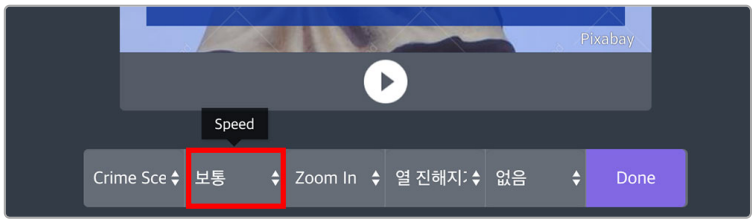
> 모든 옵션은 슬라이드 전체, 즉, 카드에 적용되므로 각 슬라이드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① 음악



자동으로 길이에 맞춰 재생되는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제목 옆에 표시된 숫자는 bpm으로 음악의 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포가 빠르면 영상의 재생속도도 미세하게 빨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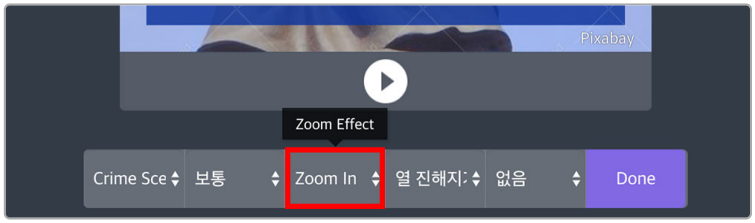
② 재생속도



전반적인 동영상의 재생속도를 결정합니다. 느리게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속도가 늘어지며 배경음악도 조금 늘어지고, 이에 따라 전체 재생시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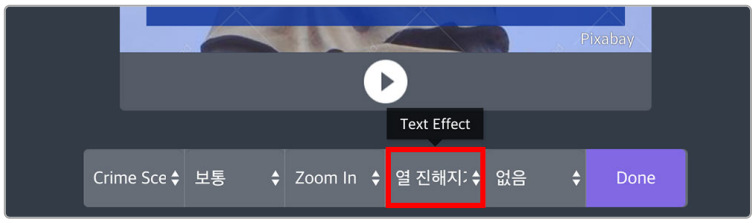
> 만약 특정 슬라이드의 재생(유지)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유지시간]을 참고하십시오.

③ 확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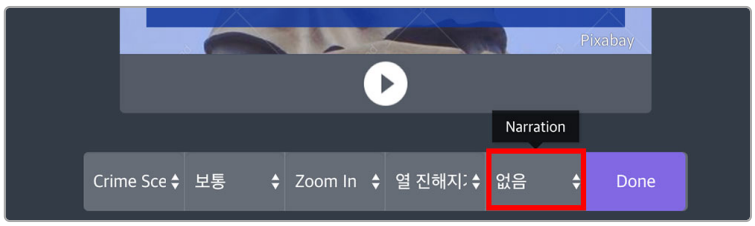
슬라이드의 배경이 이미지로 된 경우 영상으로 추출되면 다소 심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출력하게 되는 경우 타일이 자동으로 조금씩 확대/축소 되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카드의 사이즈에 맞춰 배경 이미지를 딱 맞추었다면 이 기능을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텍스트 효과



텍스트가 나타날 때의 효과를 지정합니다.

⑤ 나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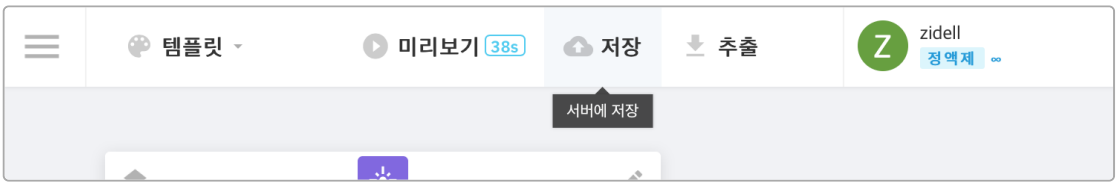
텍스트가 있는 경우, 해당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옵션을 변경합니다. 나레이션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적용된 영상 샘플보기

- 특정 단어를 이상하게 읽는 경우에는 영문 표현이나 괄호 등으로 감싸서 생략해 볼 수 있습니다.
- TTS 엔진으로 읽는 것이 아닌, 직접 음성녹음을 통한 기능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과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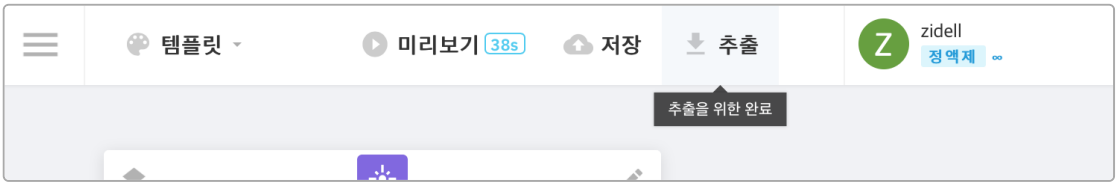
저장



▲ 저장 버튼으로 서버에 저장

상단의 저장메뉴를 통해서 언제든지 작업물을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시간마다 작업물을 서버에 백업합니다. 이렇게 자동 및 수동으로 저장된 작업물은 최근 2일 이내에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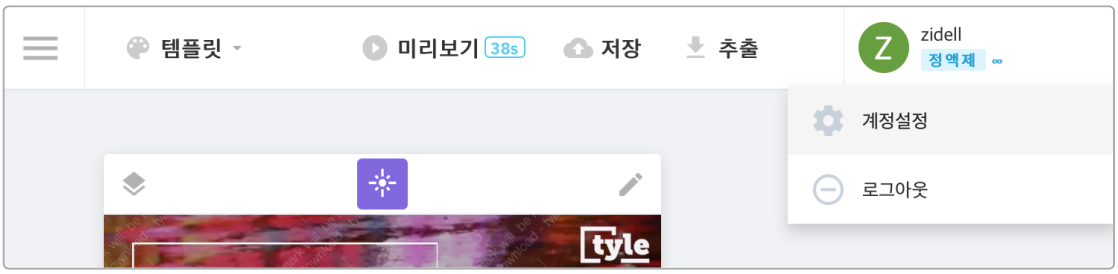
추출



▲ 추출 버튼으로 결과물 내려받기

추출은 완료한 작업물을 연속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내 컴퓨터에 내려받습니다. 또한 캡쳐방지용으로 화면에 표시되던 워터마크가 사라지며, 실제 정확한 픽셀의 크기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방법은 [추출 및 배포]를 참고해주십시오.

계정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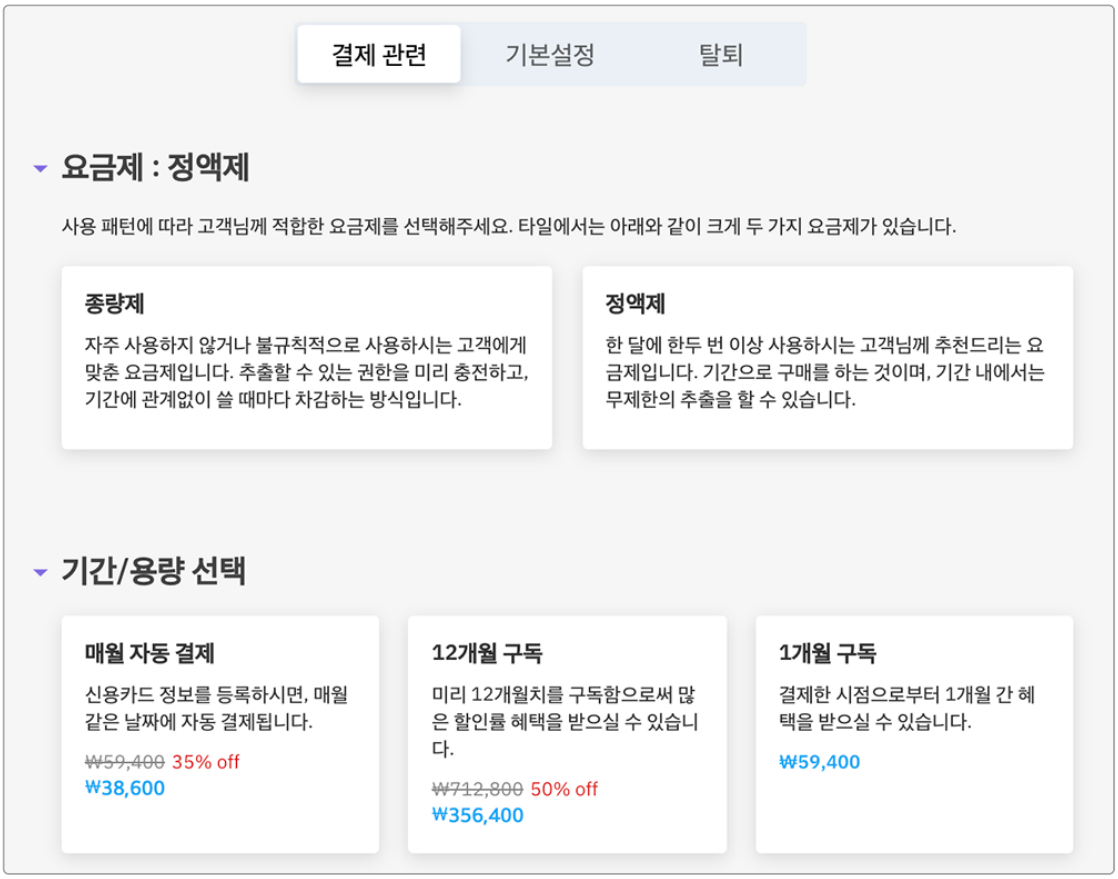


▲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설정 이동 버튼

편집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클릭하면 계정설정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이 표시됩니다.

① 결제 관련

https://tyle.io/account/personal 에 접속하여 좌측의 결제관련 탭을 선택합니다.



▲ 결제 페이지, 요금제와 결제 방식을 선택

타일의 편집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 권한을 획득하여야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결제를 통해 유료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하단에서 기존의 결제 내역을 확인 및 취소, 영수증의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요금제를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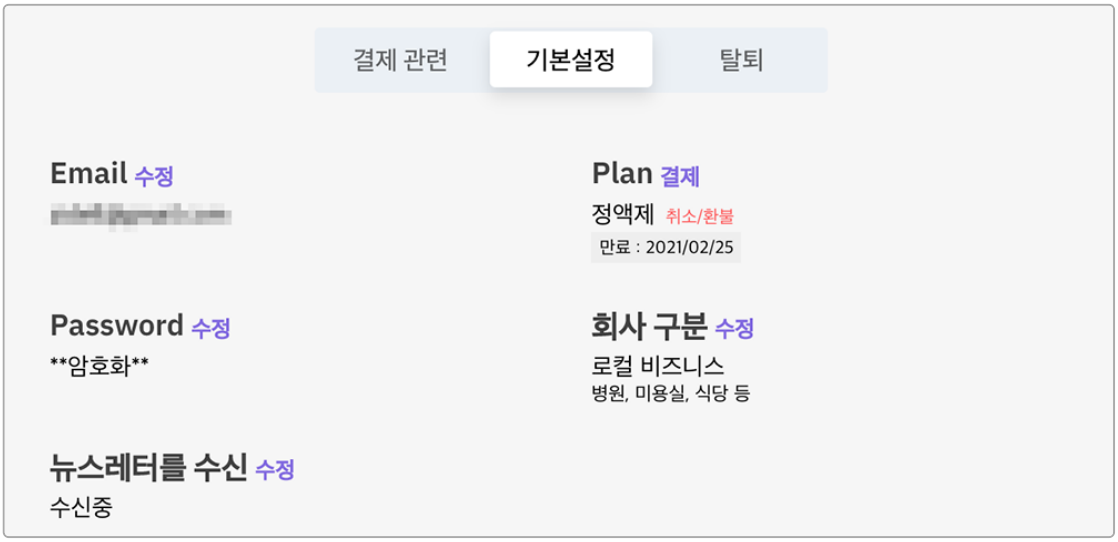
과거 결제내역

▲ 과거 결제 내역, 취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

결제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타일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거래내역마다 결제한 시점과 결제 수단, 금액,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버튼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② 기본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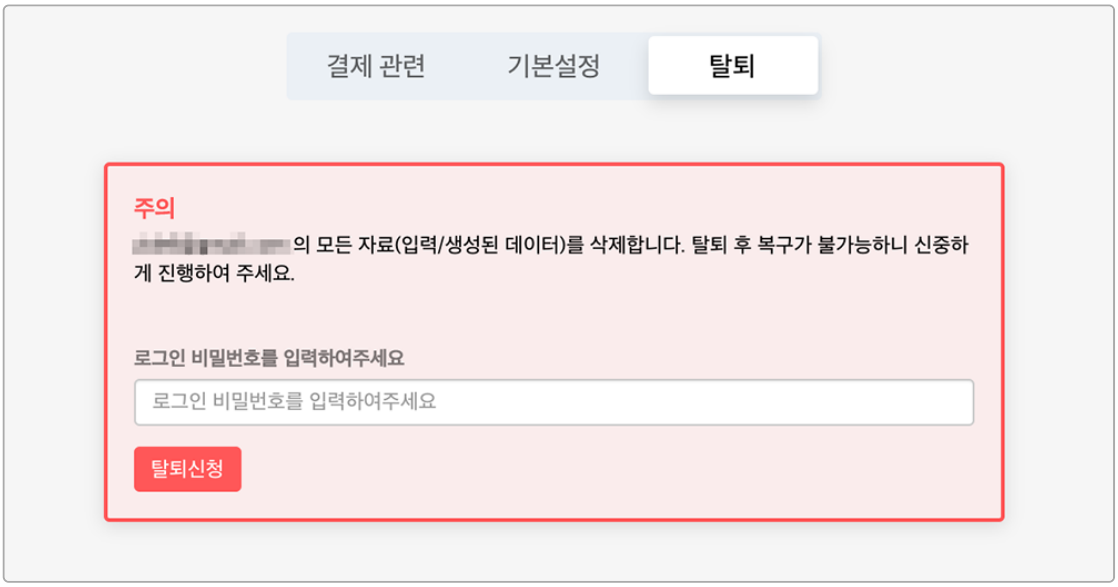
https://tyle.io/account/personal 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계정에 관한 설정 페이지

현재 로그인 계정에 관한 로그인 정보 및 뉴스레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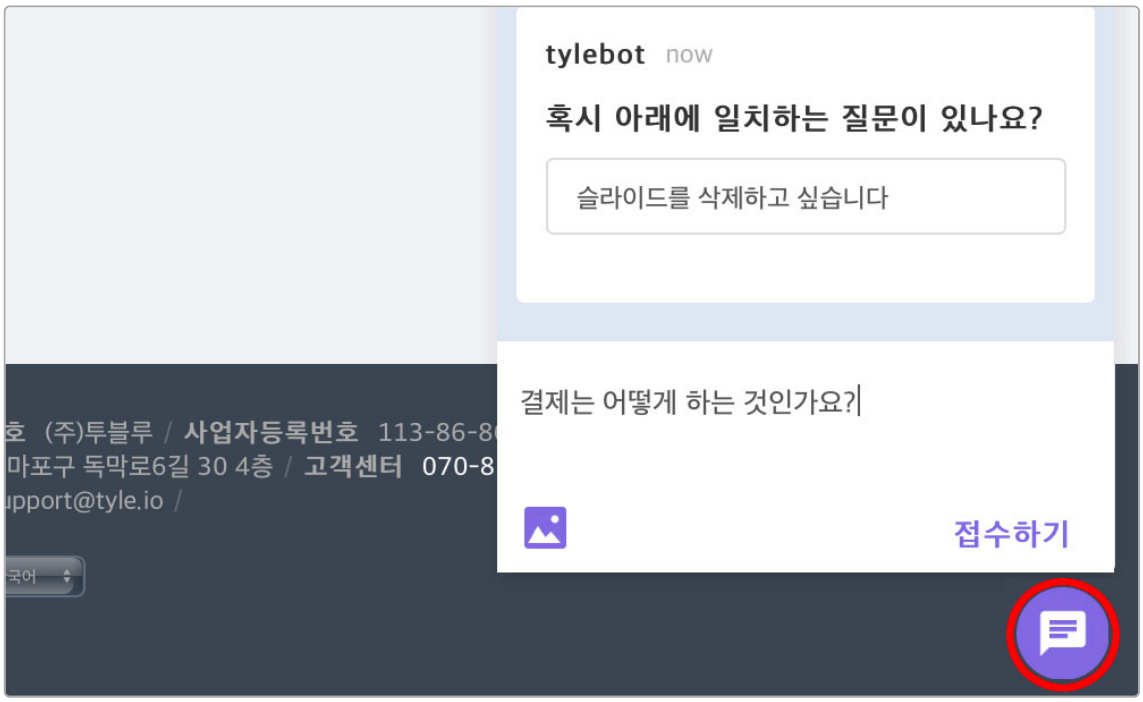
③ 탈퇴



▲ 타일과의 인연을 종료하는 슬픈 페이지

타일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페이지에서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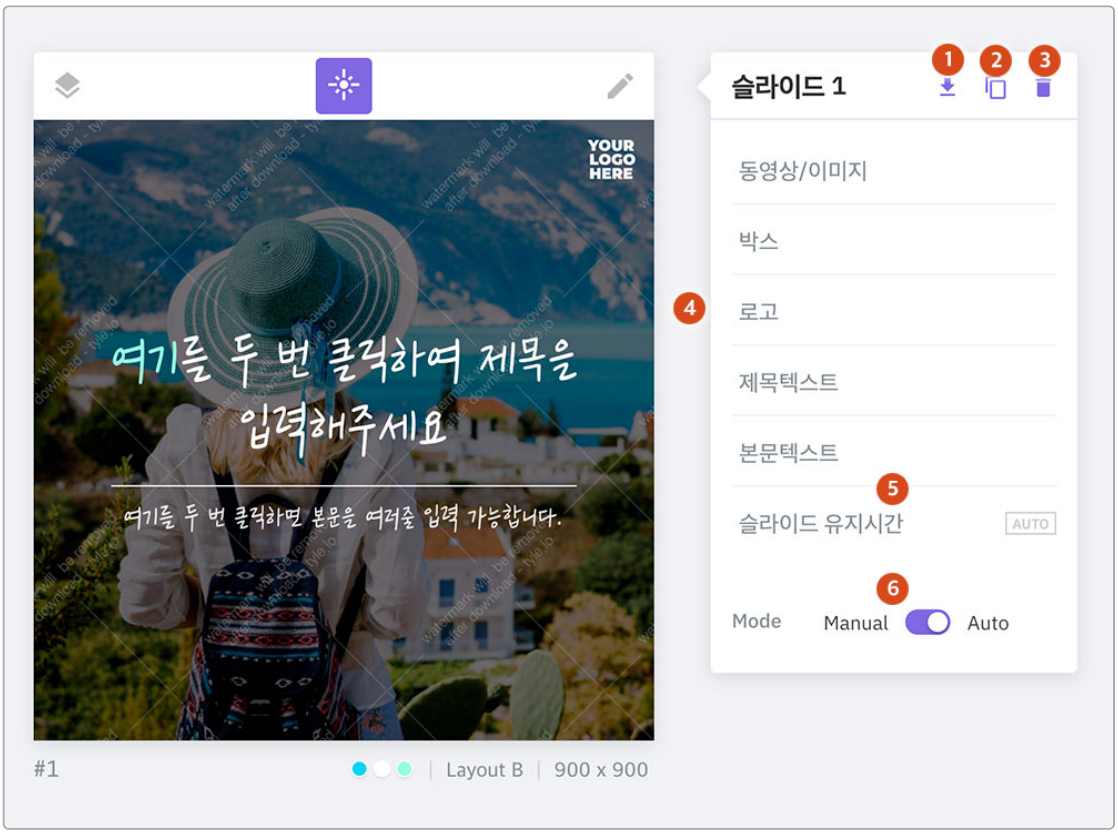
▲ 타일 어디에나 있는 고객센터 버튼

이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영업시간 내) 타일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객센터는 타일로부터의 공지사항이나 완료된 동영상 결과물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 요소들

[메시지 전달이 최우선이다]에도 소개되었듯이 타일은 메시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디자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컨텐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 보다 멋진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컨테이너 요소



▲ 슬라이드와 속성창

슬라이드 컨테이너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5가지 컨텐츠 요소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요소 선택기]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거나, 혹은 [속성창 호출]을 통해서도 속성창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속성창에서의 세부적인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별 다운로드

현재 슬라이드 하나만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보통은 [이미지 및 영상 추출]을 통하여 추출하는데, 굳이 전체를 받고 압축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슬라이드의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현재의 슬라이드만 이미지로 내려받기

다운로드 받는 위치는 [다운받은 파일은 어디에 있나요?]을 참고하세요.

② 슬라이드 복제

현재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바로 아래에 추가합니다. 단순히 현재 슬라이드 바로 아래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정상적인 추가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되므로, 이렇게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하는 것보다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 이 슬라이드를 복제하여 바로 아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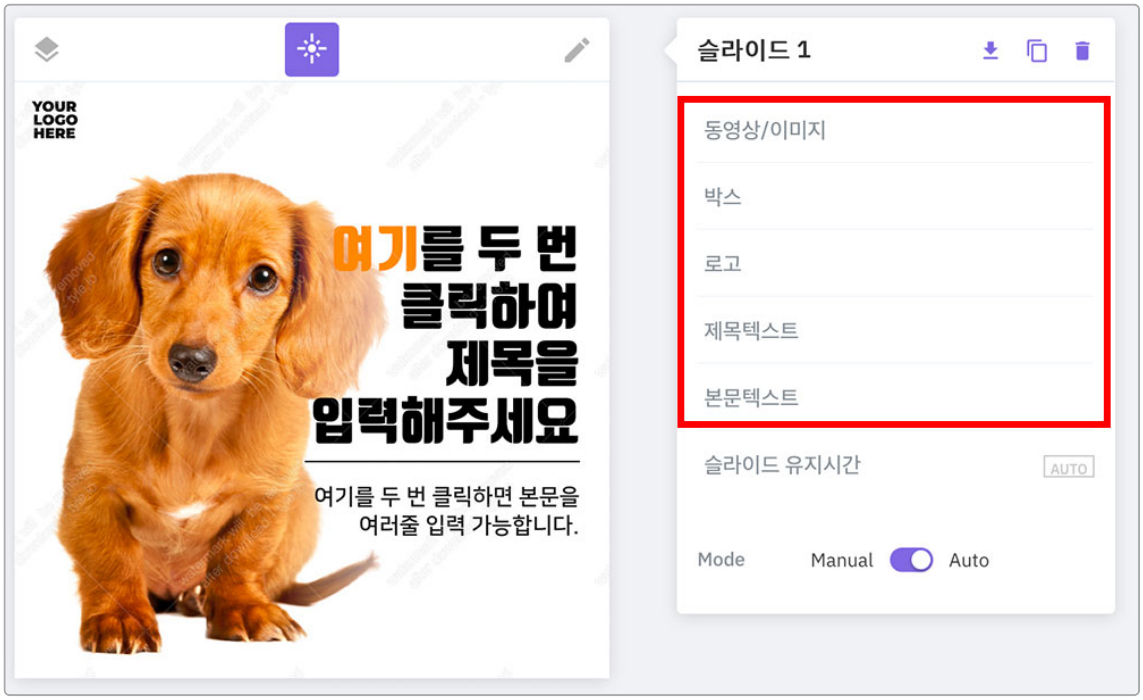
③ 슬라이드 삭제

선택한 슬라이드를 삭제합니다

▲ 휴지통 버튼을 눌러 삭제

④ 각 요소 선택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속성창에서는, 세부 요소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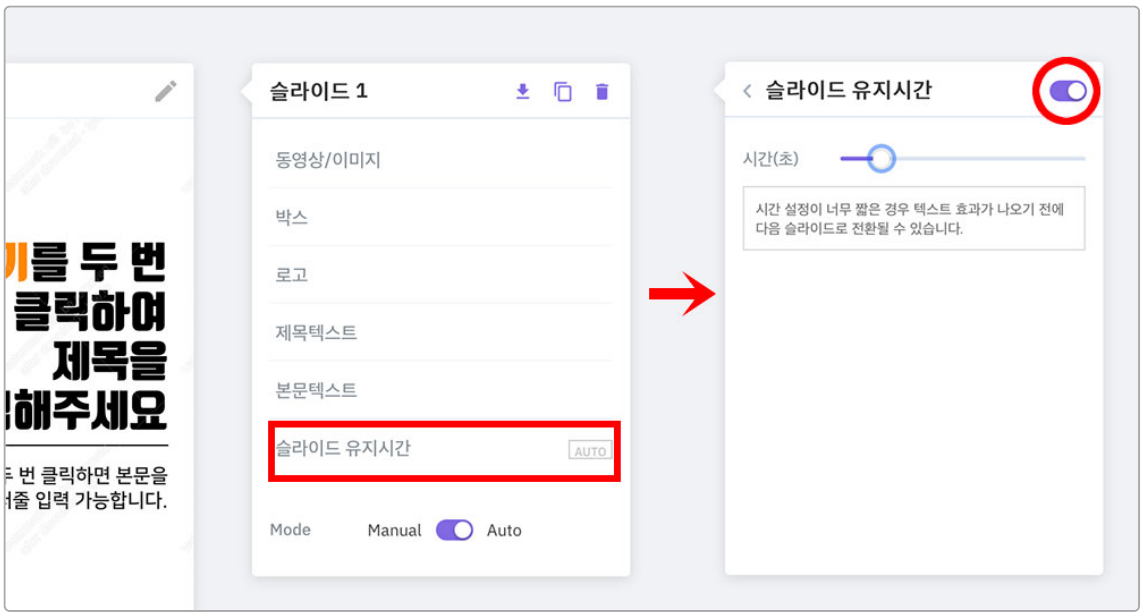


▲ 이 슬라이드 속성창에서도 각 컨텐츠 요소 클릭 가능

⑤ 슬라이드 유지시간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안에 담겨있는 텍스트가 눈으로 읽히는 시간동안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슬라이드별 시간을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나왔을 때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전환됩니다.

하지만 어떤 슬라이드는 내용이 없어도 오래 유지해야하고, 어떤 슬라이드는 텍스트가 있어도 빨리 전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최대 30초까지 임의로 해당 슬라이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에서 이 슬라이드에 머무르는 시간 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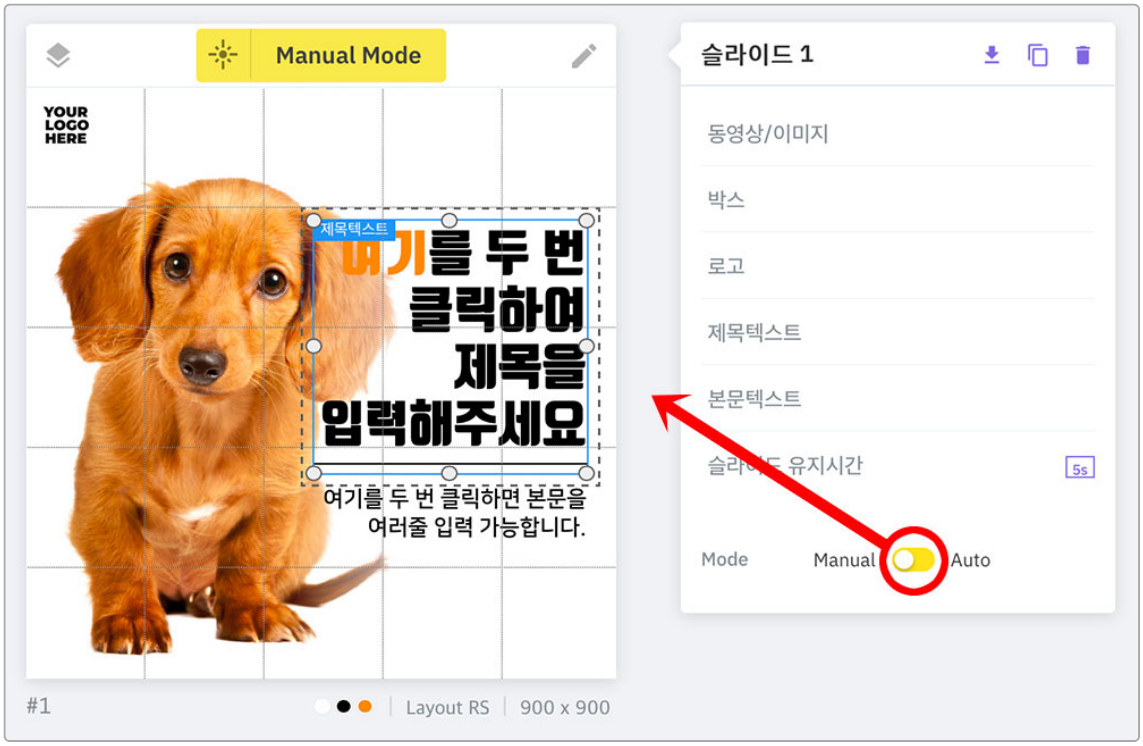
이렇게 강제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재생되던 나레이션이 겹치거나,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의 슬라이드에 한정해서 사용하셔야합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재생 최대 시간인 30초까지 늘리면, 전체 재생시간이 추출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제약사항은 [영상으로 추출하는 경우, 제한시간이 있나요?]을 참고하세요.

⑥ 모드 조절

사용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의 시각적 부분을 타일의 디자인 엔진이 통제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디자인 엔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모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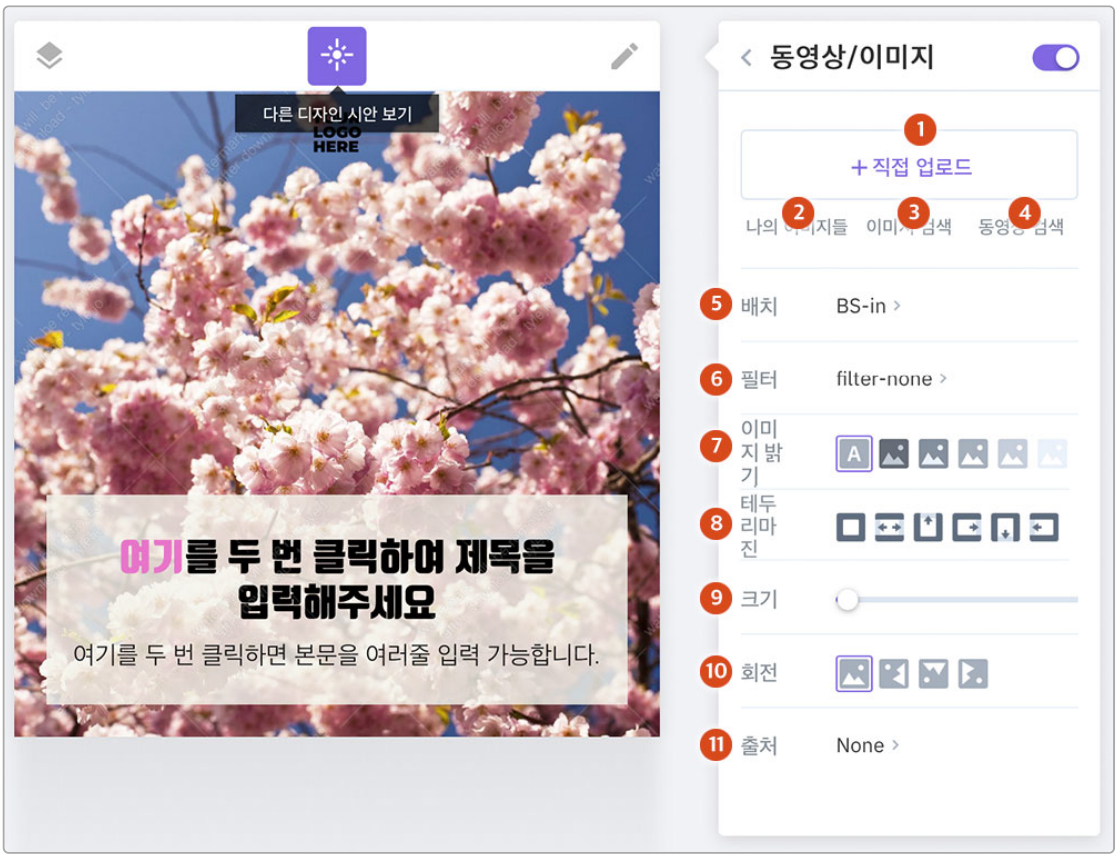
수동모드로 전환하면, 슬라이드 상단의 [디자인 변경]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화면상에 9개의 영역 구분선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소의 크기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디자인 엔진은 연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디자인 엔진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 수동모드를 껐다 켰다 전환하기

수동모드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그림판 수준으로 커스텀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요소 일부를 숨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배경 요소



▲ 배경의 속성창

배경은 컨텐츠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배경도 텍스트와 함께 메시지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에 걸맞는 배경을 보여줄 때 시청자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접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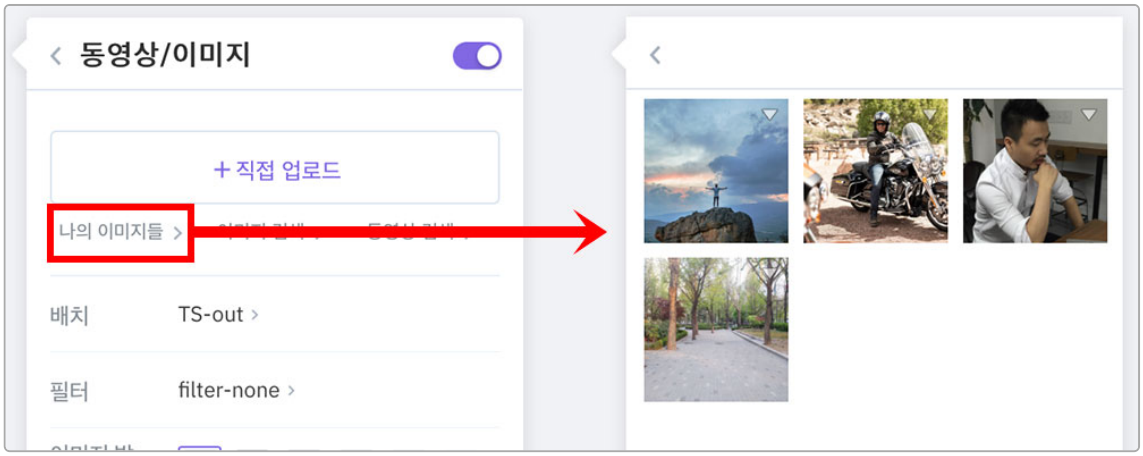
사용자의 컴퓨터(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비주얼을 이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가능한 비주얼 포맷은 [업로드 가능한 포맷은 무엇인가요?]을 참고하십시오.

▲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동영상을 직접 업로드

직접 업로드한 비주얼은 타일에서 저작권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업로드한 자료의 사용허가 권리는 사용자가 직접 보증하시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타일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 검색] 혹은 [동영상 검색]를 활용하십시오.

② 나의 이미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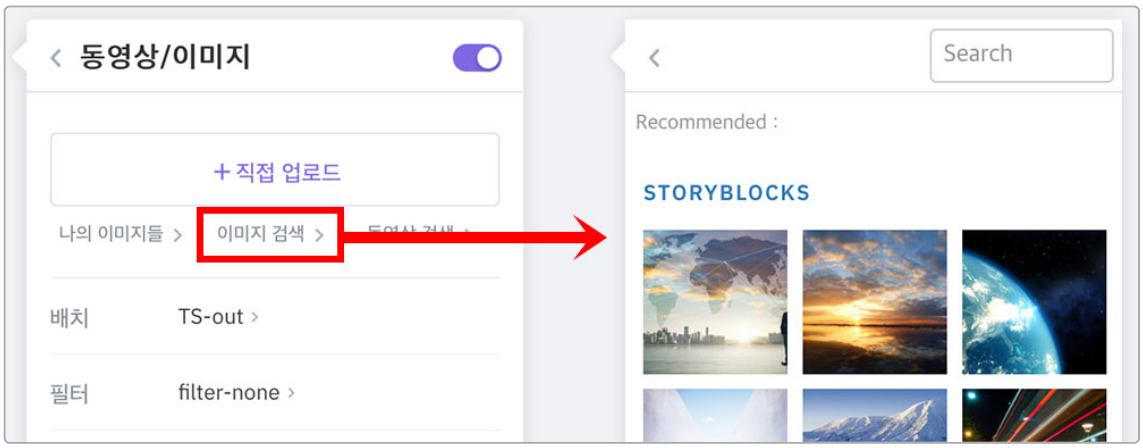
[직접업로드]에서 업로드한 기존의 리소스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의 드롭다운(▼)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업로드했던 나의 이미지/동영상들 불러오기

③ 이미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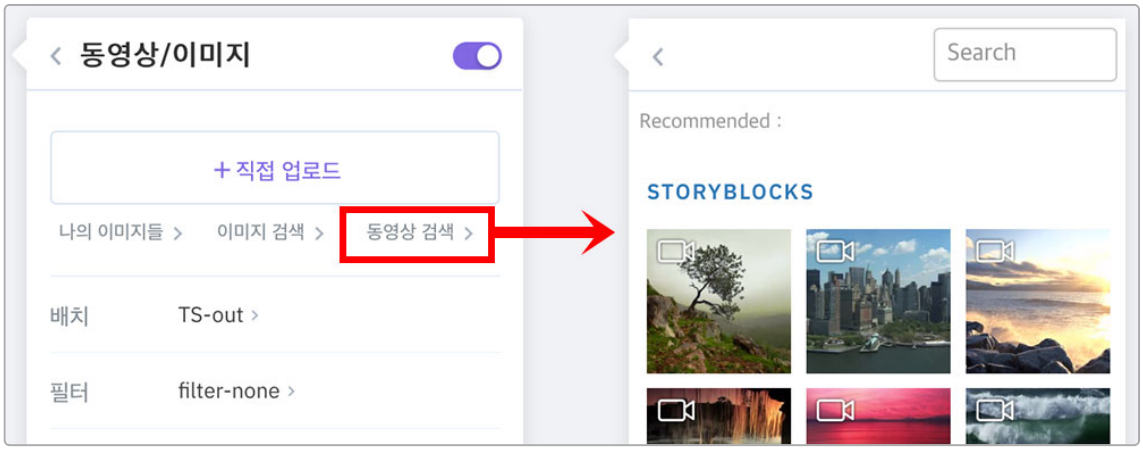
타일에서 직접 제휴하여 상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톡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00만 개 이상의 제휴 이미지 검색

④ 동영상 검색

타일에서 직접 제휴하여 상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톡동영상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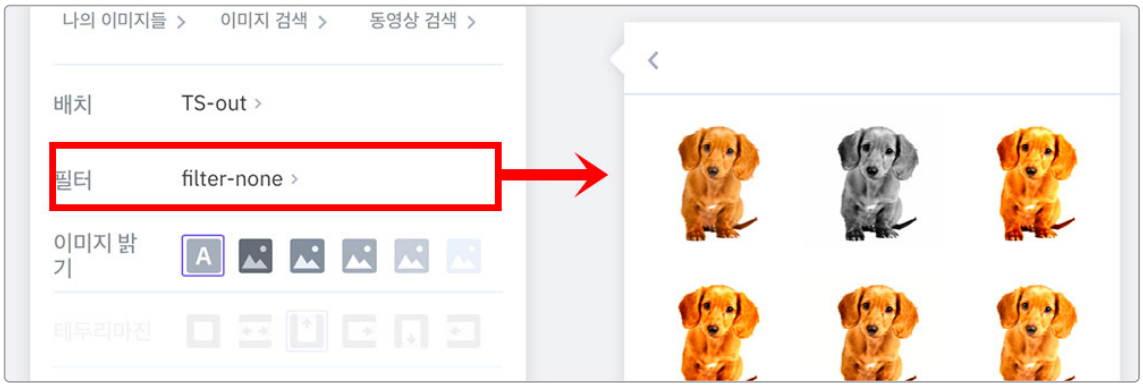
▲ 30만개 이상의 제휴 동영상 검색

⑤ 배치

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치]를 참고해주십시오.

⑥ 필터

필터는 단순히 분위기만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 다양한 효과를 주는 필터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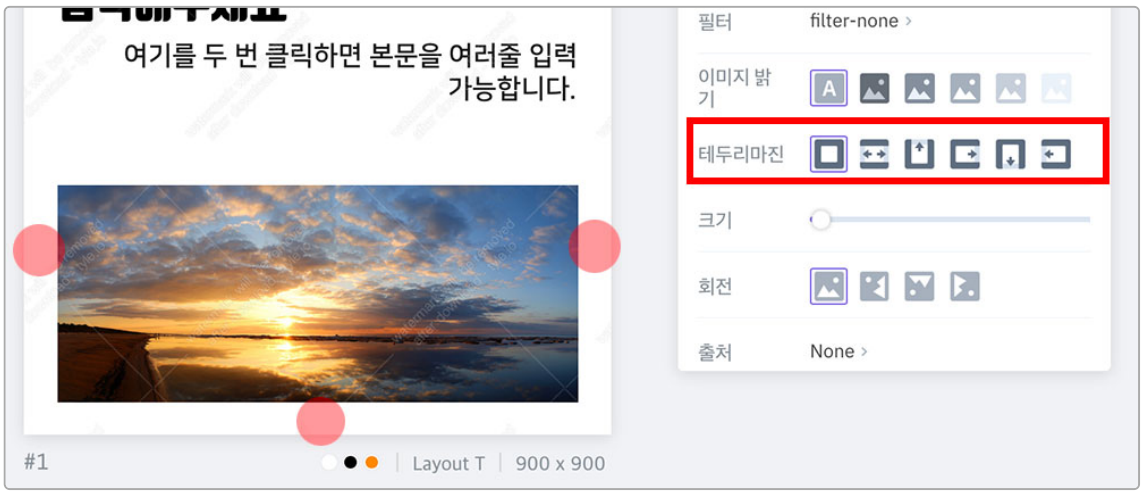
⑦ 이미지 밝기

배경의 밝기를 변경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위해서 어둡게(혹은 밝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경우 조절

⑧ 테두리마진

[배치]에 따라 변경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배경 주위를 감싸고 있는 여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 특정 배치하에서, 배경과 슬라이드 외각의 간격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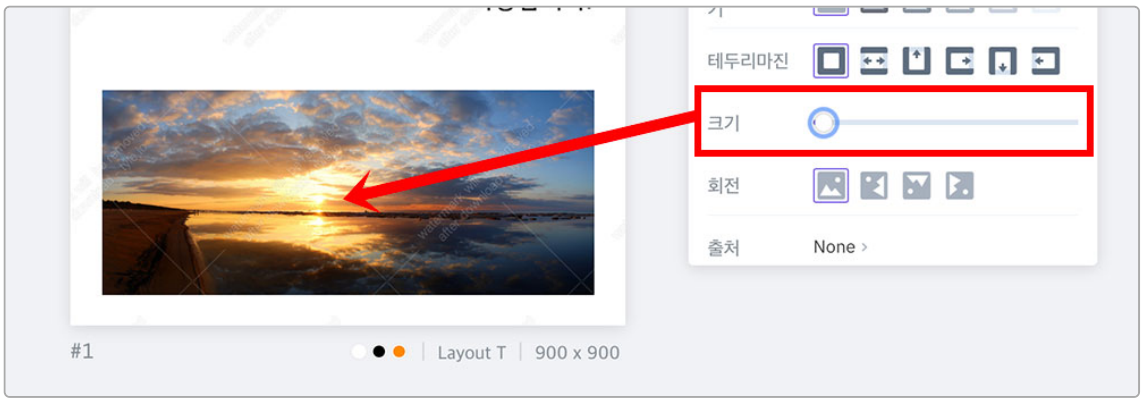
현재 슬라이드에 적용된 [배치]에 따라 비활성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⑨ 크기

배경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테두리의 크기는 [디자인은 반응형이어야한다]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의 크기는 내부에 보이는 크기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확대하면 전체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 채 내부 크기만 확대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대된 안에 있는 배경을 드래그하면 위치가 약간 조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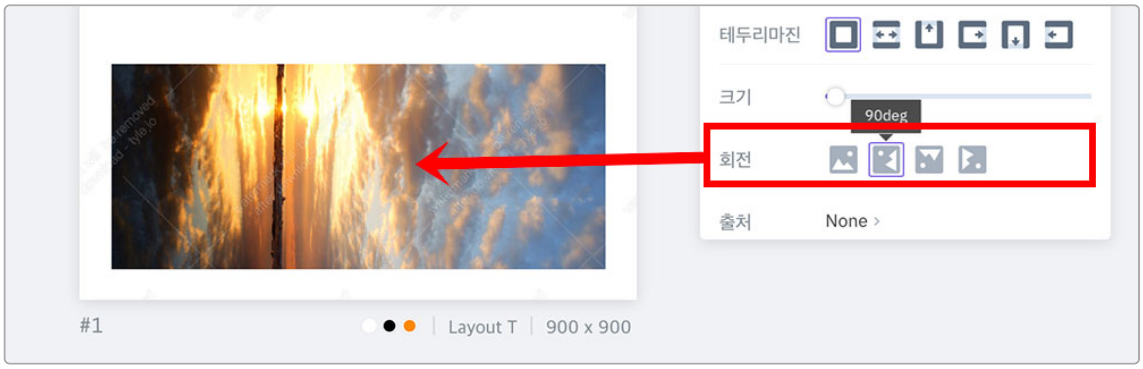
타일은 화면상의 모든 요소가 고정이 아니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넣은 배경과 테두리의 크기를 딱 맞추어서 잘리지 않게 배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모드 조절]을 참고해 주세요.



▲ 크기 조절시 외각은 유지되고 안의 내용물의 크기가 변경됨

⑩ 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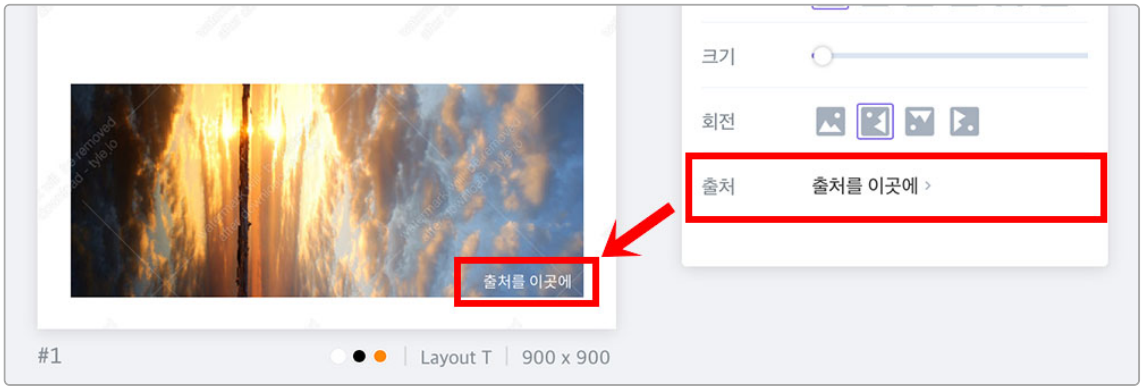
배경을 회전시킵니다. 가끔씩 폰에서 촬영한 것을 직접업로드 했을 때 회전값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 배경 내용물을 회전

⑪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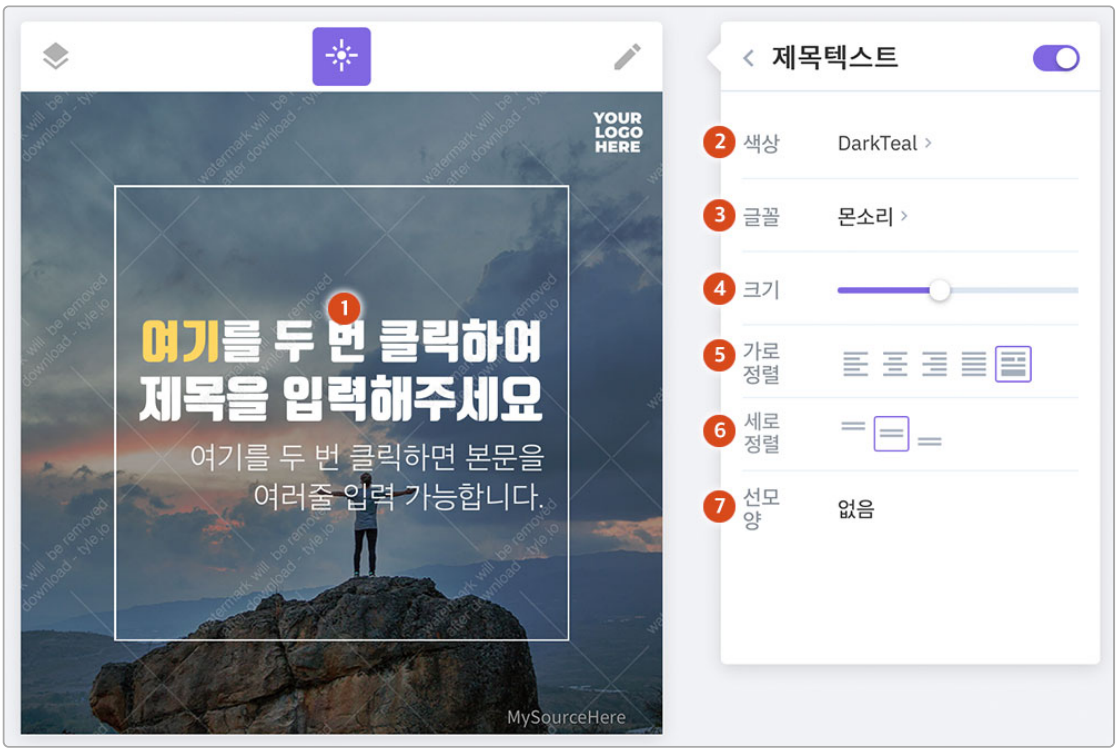
[직접업로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에 따라 해당 자료에 관한 출처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텍스트와 별개로 배경에 한정해서 조그만 출처를 지정하는데 쓰입니다. 출처 기입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비워두거나, 혹은 단순히 조그만 보조 정보처럼 기입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기입하면 배경 우측 하단에 나타남

출처란은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짧은 글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원하는 모든 출처를 기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략하게 줄여서 기입하여 주십시오.

텍스트 요소



▲ 텍스트의 속성창

텍스트는 보통 비주얼 위에 나타나서 명시적으로 메시지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배경과 함께 메시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바일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텍스트가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한 덩어리의 텍스트만 있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를 소화하기 위하여 타일에서는 텍스트를 '제목텍스트'와 '본문텍스트' 두 덩어리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① 내용

텍스트의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텍스트 요소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텍스트는 아무런 꾸밈 요소를 넣지 않고 그냥 타이핑만을 제안 드리지만, 일부 단어나 글자에 꾸밈 효과를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 글자를 선택한 후에 바로 위 툴바의 효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상에서는 특수기호가 추가되는 모습이지만 완료를 눌러서 위지윅 상태로 전환하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텍스트의 글자 자체는 바로 수정 가능

텍스트 효과 넣기

위에서 추가된 특수기호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타일에서는 아래와 같은 마크다운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임의로 직접 아래의 마크다운 기호를 써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기호	효과	예시	결과
|	하이라이트	`텍스트`	텍스트
**	굵게	**텍스트**	**텍스트**

기호	효과	예시	결과
`	음영	`텍스트`	텍스트
``	반전	``텍스트``	텍스트
||	하이라이트 그림자	||텍스트||	텍스트
@@	그림자	@@텍스트@@	텍스트
&&	3D 그림자	&&텍스트&&	텍스트
==	네온	==텍스트==	텍스트
\\	외곽선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의 양에 제한은 없지만, 주 소비매체인 모바일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작거나 많은 텍스트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타일에서 추천하는 적절량은 제목텍스트 한줄, 본문텍스트 두세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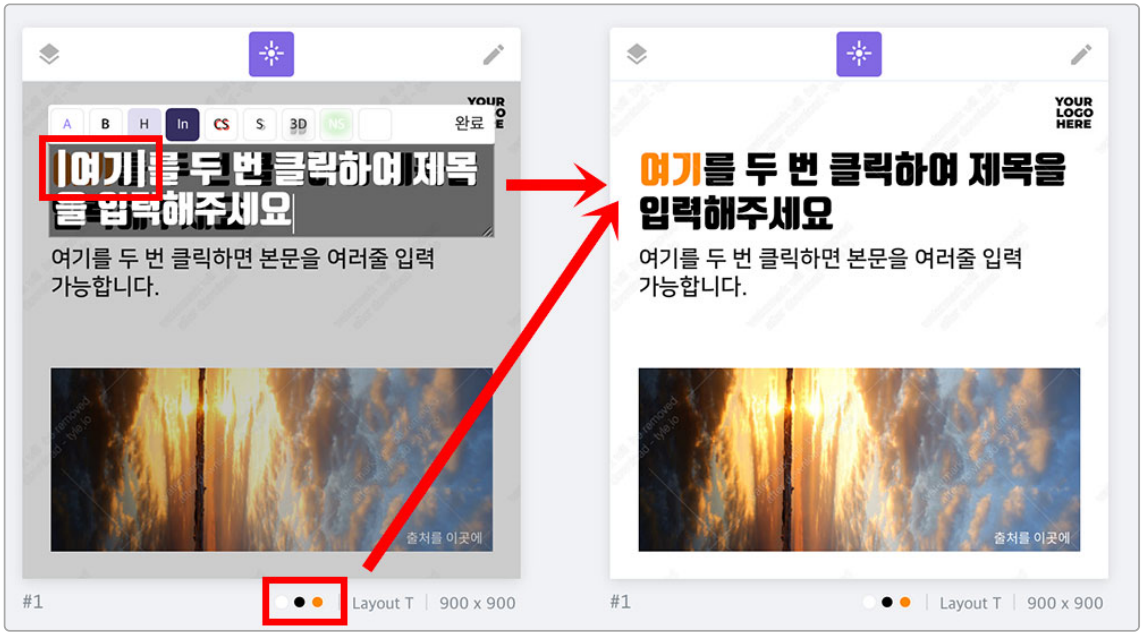
마크다운을 여러번 지정하여 뭔가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크다운 특수기호를 전부 지우고 다시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② 색상

타일에서의 텍스트 색상은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보통의 다른 서비스라면 적용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상을 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일관성 없는 색들이 슬라이드에 들어가므로 결과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에서는 이미 어울리는 [색상세트]들을 만들어두고 있고, 이 [색상세트]을 교체함으로써 색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색상세트]마다 강조색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강조색은 텍스트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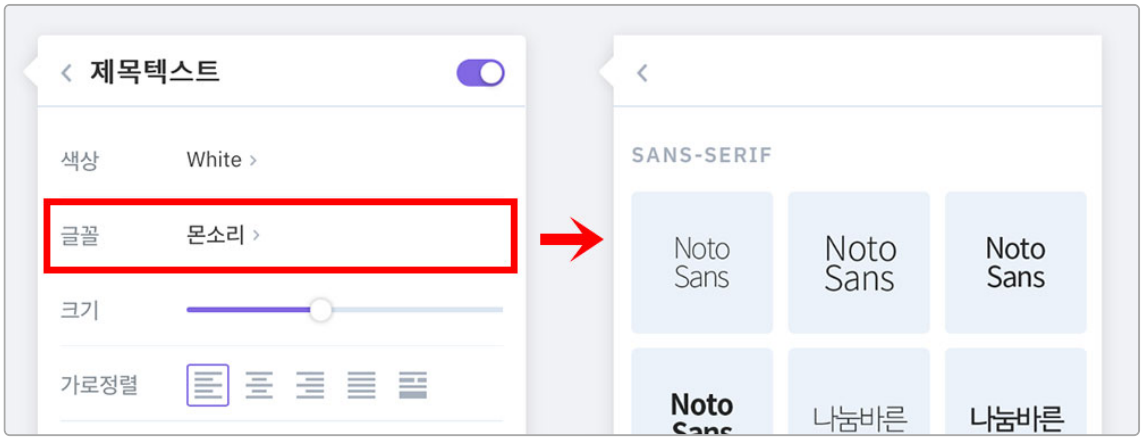
텍스트 효과를 지정한 곳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내용의 특수기호와 색상 조합을 통해 글씨색 변경

③ 글꼴

텍스트가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했을 때 텍스트의 글꼴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타일에서는 제휴된 폰트업체를 통해 상용 폰트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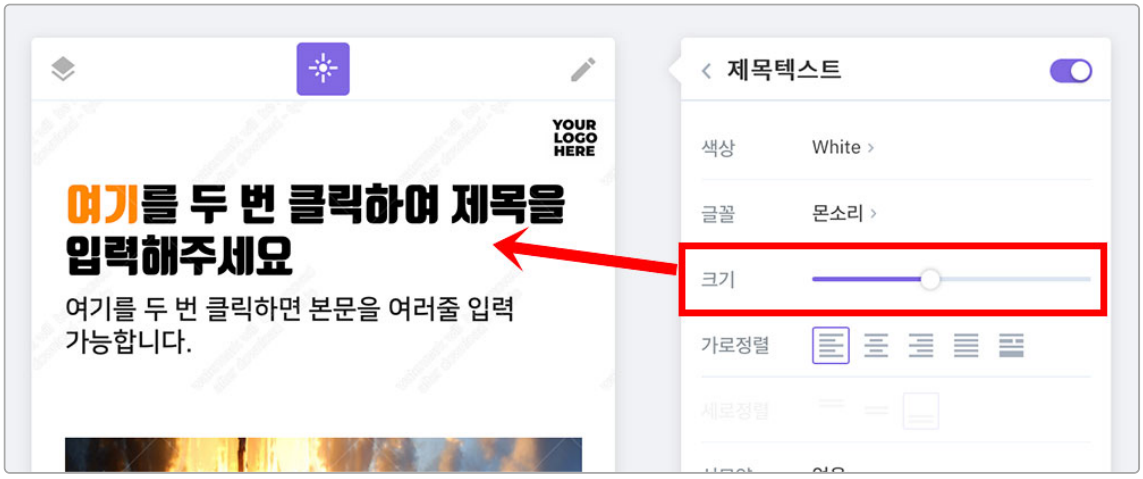


▲ 40여 종 이상의 상용 폰트 적용

타일에서 제공하는 모든 라이센스는 타일의 정상적 사용에 기반할 때에만 보증합니다. 만일 타일의 결과물을 임의로 편집 및 변형하거나 외부 리소스와 결합했을 때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④ 크기

텍스트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디자인은 반응형이어야한다]에 따라 텍스트의 크기는 픽셀이나 인치 등 절댓값이 아닌 슬라이드상에서의 상대 크기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차후에 슬라이드의 크기를 변경하여도 최대한 지정된 글씨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조절

[가로 정렬]에서 stretch로 지정된 경우에는 크기가 무시됩니다. 이 stretch는 적당히 박스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는 정렬방식이기 때문입니다.

⑤ 가로 정렬

텍스트의 가로 정렬을 변경합니다. 왼쪽/가운데/우측/양쪽배분/늘리기가 있습니다. 양쪽배분은 텍스트의 양 끝에 맞추어서 강제로 모든 글자 간격을 늘려서 조절합니다. 늘리기는 텍스트의 양 끝에 맞추어서 강제

로 줄의 크기를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 가로 정렬방식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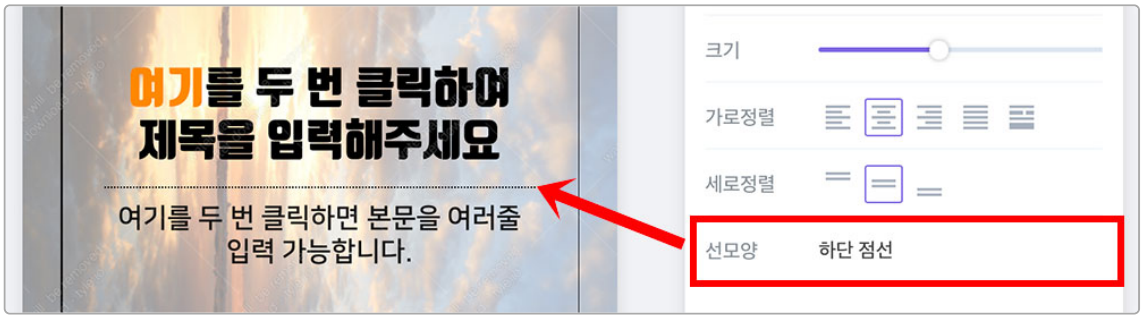
⑥ 세로 정렬

텍스트의 세로 정렬을 변경합니다.

▲ 세로 정렬방식 조절

⑦ 선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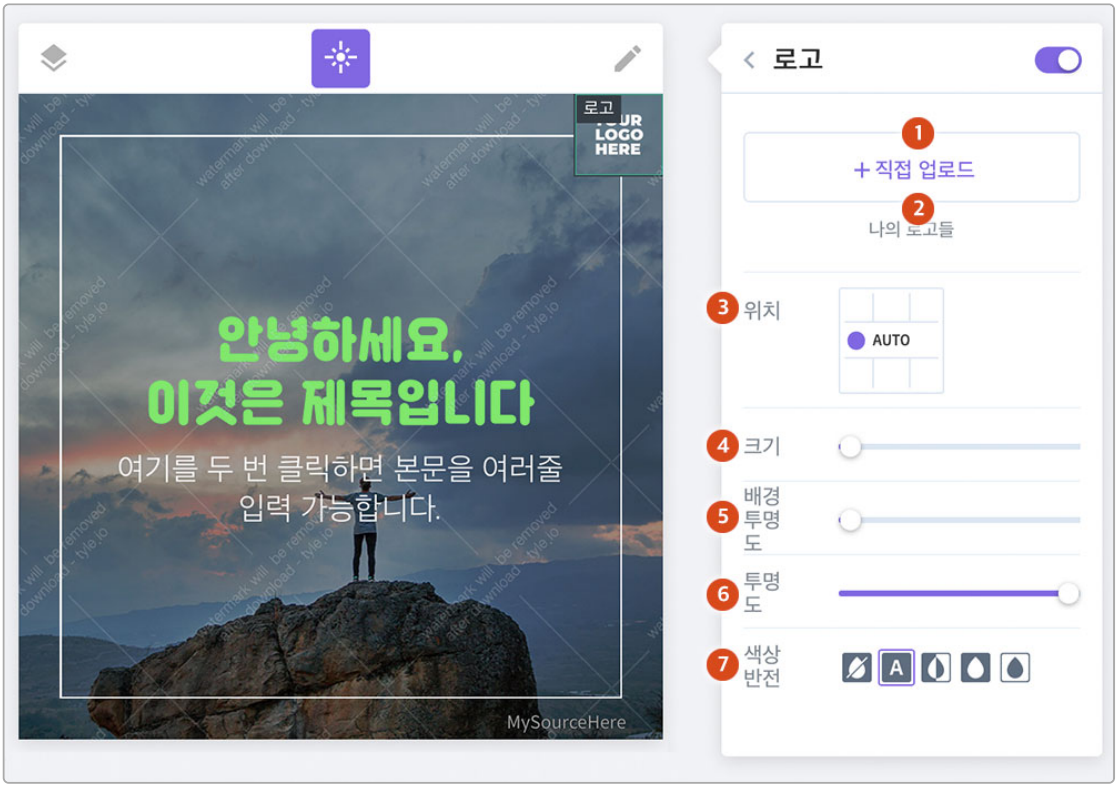
보통은 박스의 선모양을 주로 사용하지만, 간혹 텍스트 자체에 선모양을 지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텍스트와 본문텍스트 사이에 선 하나를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선이 나타나는 조건이라면 선모양을 조절 가능

옵션을 여러번 클릭할 때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몇 가지 옵션들이 돌아가면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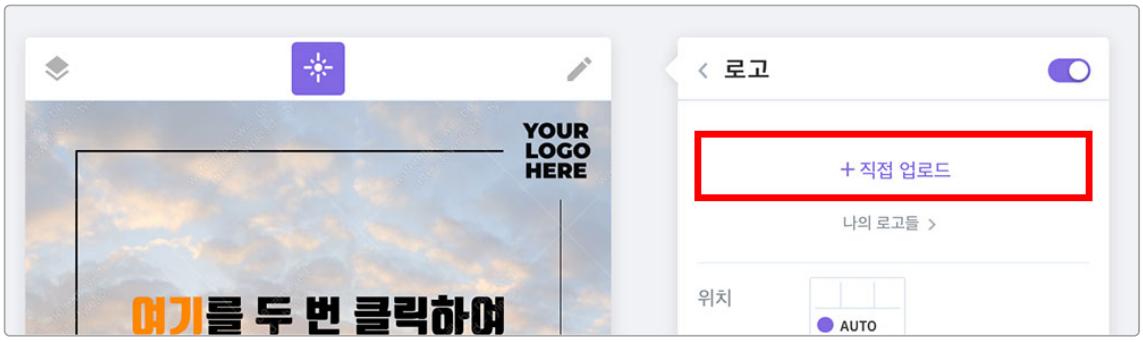


▲ 로고의 속성창

로고는 컨텐츠의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배경/텍스트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각 슬라이드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카드마다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지 전달이 최우선이다]에 따라 다른 요소보다 후순위로 배치되고 하나만 배치되는데, 보통 왼쪽위나 오른쪽 위 구석에 조용히 위치합니다.

① 직접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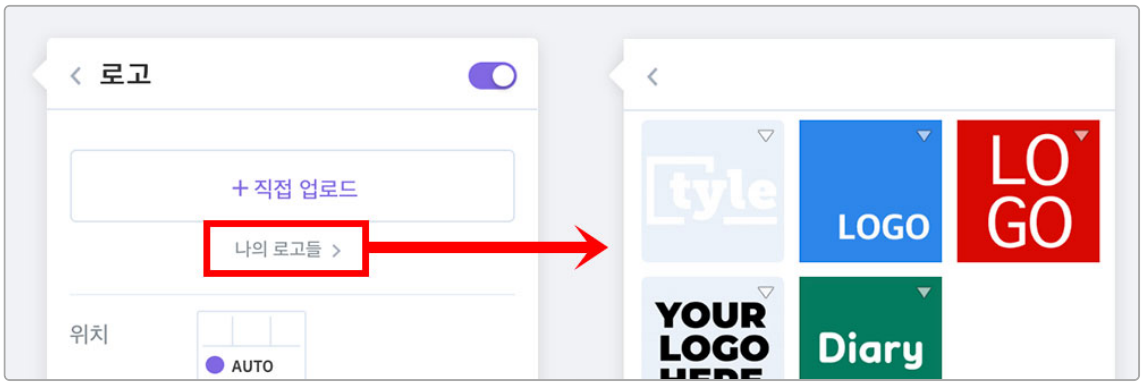
사용자의 컴퓨터(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로고를 이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가능한 비주얼 포맷은 [업로드 가능한 포맷은 무엇인가요?]을 참고하십시오.



▲ 내 컴퓨터에 있는 로고를 직접 업로드

② 나의 로고들

[직접 업로드]에서 업로드한 기존의 리소스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의 드롭다운(▼)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업로드했던 나의 로고들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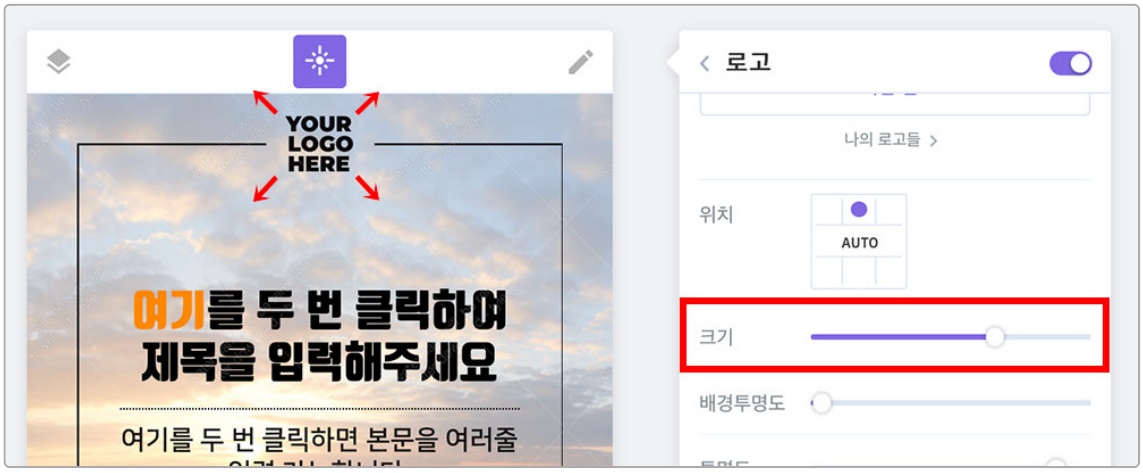
③ 위치

로고의 위치를 수동으로 지정합니다. 중앙에 있는 AUTO로 설정하면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미지 및 텍스트)들 을 피해서 알아서 남는 공간에 배치됩니다.

▲ 로고의 위치를 조정

④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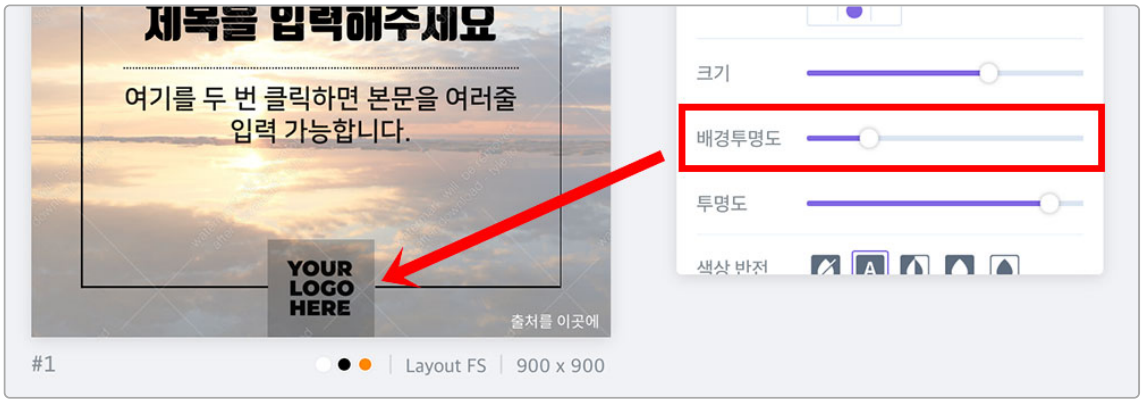
로고의 크기를 4단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가지 단계로 조절 가능한 크기

⑤ 배경 투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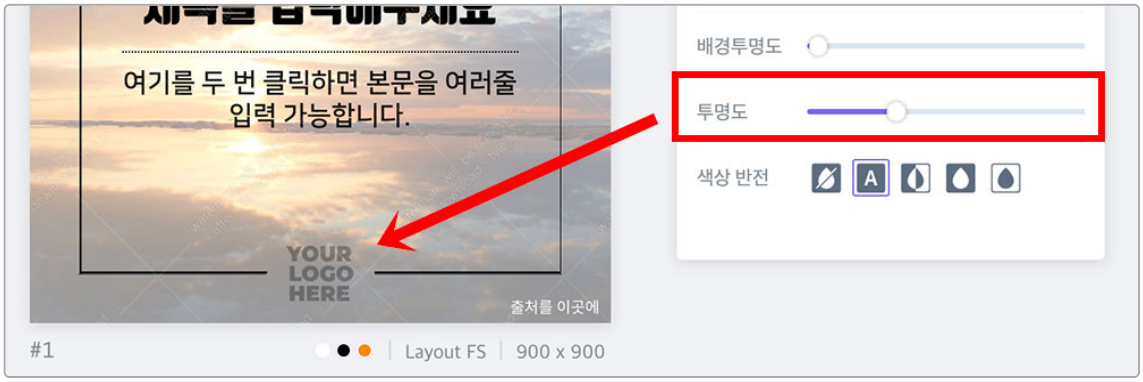
배경이 투명한 PNG 포맷의 로고라면, 로고 가독성(?)을 위하여 비어있는 공간을 모노톤의 색으로 채워줍니다.



▲ 투명한 부분의 배경 조정

⑥ 투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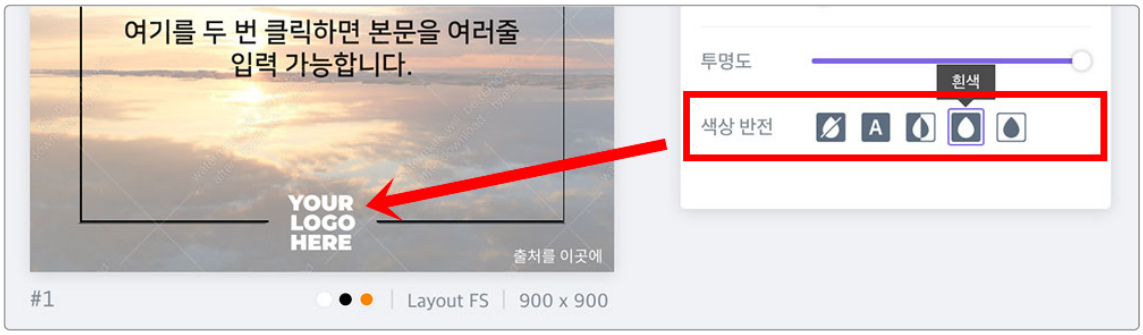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특정 슬라이드에서 로고가 너무 튀어서 메시지를 방해한다면, 투명도를 높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로고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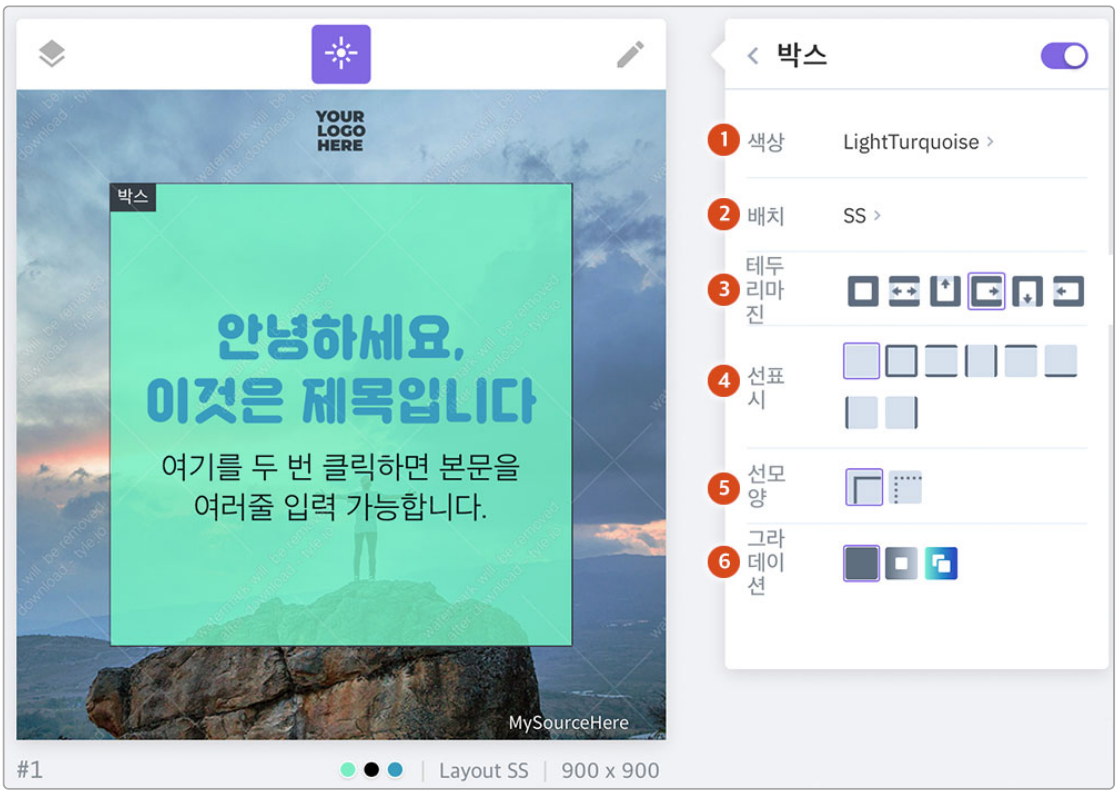
⑦ 색상 반전

로고가 단색일 경우, 우연히 배경과 비슷하여 로고가 묻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로고가 눈에 띌 수 있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색 로고의 경우 눈에 띄도록 조절

박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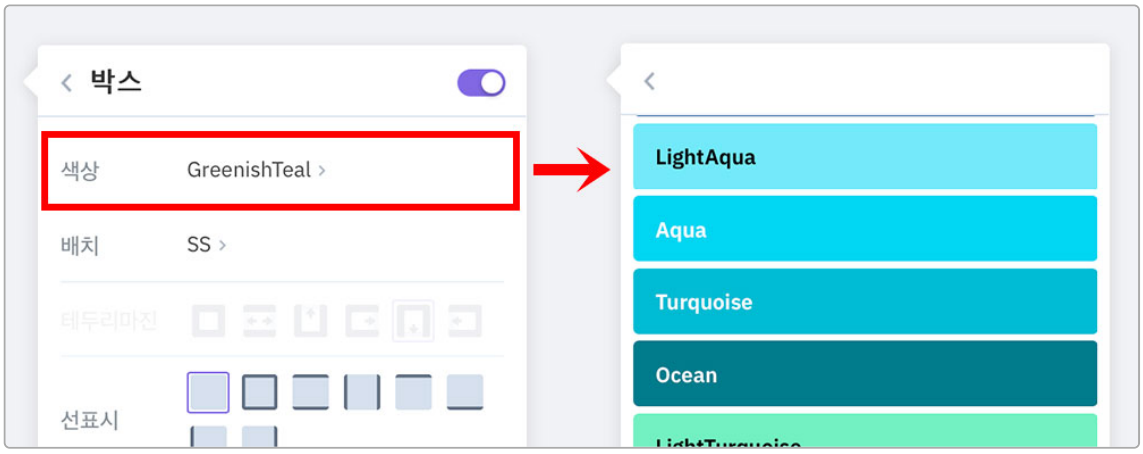


▲ 박스의 속성창

박스는 보통 텍스트와 비주얼사이에 위치하여 텍스트의 가독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배경색을 가짐으로써 약간의 꾸밈 역할도 합니다.

①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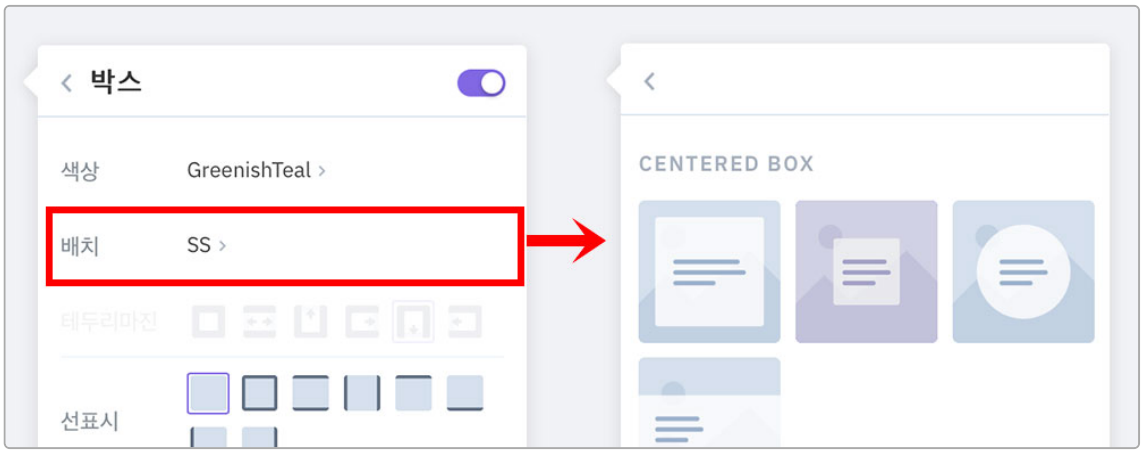
박스의 색상은 [색상세트]에 기반해서 나타납니다. 자세한 것은 [색상세트]을 참고하십시오.



▲ 컬러 조합의 변경을 통해 박스 색상 조절

②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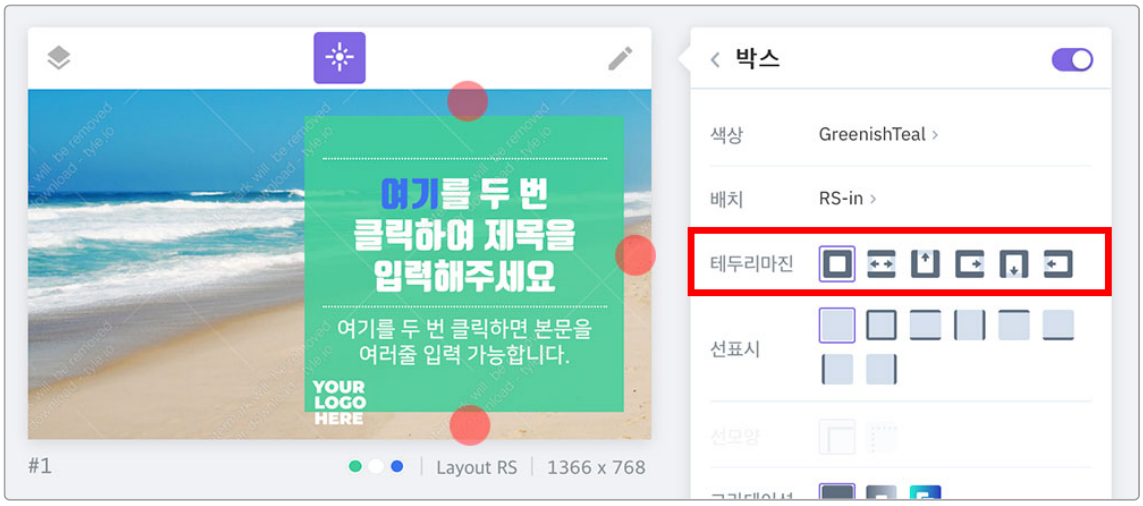
박스의 크기는 배치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치]를 참고해주십시오. 만약 박스의 모양을 임의대로 조절하고자 하신다면 [모드 조절]을 참고해주십시오.



▲ 배치의 변경을 통해 박스 모양 조절

③ 테두리 마진

박스 주위를 감싸고 있는 여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애매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십시오.



▲ 특정 배치하에서, 박스와 슬라이드 외각의 간격 조절

[배치]에 따라 이 기능은 비활성화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④ 선 표시

기본적으로 박스는 배경색 혹은 외각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되는 선 표시 여부에 따라 배경색이 투명해지거나 표시되거나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을 나타낼지, 선을 없애고 색으로 채울지 결정

⑤ 선 모양

[선 표시]을 활성화한 경우 선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 선이 나타나는 조건이라면 선모양을 조절 가능

⑥ 그라데이션

박스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가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내려고 할 때 이 옵션을 적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기준색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색상세트]의 설정에 기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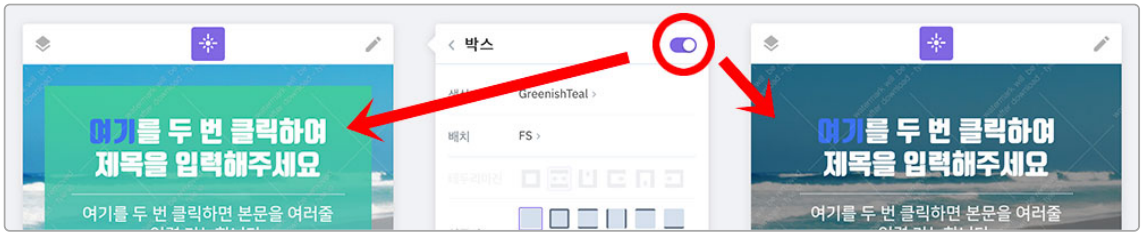
▲ 조금 더 있어 보이게하는 그라데이션

공통옵션

메시지 구성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숨김/보임

각 속성의 우측 상단에 해당 요소를 보이게 할 것인지, 숨길 것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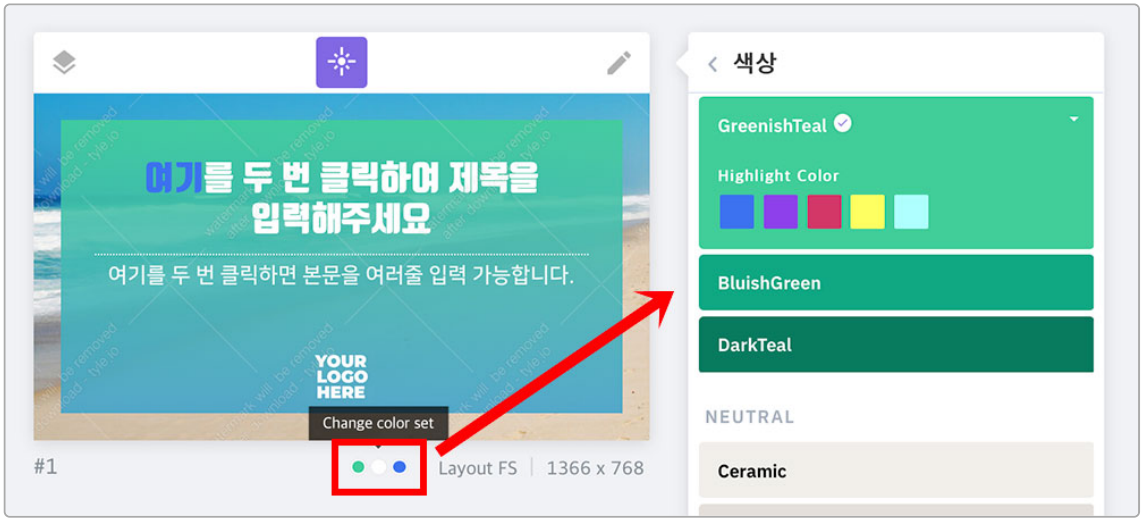
▲ 각 요소는 보이거나 가릴도록 있음

스위치를 가려서 더 이상 슬라이드에서 요소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요소 선택기] 혹은 [속성창 호출]을 이용하십시오.

색상세트

타일에서는 색상을 개별적 요인과 텍스트별로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텍스트의 색상은 가독성을 위해서 컬러풀한 색상보다는 모노톤을 사용하며, 두 가지 이상의 색이 한 슬라이드에 동시에 쓰였을 때 그 조합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이 쉬워야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색상 고민을 덜 하도록 미리 세트리스트를 만들어두었고,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하이라이트 컬러, 혹은 박스를 통한 분위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상 세트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각 슬라이드 하단에 색상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각 요소의 속성창에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미리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색상 조합들

색상 리스트에는 타일의 디자이너가 세심하게 선별한 수 십 개의 색상이 있으며, 각 세트마다 4~6개의 어울리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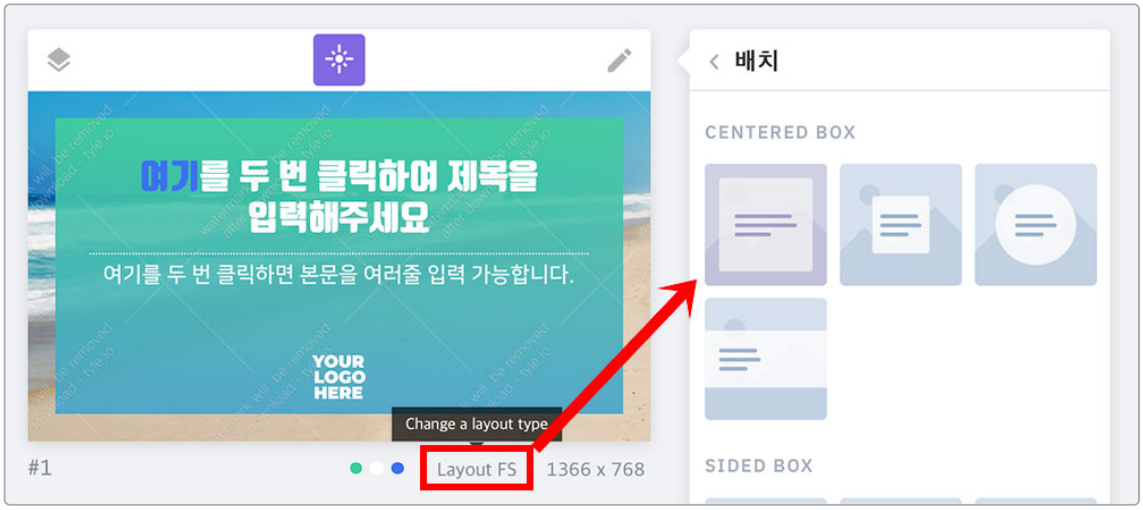
나만의 컬러 추가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조합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속성창을 누른 이후에, 속성창의 가장 상단에 `+ 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박스(바탕)의 색상과, 텍스트의 색상. 그리고 하이라이트 색상 7개까지를 하나의 조합 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

배치는 요소의 구조, 즉, 위치와 크기가 미리 지정된 것입니다. 배경에 이미지를 넣고 상단에 텍스트를 넣거나, 혹은 왼쪽엔 텍스트, 오른쪽엔 영상을 넣는 등의 구조를 말합니다. 카드내에 하나의 배치로만 처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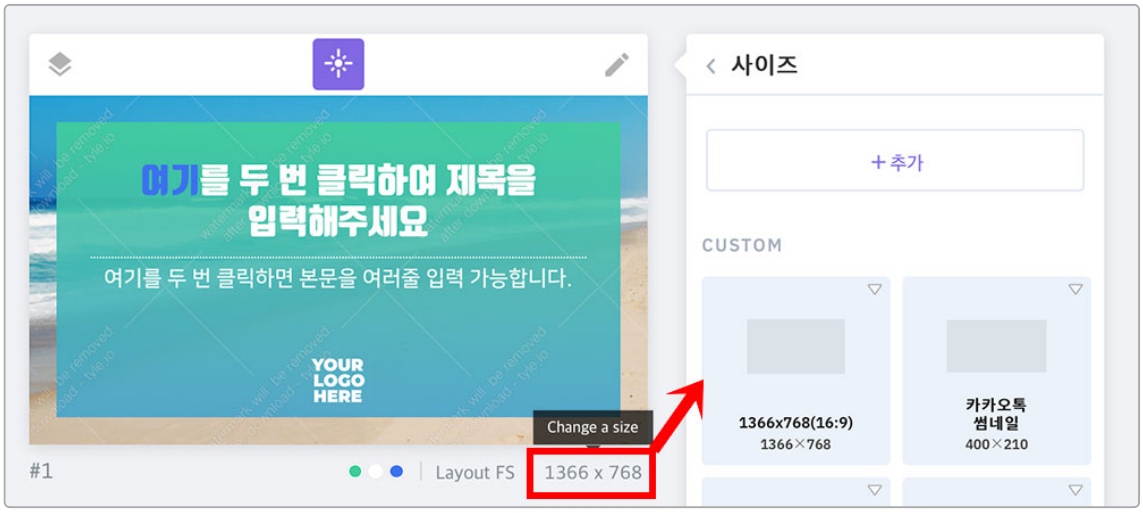
터 끝까지 가도 되고,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나 혹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정해서 다른 배치를 가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배치 리스트

사이즈

해당 슬라이드의 실제 픽셀 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이즈는 개별 슬라이드별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 슬라이드가 동일한 사이즈를 갖습니다. 각 슬라이드 하단에서 사이즈 표시를 클릭한 후 변경 가능합니다.



▲ 미리 지정된 사이즈 혹은 나만의 사이즈 모두 가능

사이즈 일괄 변경

상기하였듯이 영상이나 (혹은 일반적인 카드뉴스도) 슬라이드의 모든 크기가 동일한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사이즈를 둔 것은 만일의 경우 활용성을 염두에 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서 손쉽게 카드 전체의 사이즈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변경하는 방법

[템플릿]은 미리 정해진 속성들을 카드 전체에 적용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기능 > 템플릿을 참고하십시오.

하나 변경 후 일괄 적용하는 방법

한 슬라이드의 사이즈를 바꾸고나서 [슬라이드 스타일복제] 기능을 이용, 전/후 모든 슬라이드에 사이즈의 속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사이즈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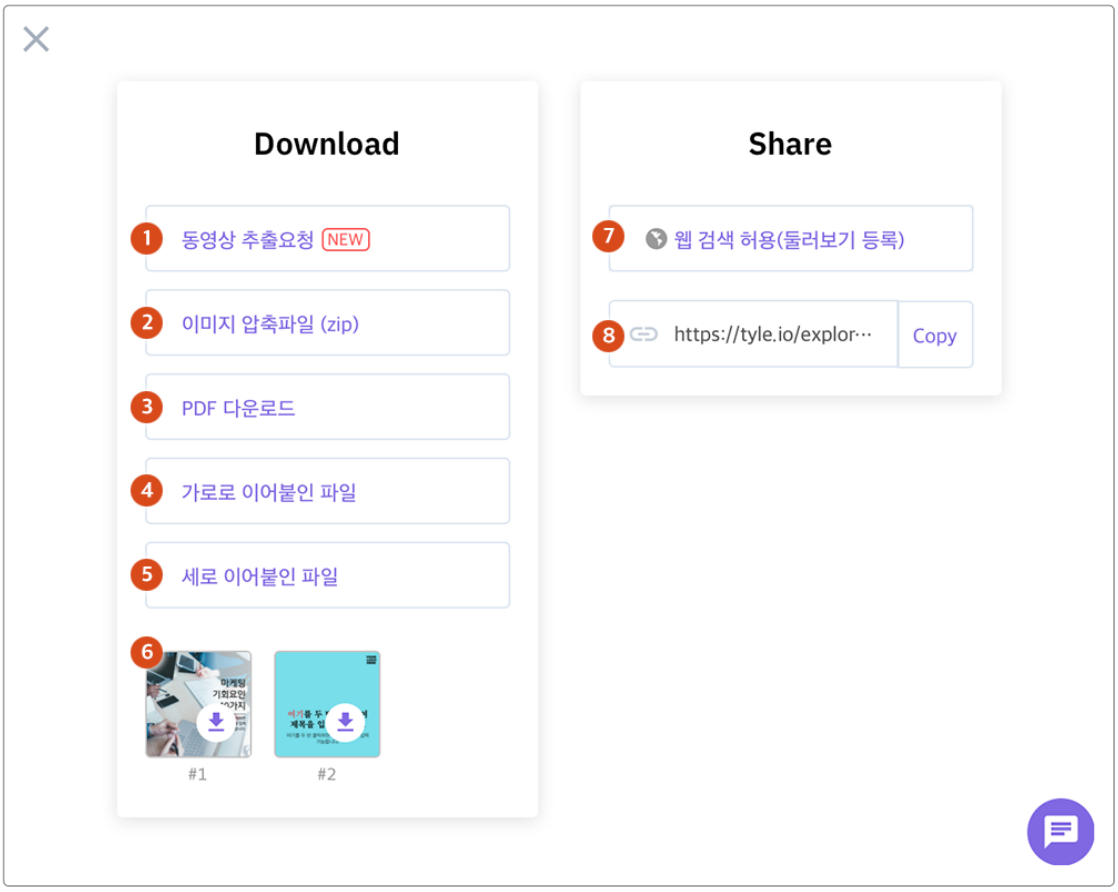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플랫폼의 사이즈는 타일에서 제공하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트정한 사이즈가 있다면,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속성창을 누른 이후에, 속성창의 가장 상단에 `+ 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추출 및 배포

작업한 결과물은 추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타일의 서버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추출을 통해서 재생가능한 이미지 혹은 동영상의 형태로 변환하는 최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추출하는 작업,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미지 및 영상 추출

내 컴퓨터(스마트폰)에 완료된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추출을 하여야 합니다. 추출은 상단의 '추출'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출 버튼을 누르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 화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영상 추출 요청

타일에서 카드뉴스나 동영상은 내용 작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카드뉴스로 배포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 추출 요청` 버튼을 누르십시오. 누르면 바로 서버에 추출 명령이 전해지고, 대략 5분 이내에 완료된 동영상이 우측 하단 [고객센터]에 전달됩니다.

② 이미지 압축파일(zip)

하나의 zip 파일 안에 각 슬라이드별 이미지를 담아서 내려받습니다.

③ PDF 다운로드

슬라이드의 사이즈에 페이지의 사이지를 맞추어서 구성된 PDF로 내려받습니다.

④ 가로로 이어붙인 파일

각 슬라이드별 이미지를 가로로 이어붙여 하나의 이미지로 만듭니다.

⑤ 세로로 이어붙인 파일

각 슬라이드별 이미지를 세로로 이어붙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체 이미지 슬라이딩 기능이 없는 웹페이지(웹사이트 등)에 게시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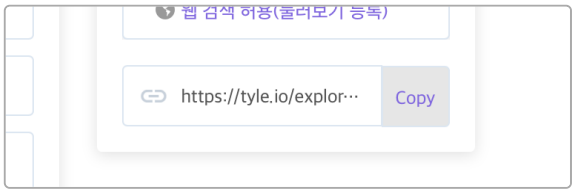
⑥ 슬라이드별 썸네일

각 낱장은 썸네일로 표시되며 이 썸네일을 클릭하여 해당 슬라이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를 받으려면 맨 위에 2. 이미지 압축파일(zip)을 한 번 누르는게 더 낫습니다.

⑦ 웹 검색 허용

제작된 컨텐츠를 특정 플랫폼(페이스북이나 유투브)에 올리지 않고, 타일 둘러보기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재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주소가 검색엔진의 결과에 반영되어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의 둘러보기 페이지에도 노출됩니다.

⑧ 공유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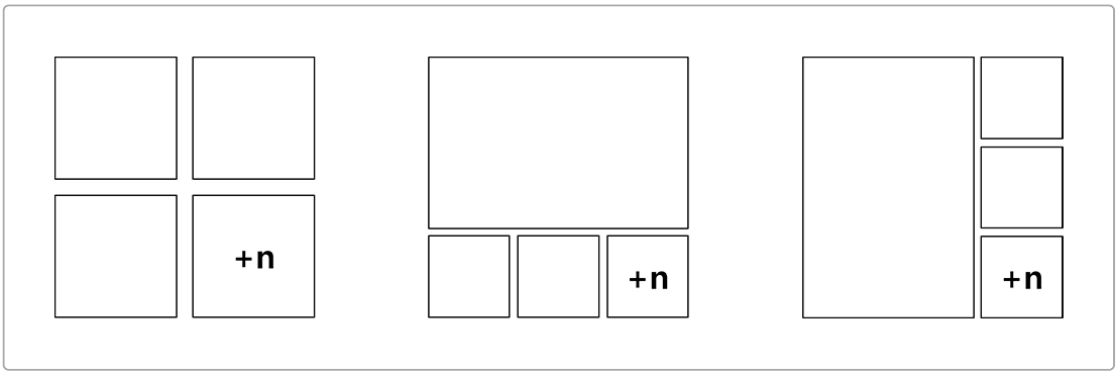


링크를 통해서 제작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추출을 한 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으로 재생됩니다. 이 링크를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링크를 아는 사람들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개 이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고 싶으면 [정보변경]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링크에 대한 자세한 활용방법은 [URL을 통한 공유]을 참고하십시오.

페이스북 피드 카드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뉴스를 게시할 때는 첫 장의 이미지가 가로형(900x600)인지 세로형(600x900)인지 혹은 정사각형(900x900)인지에 따라 노출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 첫 장의 크기에 따른 다양한 노출 형식

만약 가운데 예시처럼 보여지고 싶으시다면, 제작 화면에서 첫번 째 슬라이드의 사이즈만 페이스북 가로형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사각형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① 카드뉴스 적정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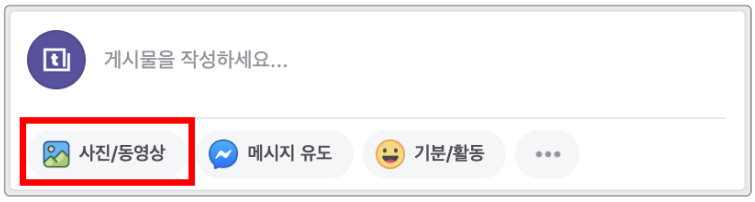
페이스북의 카드뉴스는 별도의 길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카드뉴스 콘텐츠가 우리의 독자(잠재고객)들에게 끝까지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15장 정도를 최대 길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미지로 다운받기

완료를 누르시면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보입니다. 여러 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카드뉴스인만큼 이미지 압축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된 압축파일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서 존재합니다. 압축을 풀면 우리가 작업한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보이며 이제 이 파일들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③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페이스북 페이지의 사진/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세요.



▲ 사진/동영상 선택

여기에서 첫번째로 보이는 사진/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사진/동영상 업로드 선택

해당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의 탐색기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서 한번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 할 파일 선택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미지들이 모두 업로드됩니다. 각 썸네일을 이용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의 텍스트 영역에 3줄 이하로 간단한 메세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단의 옵션을 통해 게시물이 공개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전체 공개나 비공개 등의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 업로드 옵션 설정

페이스북 피드 동영상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콘텐츠는 거의 모든 사이즈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피드에 노출되었을 때 보기 좋은 사이즈를 추천드리자면 4:5(페이스북 권장 사이즈), 16:9(가로형)과 1:1(정사각형)입니다.

① 동영상 콘텐츠의 적정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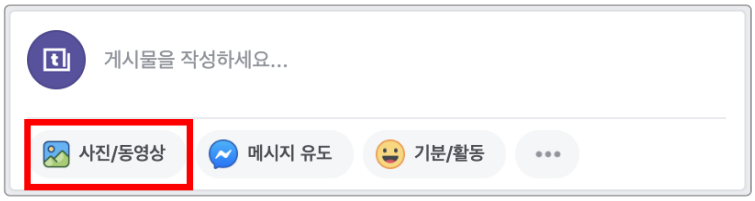
페이스북에는 최대 4GB, 그리고 240분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 콘텐츠는 페이스북 피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동영상 광고 집행까지는 염두하신다면 15초~30초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만드시는 것이 좋으며, 바이럴 목적의 콘텐츠라면 3분 정도를 적정 길이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② 타일에서 동영상 파일 다운받기

완료를 누르시면 동영상 추출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요청 후 대략 5~10분 정도 후에 완료되며, 완료가 되면 우측 하단의 메시지창과 가입된 이메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내 컴퓨터(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③ 동영상 파일 업로드하기

페이스북 페이지의 사진/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세요.



▲ 사진/동영상 선택

여기에서 첫번째로 보이는 사진/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사진/동영상 업로드 선택

해당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의 탐색기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동영상 파일 한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④ 동영상 업로드 상세 설정하기

동영상 파일을 넣으면 상세 설정 화면이 보입니다. 설정 화면 우측의 '동영상 상세 정보', '썸네일' 까지만 필수적으로 설정해주시면 되며, 하나씩 상세하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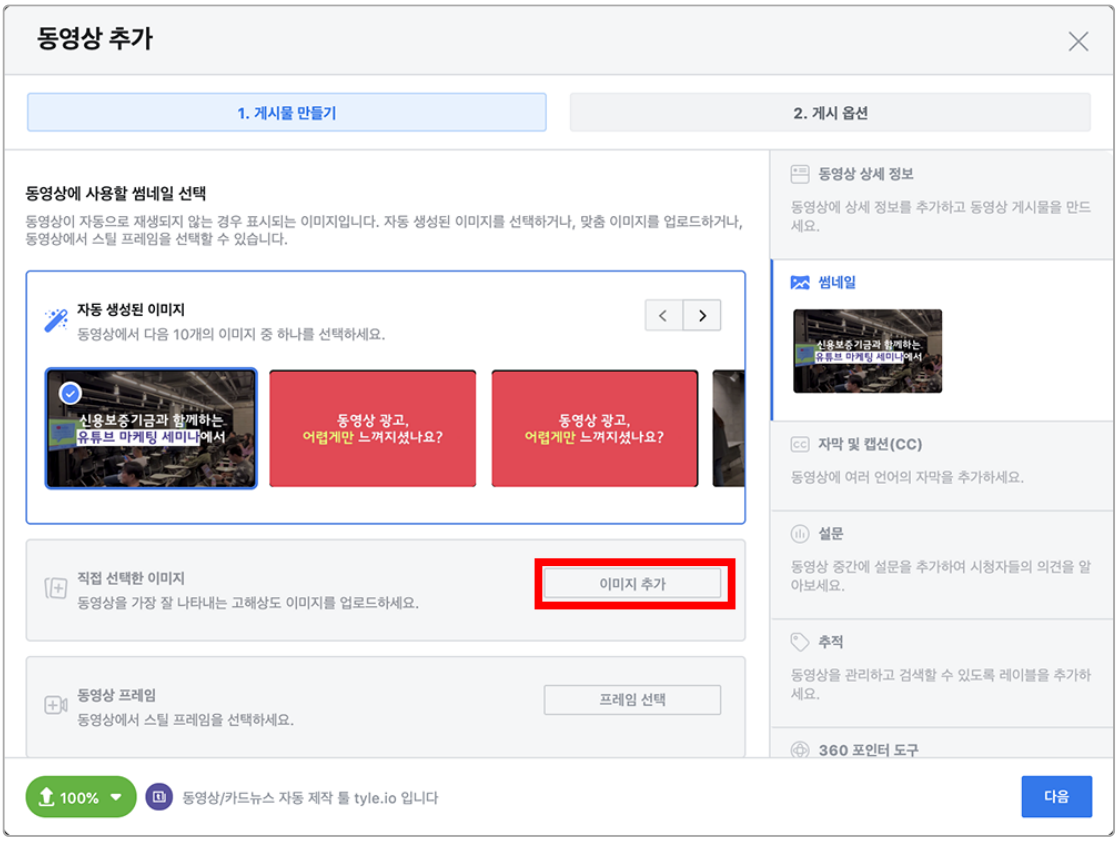
동영상 상세 정보

여기서는 동영상의 제목, 내용 및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며, 제목은 유저들이 동영상 재생 시에 보이게 되며 내용의 경우 피드의 텍스트 영역에 표시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 동영상의 상세 정보 설정

썸네일

페이스북 피드상의 동영상은 스크롤에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거나 스크롤이 되고 있는 중에는 썸네일이 먼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눈에 띄는 썸네일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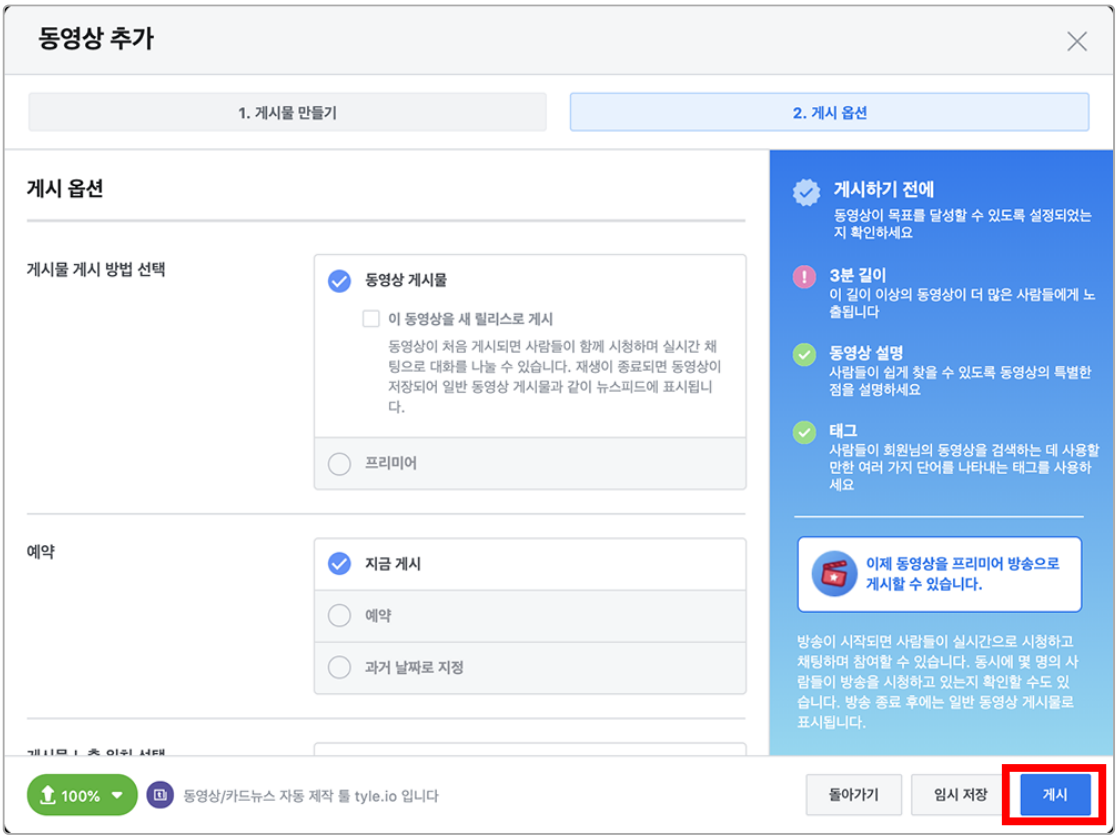


▲ 썸네일 이미지 직접 등록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자동적으로 이미지들이 생성됩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일을 사용하면 타일을 통해 첫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를 직접 다운로드받아 업로드하거나 아예 썸네일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중간에 직접 선택한 이미지에서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직접 이미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게시 옵션 설정하기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시 옵션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피드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별다른 설정 없이 곧장 게시 버튼을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게시물을 예약 배포 할 수 있고, 게시물이 노출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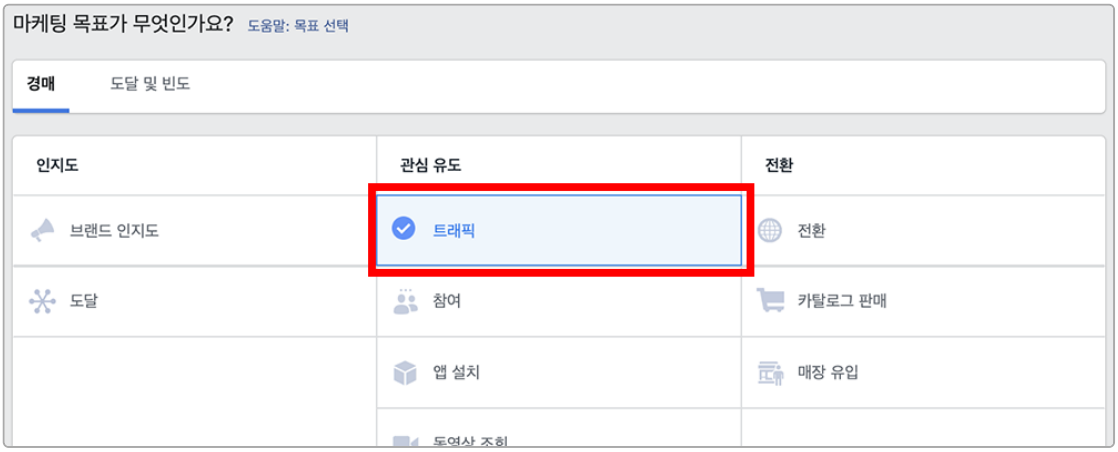
▲ 최종 옵션 확인 후 게시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업로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광고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 광고관리자 페이지에서 캠페인 탭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를 집행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트래픽 광고 집행 절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캠페인 이름을 지정해주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사이트 방문 유도 광고'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 마케팅 목표에서 트래픽을 선택

다음은 광고 셋트의 상세 설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과 예산 및 일정입니다.

타겟

타겟팅의 경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연령대, 성별, 위치, 관심사 등의 정보로만 넓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광고를 집행하면서 점차 정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이 점차 우리의 광고에 관심있어하는 타겟층을 찾아주는 만큼, 트래픽 광고의 경우 연령대 정도만 설정하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 타겟에 대한 세부 옵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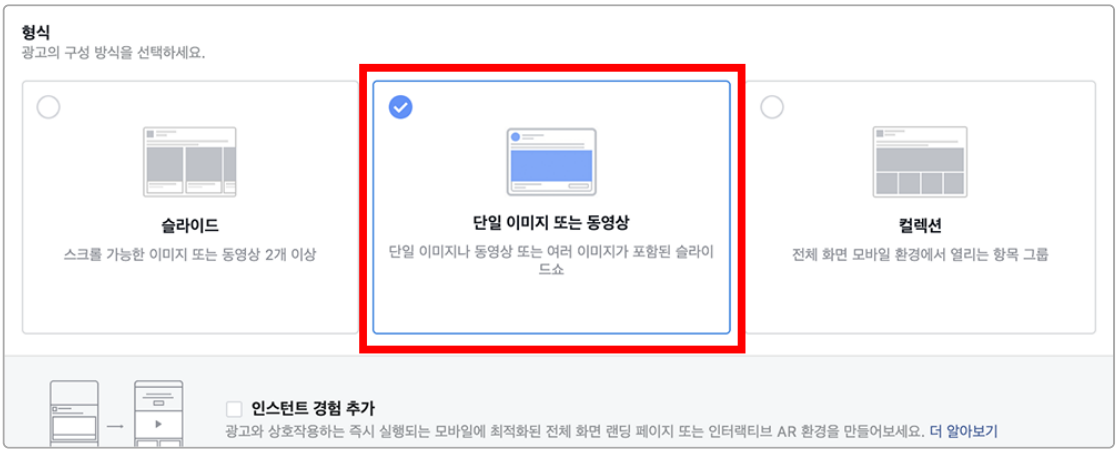
예산 및 일정

여기서는 일일 예산을 설정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광고를 게재하면서 하루에 설정한 예산씩 소비되도록 하거나 총 예산을 지정해서 해당 금액 이상은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엔진이 최적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종료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일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일일 예산 설정

다음은 실제 광고 콘텐츠를 상세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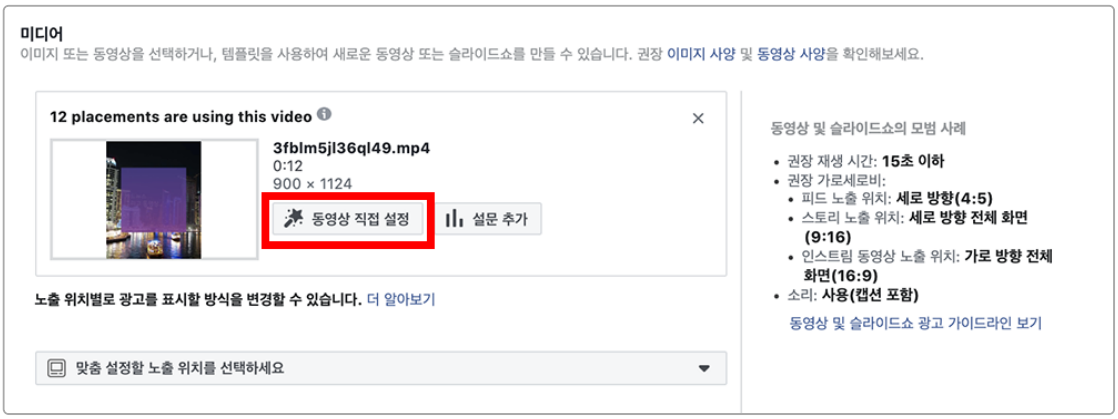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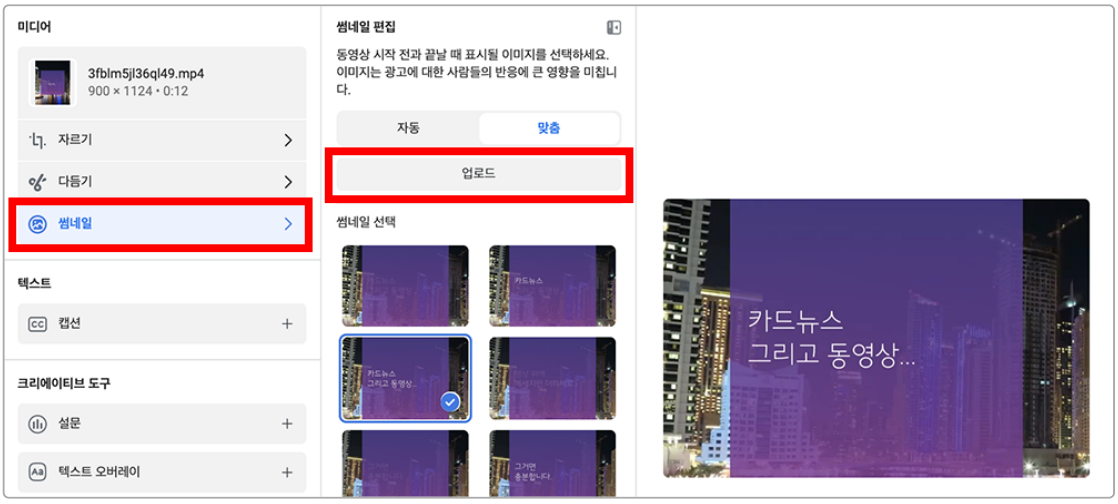
동영상은 직접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영상 사이즈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5 사이즈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 피드 상의 동영상은 스크롤에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거나 스크롤이 되고 있는 중에는 썸네일(스틸 이미지)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썸네일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 썸네일 임의 설정을 위해 동영상 직접 설정

여기 화면에서 동영상 직접 설정을 누르고 썸네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된 썸네일을 선택하거나 직접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지정한 썸네일을 직접 등록

그 다음으로는 기본 문구만 설정하면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정보는 모두 입력한 것입니다.

▲ 기본 문구 설정 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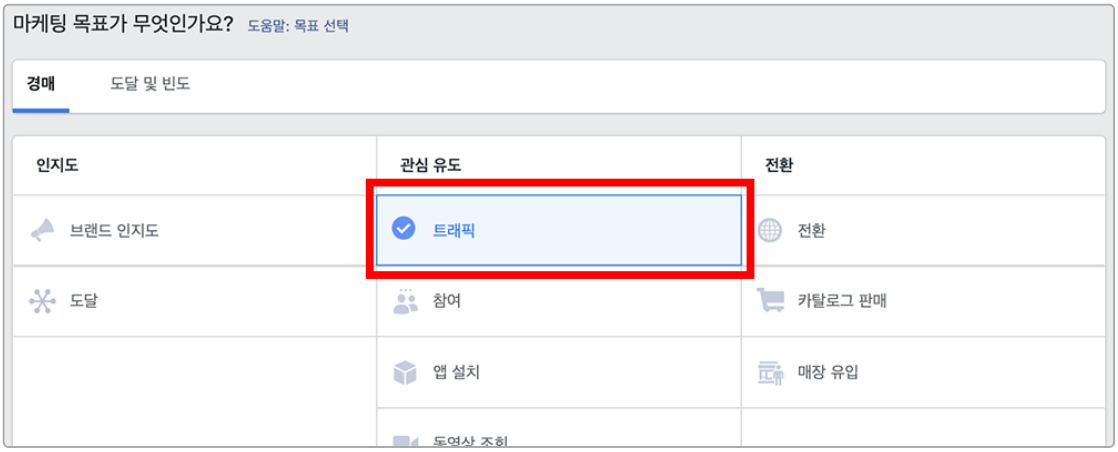
그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의 검토 후 광고가 집행되게 됩니다.

페이스북 슬라이드 광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업로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광고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 광고관리자 페이지에서 캠페인 탭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를 집행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트래픽 광고 집행 절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캠페인 이름을 지정해주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사이트 방문 유도 광고'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 마케팅 목표에서 트래픽을 선택

다음은 광고 셋트의 상세 설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과 예산 및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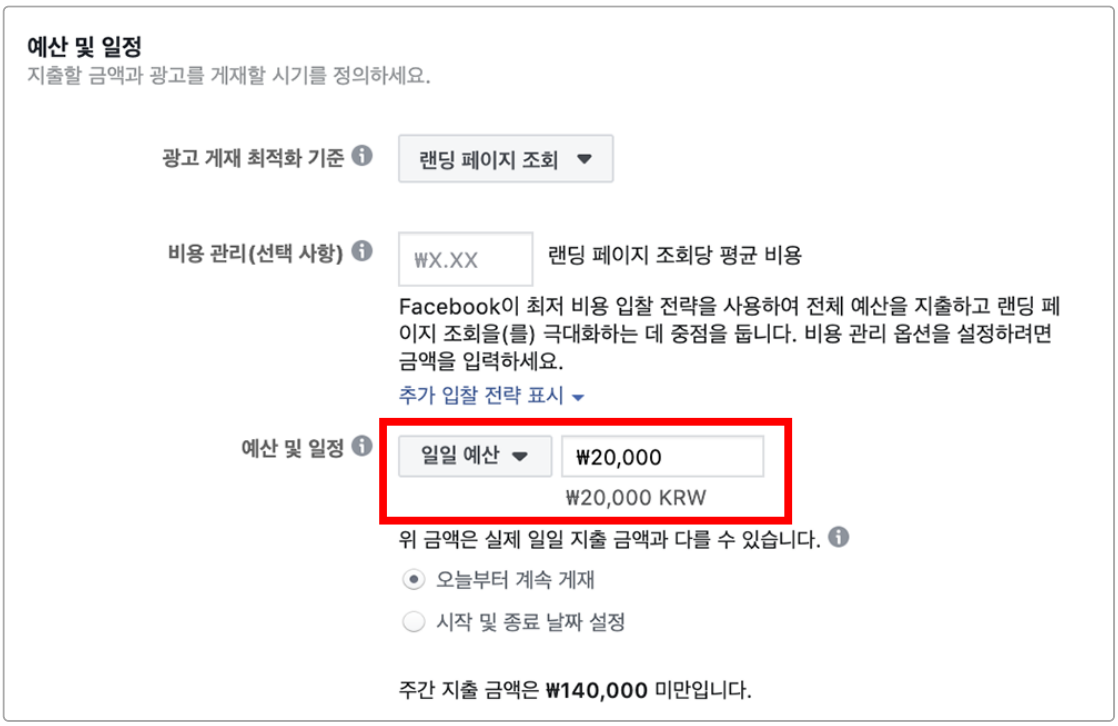
타겟

타겟팅의 경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연령대, 성별, 위치, 관심사 등의 정보로만 넓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광고를 집행하면서 점차 정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이 점차 우리의 광고에 관심 있어 하는 타겟층을 찾아주는 만큼, 트래픽 광고의 경우 연령대 정도만 설정하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 타겟에 대한 세부 옵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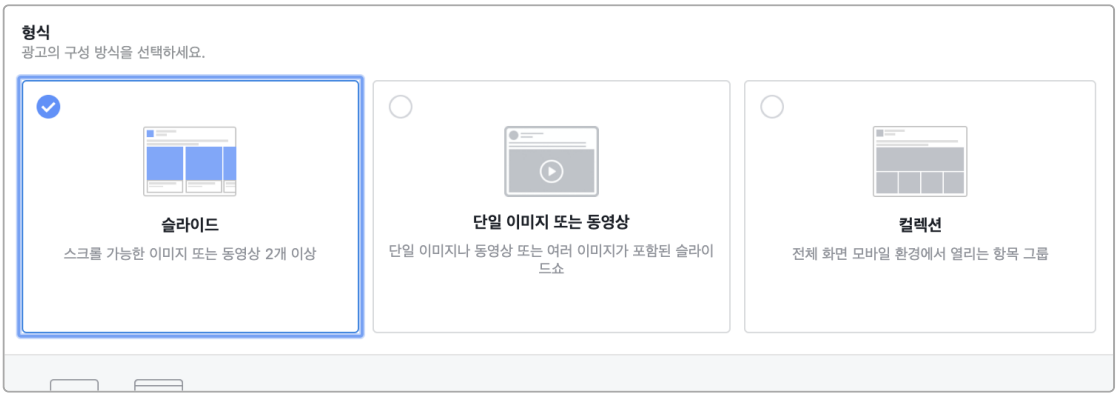
예산 및 일정

여기서는 일일 예산을 설정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광고를 게재하면서 하루에 설정한 예산씩 소비되도록 하거나 총예산을 지정해서 해당 금액 이상은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엔진이 최적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종료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일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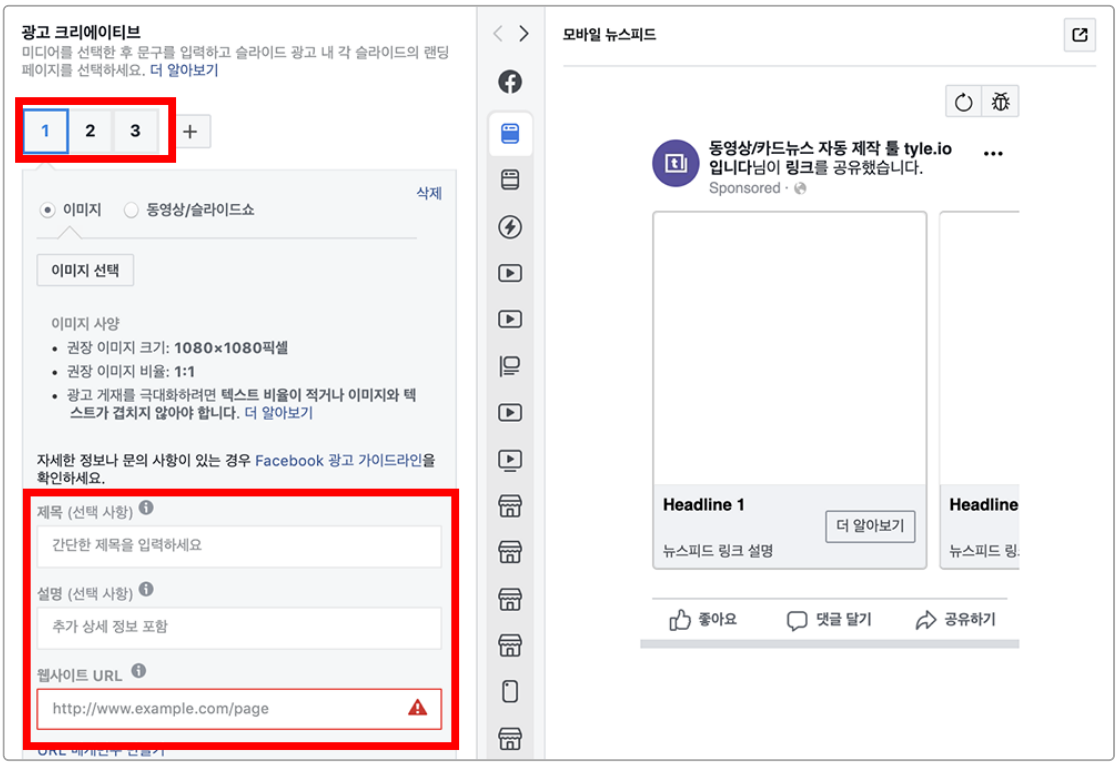
▲ 일일 예산 설정

다음은 실제 광고 콘텐츠를 상세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형식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슬라이드 선택

슬라이드 광고는 정사각형(1080x1080)의 이미지가 여러 장 필요하며 1,2,3의 번호를 누르고 이미지 선택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각각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제목 및 설명을 입력하면 우측 미리보기의 Headline 1 영역과 뉴스피드 링크 설명에 내용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 클릭시 이동할 웹사이트 주소까지 입력하면 광고 집행을 위한 모든 설정을 다 채운 것입니다. 하단의 동의를 눌러 페이스북의 검토 후 광고가 집행되도록 합니다.



▲ 광고 크리에이티브 설정

카카오채널 피드

카카오 채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경의 비쥬얼 콘텐츠를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접하게 되지만, 실제 콘텐츠 포스팅은 데스크탑에서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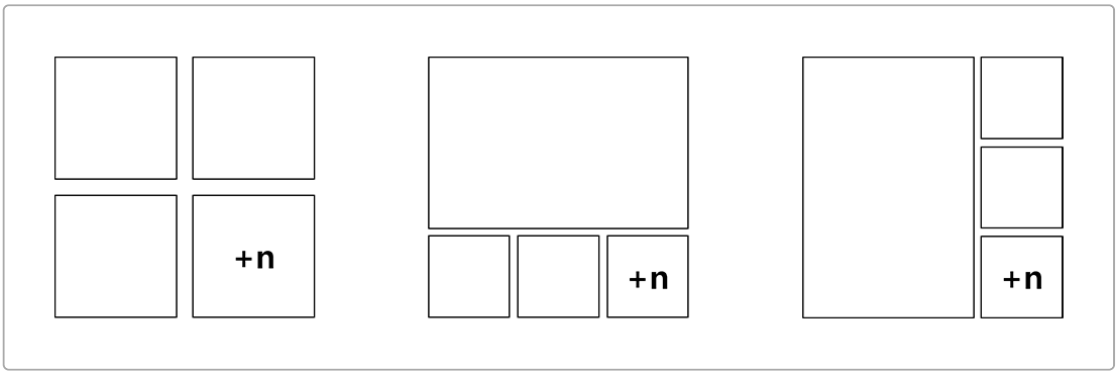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에 접속하면 4가지 방식으로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 업로드 가능

① 사진

사진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 탐색기가 열리면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으며, 순서대로 포스팅이 됩니다.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첫 장의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노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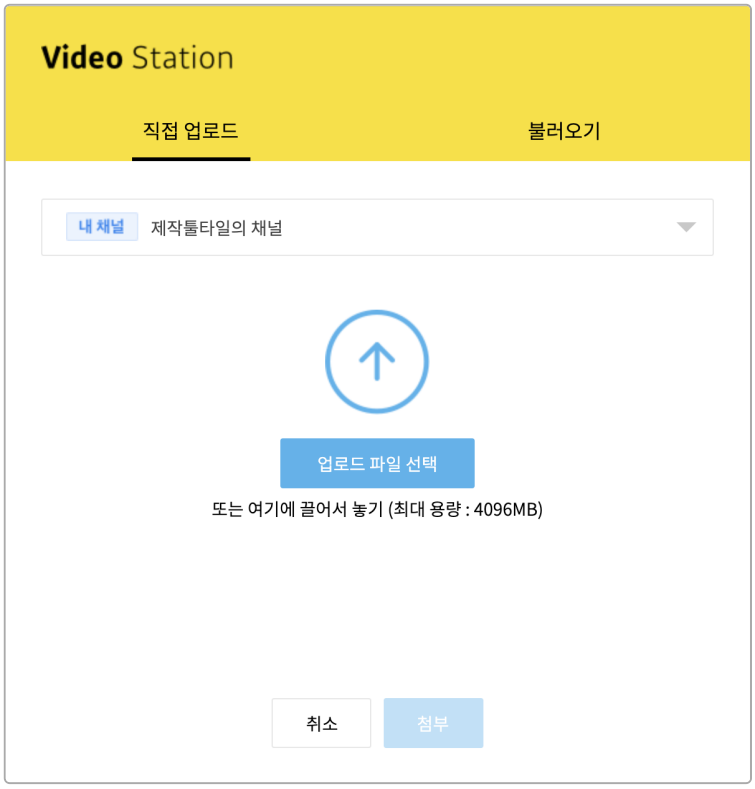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미지만 가로형(900x600)으로 업로드한 경우 두 번째 이미지처럼 노출되며, 첫 번째 이미지를 세로형(600x900)으로 만든 경우 세 번째 예시처럼 노출되게 됩니다.



첫 장의 크기에 따른 다양한 노출 형식

② 동영상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른 뒤 업로드할 동영상 파일(mp4)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후 썸네일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미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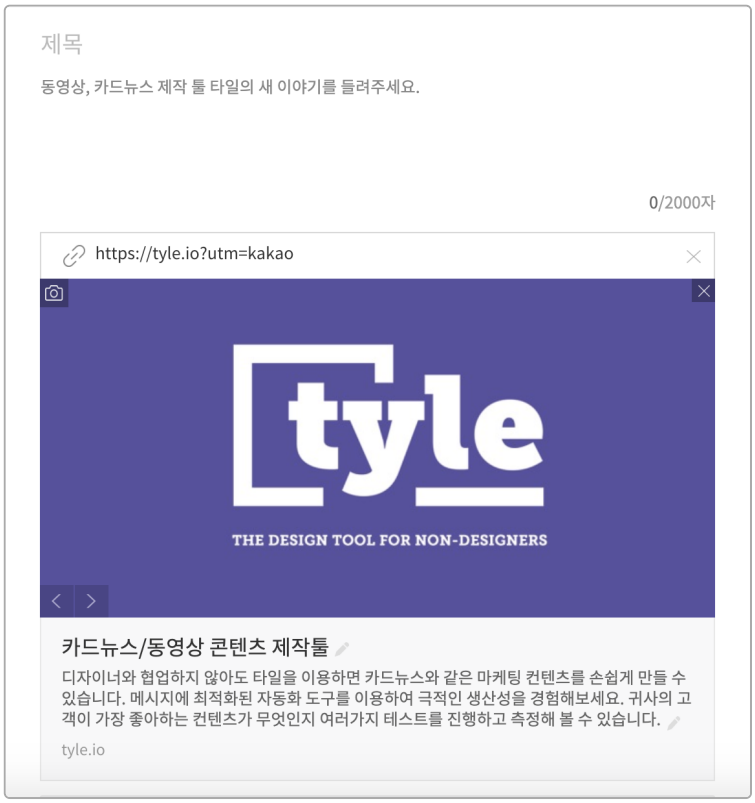
▲ 동영상 업로드 화면

영상 첨부 후 제목 및 내용을 넣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게시가 완료됩니다.

③ 링크

링크의 경우 제목, 내용, 링크만 넣으면 가능하며 썸네일 이미지, 웹사이트 제목 및 내용 역시 모두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 옆의 연필그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유입 분석을 하는 경우, 링크에 UTM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시 이미지처럼 이동을 원하는 사이트 URL에 임의로 파라메터를 붙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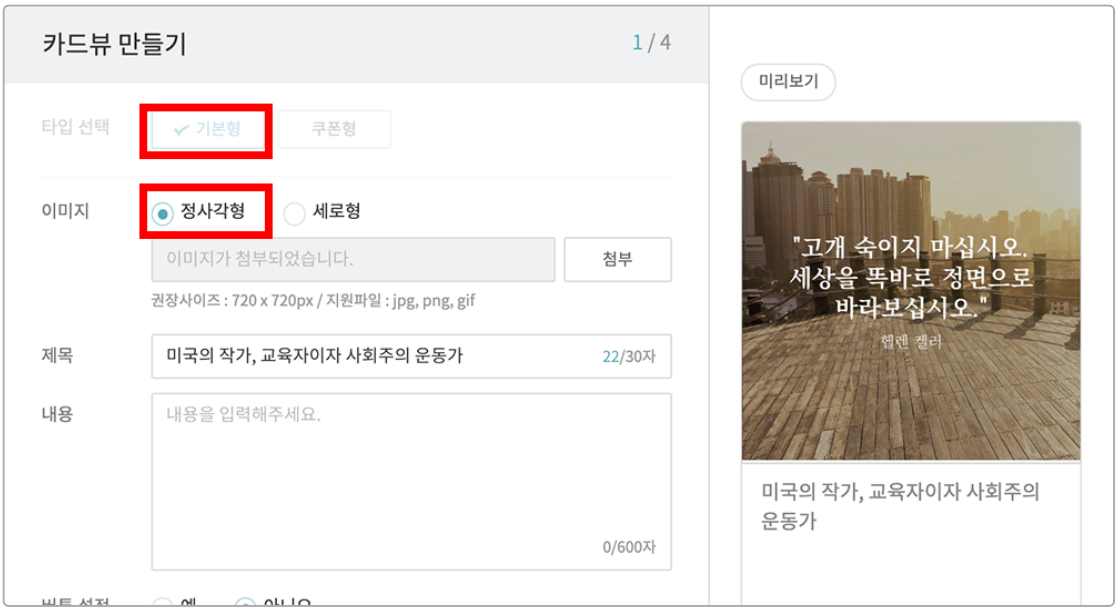


▲ 링크를 삽입한 경우

④ 카드뷰

카드뷰 콘텐츠는 기본형과 쿠폰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본형 포스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역시 정사각형과 세로형으로 나누어지나, 피드 상에서 하나씩 넘겨보는 목적으로는 정사각형이 더 유리합니다. 타일로 만든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하나씩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제목에 적는 내용이 이미지 하단에 곧장 텍스트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타일에서 기재하는 텍스트와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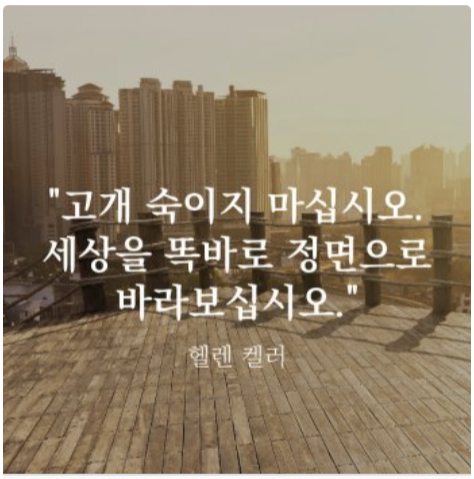


▲ 카드뷰 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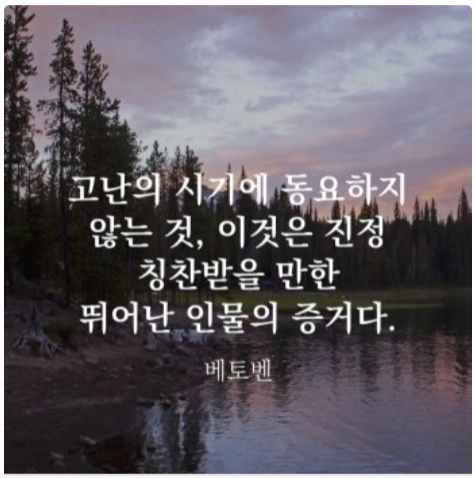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한장씩 넘겨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위인들의 명언

시대가 지나도 가르침을 주는 위인들의 명언 살펴보기



미국의 작가,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



일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

고대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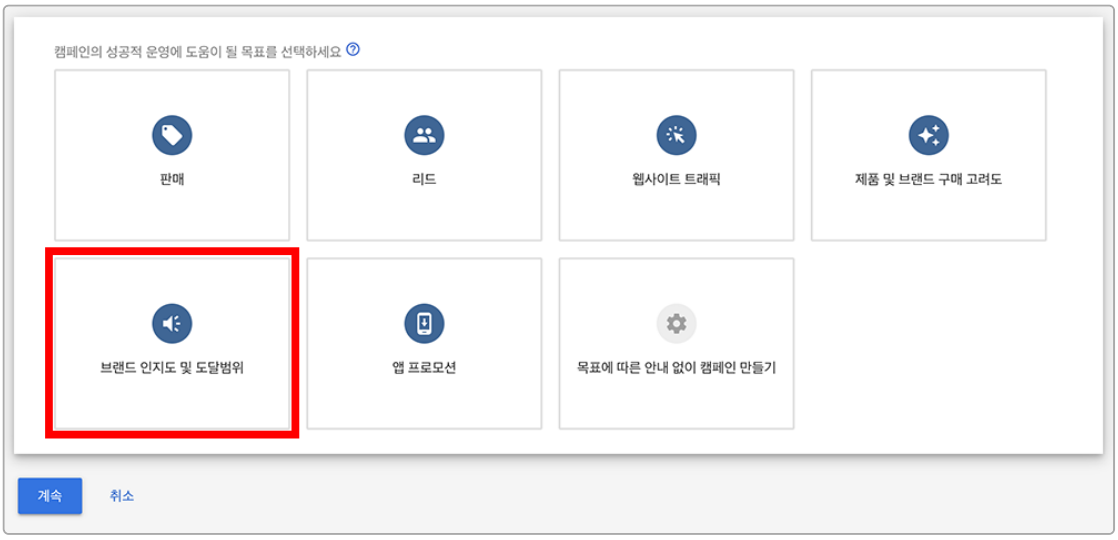
좋아요 0 • 댓글 0 • 공유 0

▲ 카드뷰 보여지는 모습

유튜브 동영상 광고

유튜브에 타일로 만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 집행 플랫폼인 구글 애즈에서 새롭게 캠페인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우리의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글 광고 상품들이 추천되나, 여기서는 브랜드 인지도 목적을 선택한 뒤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범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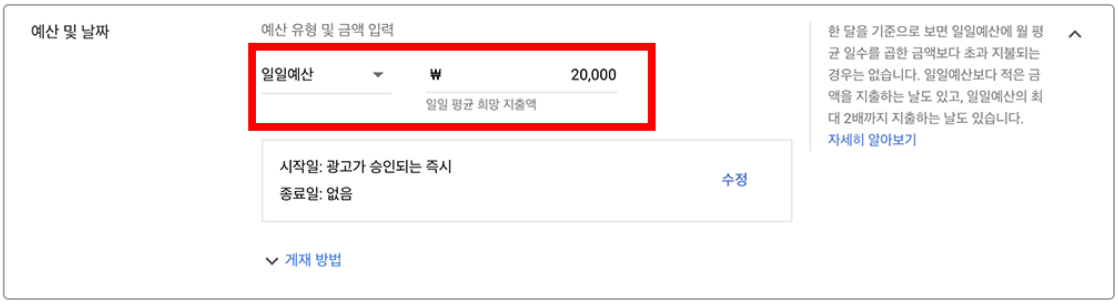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범위를 선택하고, 동영상을 선택하면 캠페인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동영상 광고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 광고의 대부분이며 5초 뒤 스킵 버튼이 나오는 광고 상품입니다.

▲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선택

그 다음화면에서는 예산, 일정, 노출위치, CPM 단가 등의 다양한 옵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필수적으로 셋팅해야 하는 요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예산 및 일정

예산은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과 일일 집행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 예산으로 해서, 구글의 머신러닝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광고를 집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 예산은 1~2만 원으로도 충분히 광고 집행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일일 예산 설정

② CPM 입찰가

CPM 입찰가는 나의 광고가 1,000회 보였을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노출이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3,000원~5,000원 정도로 시작해보면서 광고가 잘 노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CPM 입찰가 설정

③ 동영상 광고 만들기

구글 애즈에는 직접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으며, 무조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의 링크를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 계정에 타일로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의 URL을 붙여 넣어야 합니다.

▲ 이곳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삽입

업로드 후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곧장 광고 심사가 들어가면 24 시간 내에 광고 집행 여부가 결정되고 노출이 시작됩니다.

기타 활용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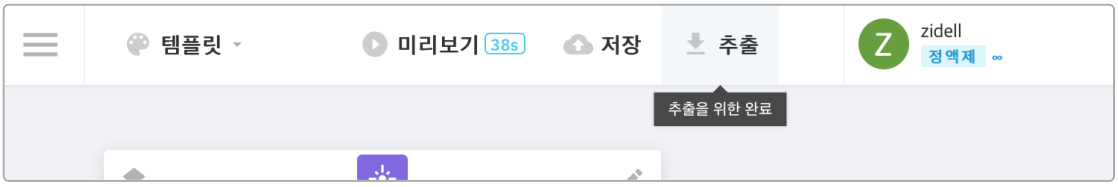
타일을 사용하다보면 기획이나 배포 단계, 혹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니즈들이 생기곤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타일에 적용하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페이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유용함이 판단되는 경우 타일의 메이저 업데이트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URL을 통한 공유

타일에서 생성된 카드는 기본적으로 추출을 통해서 이미지 혹은 동영상의 형태로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일 형식은 표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업로드 가능하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때에는 업로드나 전송할 여건이 안 되는데, 제 3자에게 컨텐츠를 공유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타일의 웹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URL을 얻고, 그 URL을 공유하여 제 3자가 컨텐츠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페이지로 카드뉴스 및 동영상 모두 최적화된 재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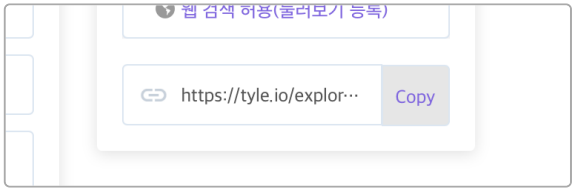
① 카드편집 완료하기



▲ 상단의 완료 클릭

카드 완료(추출)를 통해서 현재 제작된 컨텐츠를 타일서버가 배경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운받지 않아도 서버상에 완료된 파일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② 공유주소 획득하기



▲ share에서 URL 복사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완료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Share 파트를 보면 https://tyle.io/exp... 와 같은 주소가 있고 그 옆에 Copy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py 를 클릭하여 이 주소를 복사하고, 메신저나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하십시오.

③ 주소를 통한 접근

URL을 알고 있는 제 3자는 해당 주소를 클릭하여, 모바일에서나 데스크탑에서나 접근하고 제작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주소에 접근

해당 카드가 동영상으로도 추출되었다면 자동으로 동영상모드를 우선으로 합니다. 카드뉴스 모드로 열리는 것을 원한다면 URL의 가장 뒤에 `#image`를 붙여서 `https://tyle.io/ex...#image`와 같이 주소를 만들고 공유하십시오.

나만의 커스텀으로 시작

타일은 웹서비스이므로 URL과 공유 등 기본적인 웹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URL 주소창을 이용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 이 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URL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URL을 이용한 모든 활용방법은 개발자를 위한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텍스트를 깔고 시작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시작하는 시점에 특정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물론 중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항상 똑같은 텍스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편집화면을 불러올 때 이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배치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텍스트는 `t1`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근해 보십시오.

```
https://tyle.io/create?t1=타일은 텍스트를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텍스트를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라는 텍스트가 시작하자마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테스트 말고도 본문 텍스트도 기본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https://tyle.io/create?t1=타일은 텍스트를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t2=그리고 본문 텍스트도 변경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시작하는 텍스트를 미리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정 로고를 깔고 시작

이번에는 다른 변수에 대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타일에서는 컨텐츠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이 생성하는 고정된 로고가 있다면, 시작할 때마다 특정 로고로 시작하는 링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logo_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
https://tyle.io/create?logo_url=https://tyle.io/i/logo-sample.png
```

위 링크로 편집화면에 진입하면 미리 지정된 샘플로고가 기본적으로 배치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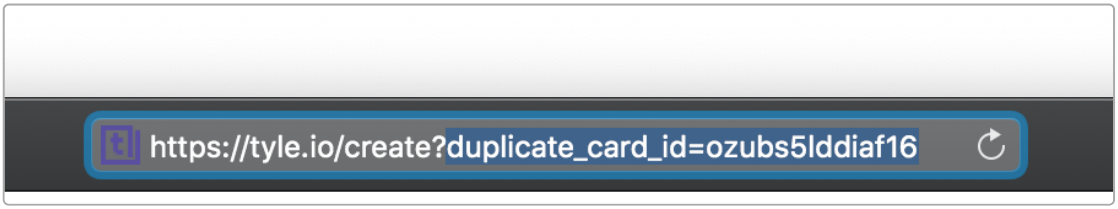
특정 카드를 깔고 시작

위 방법 등을 통해서 텍스트, 로고, 색상, 레이아웃 등 각각의 특성들을 하나 혹은 여러개 조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이 모든 조건들이 조합되어 이미 생성된 카드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다 적용된 카드를 하나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고유주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생성하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창에서 카드 고유번호를 복사합니다.

▲ 주소창에서 카드 고유번호 추출

이제부터 시작할 때마다 이 카드의 내용물을 기본적으로 적용한 상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드로부터 시작하는 파라미터는 `duplicate_card_id` 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소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 주소창에서 복제하기 위한 주소입력

실제 작동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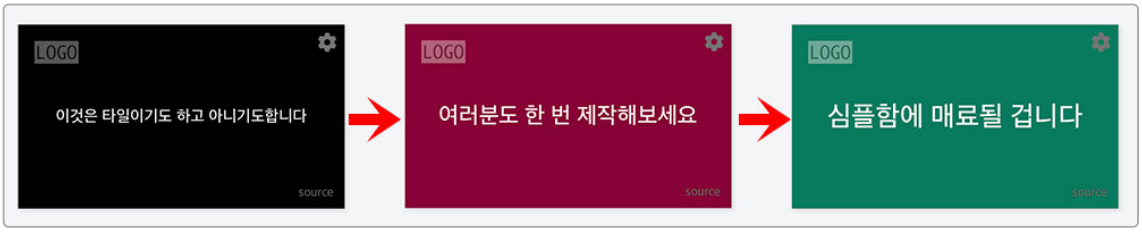
https://tyle.io/create?**duplicate_card_id**=9soxa5kmrqyj5u

특정 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일 기능인 [복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에서 대상 카드쪽으로 이동하고 `▼`를 누른 후 `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소로 이동되는데, 이때 주소창을 보면 위 링크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용으로 시작할 때, 편집 화면이 열리지 않고 바로 결과물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화면 없이 이미지 생성를 참고하십시오.

텍스트 영상 제작

타일이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결과물 자체는 다소 심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더 속도감 있고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들이 많이 소비되어가는 추세도 존재합니다. 타이포 모션을 이용하면, 메시지만 입력하여 속도감 있는 타이포그래픽 모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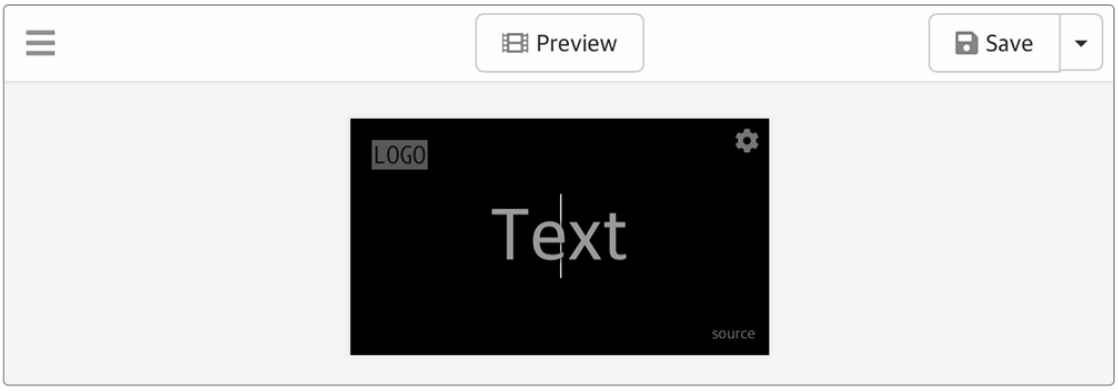


▲ 각 장마다 텍스트를 넣으면 멋있게 재생됨

텍스트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타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사용방법은 전반적으로 타일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기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다 채우고 나서 미리보기를 통해서 영상화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화면 접속



▲ 타이포모션 편집 화면

https://tyle.io/typomotion

타이포모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위 주소로 접속하십시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타일의 로그인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십시오(타일 계정이 없다면 가입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편집화면에 접속하면 타일과 비슷하게 가운데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

타이포모션은 타일과 다르게 보다 더 속도감 있고 심플한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단일로만 제공됩니다. 슬라이드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해보십시오. 텍스트 박스에 커서를 넣는 경우 좌측에서 텍스트에 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입력후 엔터는 기본적으로 다음줄로 넘어갑니다. 타이핑 중 다음 슬라이드(새로운 슬라이드) 추가를 위해서는 탭키를 이용하십시오.

툴바	**기능**
색상	컬러 셋을 변경
효과	텍스트가 나타나는 효과를 변경, 텍스트에 대한 효과는 미리보기에서도 일괄 변경 가능
폰트	텍스트 폰트 변경
배경	텍스트 박스의 배경 느낌 변경
크기	텍스트 크기 변경
줄간격	텍스트의 줄간격 변경

툴바	기능
가로정렬	텍스트 가로 정렬
세로정렬	텍스트 세로 위치 변경
전체 적용	현 텍스트의 설정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

배경 이미지 편집

슬라이드에서 가운데를 조금 벗어난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 편집에 관한 툴바가 열립니다.

툴바	기능
찾아보기	이미지 검색
크기	이미지의 크기 모드 변경
가독성	가독성을 위한 밝기 변경
색상	이미지 외부의 배경 색상 변경
전체 적용	현 이미지의 설정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
삭제	이미지를 제거하고 배경색만 남김

로고 편집

왼쪽 상단의 로고를 클릭하면, 로고 편집에 관한 툴바가 열립니다.

툴바	기능
찾아보기	로고 검색
크기	로고의 크기 변경
가로위치	슬라이드내 로고의 가로 위치 변경
세로위치	슬라이드내 로고의 세로 위치 변경

툴바	기능
전체 적용	현 로고의 설정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

슬라이드 설정

각각의 요소 외에 슬라이드 자체에 관한 설정도 할 있습니다. 각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바	기능
Set Duration	슬라이드의 유지시간을 수동으로 설정
Duplicate	슬라이드를 복제하여 바로 밑에 생성
Delete	슬라이드 삭제

미리보기 및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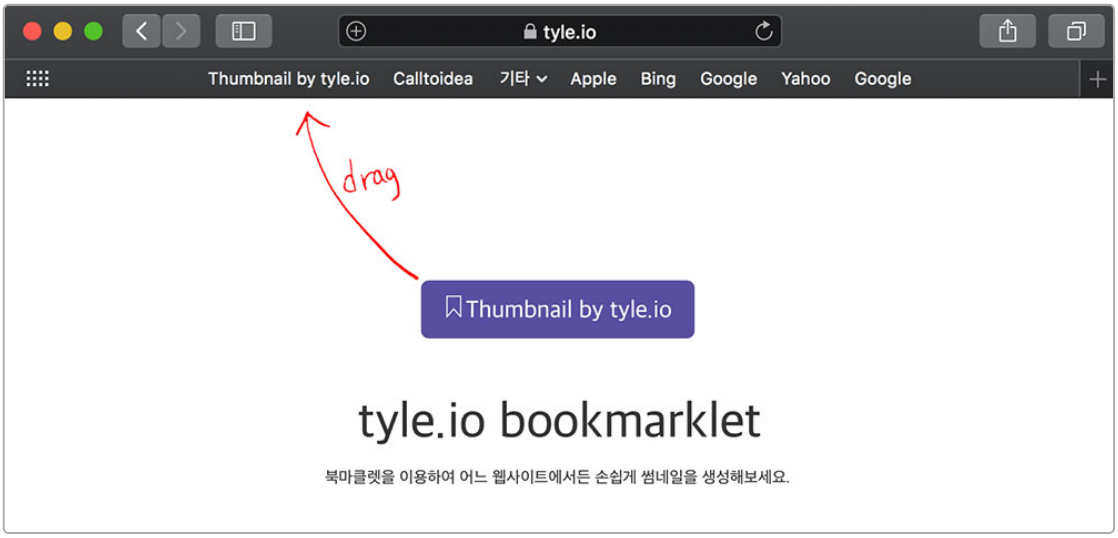
타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단의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동영상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화면 하단에 있는 옵션들을 조정하면 실시간으로 재조정이 됩니다.

작업물이 다 완성이 되면, 상단에서 `완료`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 추출이 시작됩니다. 타일과는 다르게 완료되기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므로, 탭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실행되고 사용자의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 내용으로 시작

웹 서핑을 하다 보면 특정 이미지를 배경으로 간단하게 글씨를 삽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블로그의 내용을 기반으로 썸네일을 생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해당 이미지를 다운 받고 타일에 접속해서 업로드하고 내용 수정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이미지를 이용하여 편집화면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마클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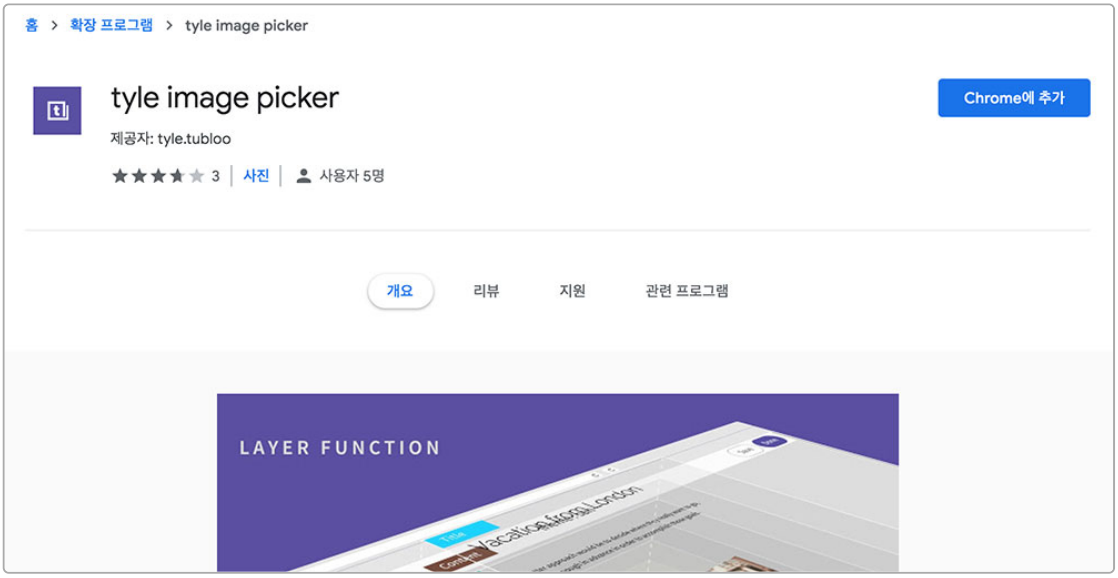


▲ 북마크 도구모음에 넣으면, 어떤 페이지든 카드뉴스화 가능

https://tyle.io/bookmarklet

북마크에 버튼을 추가하고, 이미지화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해당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편집화면을 지동으로 구성합니다. 북마크바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데스크탑 기반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크롬 확장프로그램



▲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

https://tyle.io/chrome-extension

크롬을 사용 중이라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십시오. 썸네일화 하고 싶은 페이지에서 확장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내용을 기반으로 썸네일 편집화면을 제작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페이지 외에도 특정 이미지에 마우스를 대고 이미지로 제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방법

만약 북마크바나 확장 프로그램 모두 싫다면 아래와 같이 파라미터로 직접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https://tyle.io/create?url=대상 웹페이지 URL
```

각 플랫폼별 비용 분석

카드뉴스나 동영상 중 일부는 자사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유된 카드뉴스 덕분에 얼마나 많은 방문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것은 보통의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돈을 써서 카드뉴스의 노출을 강제로 늘린 상황이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방문에 도움이 되었는지 효율을 파악해서 다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이 정보는 구글분석기와 마케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통합 비용분석이 필요한 이유

보통 각 플램폼별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의 성과와 전환률까지 보여줍니다. 문제는 각 플랫폼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사이트에 실제 방문 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까지는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나의 채널에 몰빵하지 않고, 상품이나 타겟별로 다양한 채널들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플랫폼이 말하는 성과를 믿지않고, 단일 기준으로 효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Source / Medium	Users	Sessions	Impressions ↓	Clicks	Cost	CTR	CPC	RPC	ROAS
	3,676 % of Total: 100.00% (3,676)	16,799 % of Total: 100.00% (16,799)	2,783,138 % of Total: 100.00% (2,783,138)	6,242 % of Total: 100.00% (6,242)	₩3,932,758 % of Total: 100.00% (₩3,932,758)	0.22% Avg for View: 0.22% (0.00%)	₩630 Avg for View: ₩630 (0.00%)	₩2,754 Avg for View: ₩2,754 (0.00%)	437.18% Avg for View: 437.18% (0.00%)
1. naver / cpc	193 (4.22%)	664 (3.95%)	**2,434,123** (87.46%)	2,463 (39.46%)	₩1,349,920 (34.33%)	0.10%	₩548	₩298	54.31%
2. google / cpc	285 (6.23%)	1,050 (6.25%)	**257,467** (9.25%)	2,453 (39.30%)	₩873,507 (22.21%)	0.95%	₩356	₩810	227.58%
3. facebook / cpc	5 (0.11%)	10 (0.06%)	**91,548** (3.29%)	1,326 (21.24%)	₩1,709,331 (43.46%)	1.45%	₩1,289	₩58	4.52%

▲ 비용분석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광고효과 분석

① 광고 실적 추출하기

사용하는 주요 광고 플램폼에서 기간 내의 실적들을 추출을 해봅니다.

구글애즈에서의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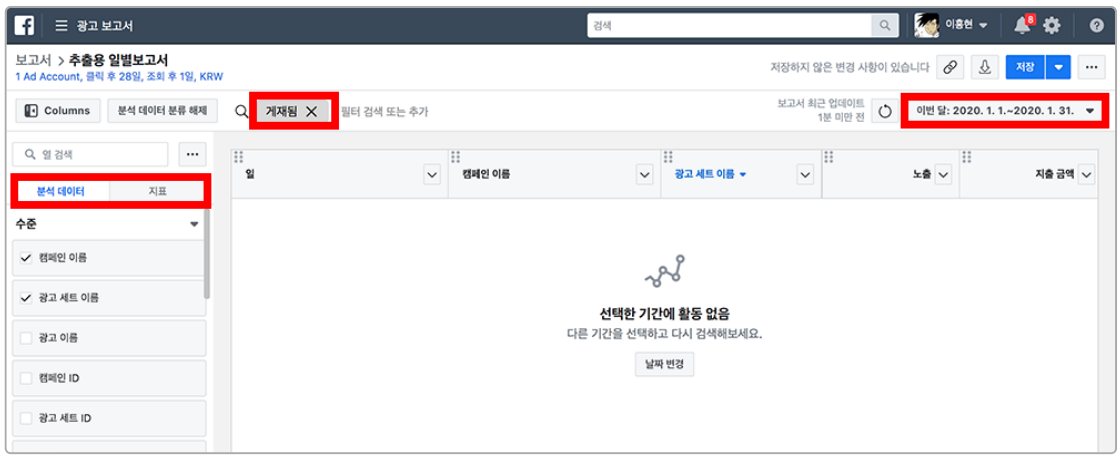
구글애즈는 같은 회사다보니 추출 없이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구글분석기의 Admin > Google Ads Linking > New Link Group을 합니다. 자세한 연결 방식은 공식 도움말 구글 분석기에서 애즈 연동하기을 참고하십시오.

▲ 설정에서 쉽게 연결이 가능

구글애즈는 연동 설정이다보니, 한 번만 설정하고 나면 매월 추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추출하는 방법

페이스북 광고관리자의 광고보고서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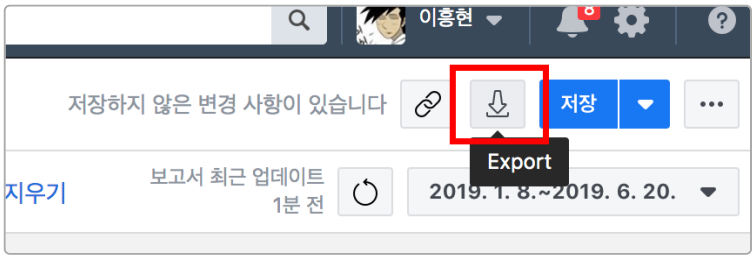


▲ 광고보고서 추출시 체크해야할 3 부분

가장 왼쪽부터 `분석데이터`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추출할 것인가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분석데이터 탭에서는 `수준 > 캠페인 이름`, `수준 > 광고 세트 이름`, `시간 > 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표 탭에서는 `성과 > 노출`, `성과 > 지출 금액`, `성과 > 클릭(전체)`을 체크합니다.

가운데는 필터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게재됨`을 선택하여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세요,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주는게 편리합니다.



▲ 추출하고 CSV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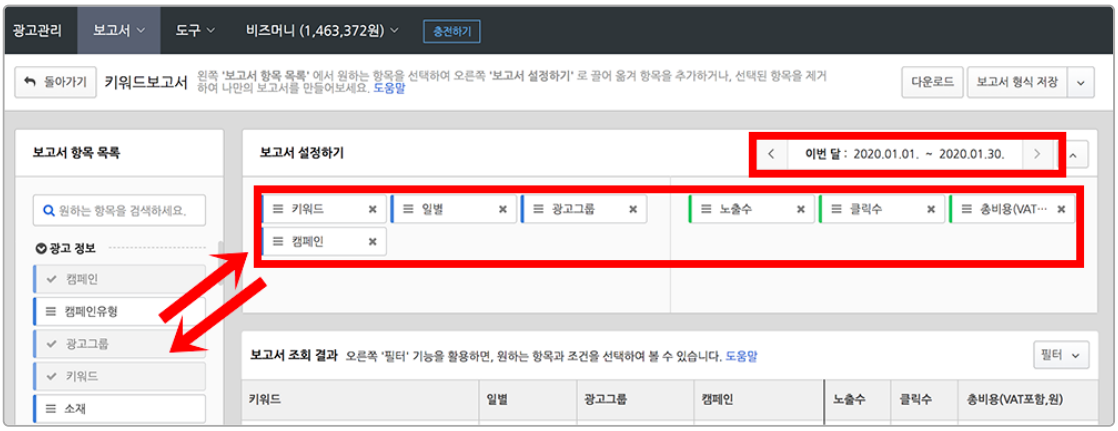
기간 위에 있는 추출 버튼을 누르고, 파일 형식을 고르는 팝업이 나타나면 세 번째 CSV로 추출해주세요.

일	캠페인 이름	광고 세트 이름	노출	지출 금액 (KRW)	관련성 점수	클릭(전체)	보고 시작	보고
2019-06-20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3786	49590		39	2019-06-20	20
2019-06-20	리타케팅_다이내믹	리타케팅_다이내믹	5509	112529		55	2019-06-20	20
2019-06-19	리타케팅_다이내믹	리타케팅_다이내믹	5172	102570		53	2019-06-19	20
2019-06-19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3524	48569		36	2019-06-19	20

▲ 페이스북에서 추출된 CSV 실적

네이버에서 추출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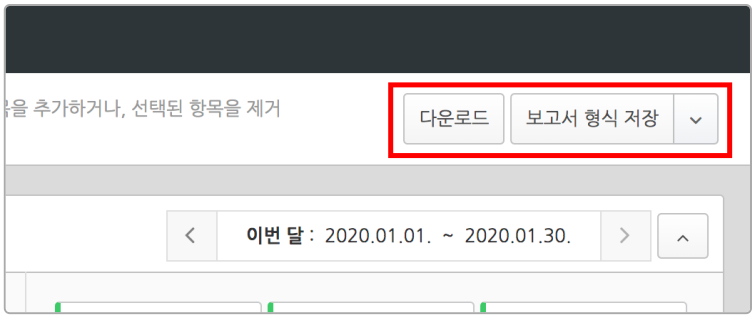
네이버 광고 센터로 이동한 후에 메뉴에서 `보고서 > 다차원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목록에 리스트가 없다면 `+ 새 보고서`를 누른 후에 적합한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 추출할 지표를 설정하는 화면, 드래그로 추출할 지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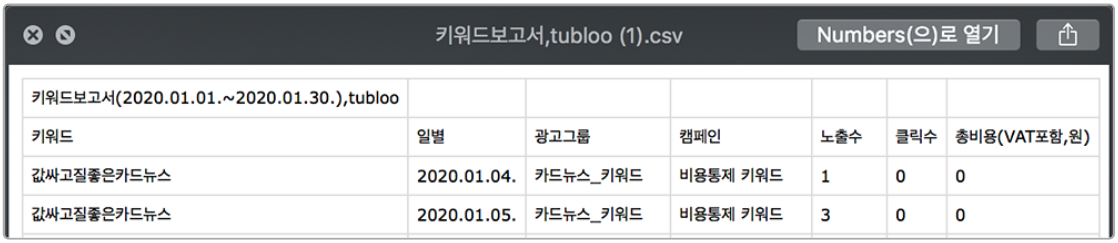
왼쪽에는 추출 가능한 모든 지표가 나오고, 상단에는 선택된 지표들이 놓여있습니다. 드래그로 왼쪽과 상단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키워드`, `일별`, `광고그룹`, `캠페인`을 올려주시고, 오른쪽에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VAT..`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 다운로드와 보고서 형식 저장

마지막으로 기간 보다 더 위에 다운로드 를 눌러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차후에 재사용을 위하여 보고서 형식 저장 도 눌러주세요.



키워드보고서,tubloo (1).csv — Numbers(으)로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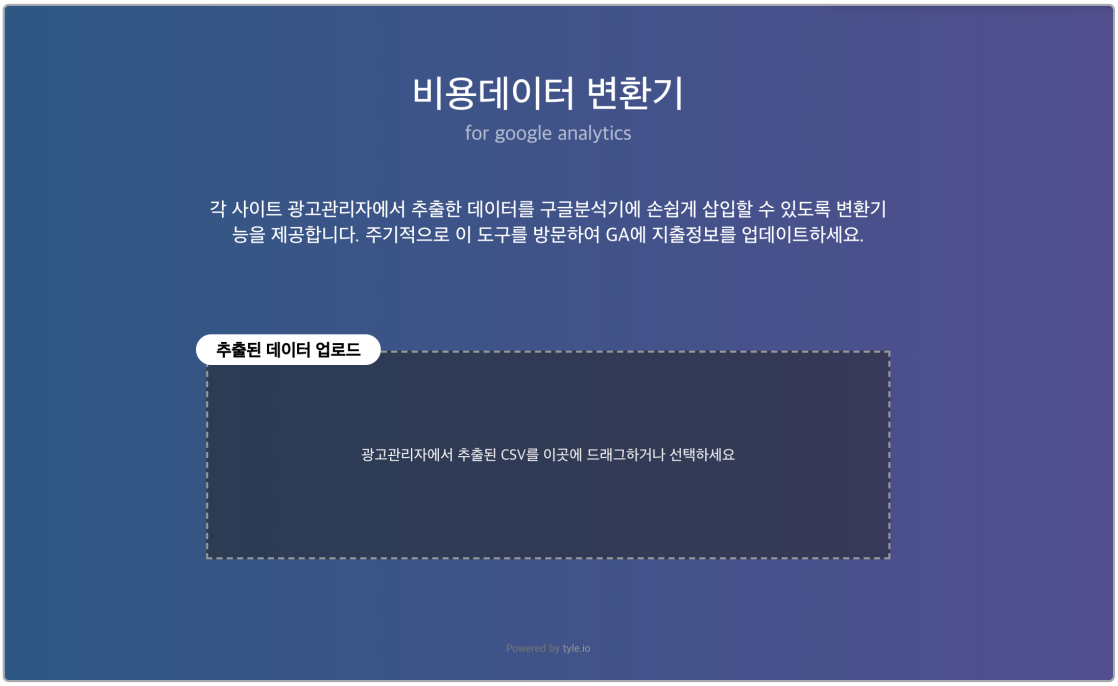
키워드보고서(2020.01.01.~2020.01.30.),tubloo						
키워드	일별	광고그룹	캠페인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VAT포함,원)
값싸고질좋은카드뉴스	2020.01.04.	카드뉴스_키워드	비용통제 키워드	1	0	0
값싸고질좋은카드뉴스	2020.01.05.	카드뉴스_키워드	비용통제 키워드	3	0	0

▲ 네이버에서 추출된 CSV 실적

② GA 데이터로 변환하기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광고 실적들을 추출했으니, 이제 이 데이터를 구글 분석기에 입력하기 좋게 변환을 해봅니다. 아래의 주소에 접속해 주세요.

https://tyle.io/ga-cost-import



▲ 비용분석기 화면

추출한 두 개의 파일을 하나씩 차례로 넣고 변환합니다. 먼저 `추출용-일별보고서-Jan-8-2019-Jun-20-2019.csv` 을 화면 가운데에 드래그하여 떨구면, 바로 변환되고, 내려받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내려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보고서, company.csv` 도 드래그하여 변환시키고, 내려 받습니다.

> 경우에 따라 어떤 플랫폼의 데이터인지 선택화면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ga:date	ga:medium	ga:source	ga:impressions	ga:adClicks	ga:adCost	ga:campaign	ga:adContent
20190620	cpc	facebook	3786	39	49590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구매유사타겟_트래픽_다이내믹
20190620	cpc	facebook	5509	55	112529	리타케팅_다이내믹	리타케팅_다이내믹
20190619	cpc	facebook	5172	53	102570	리타케팅_다이내믹	리타케팅_다이내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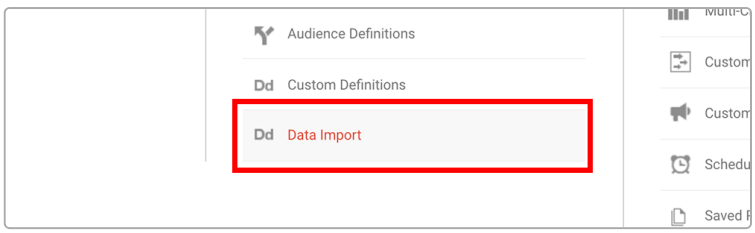
▲ 추출 완료된 CSV 파일

변환된 파일은 위와 같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은 구글 분석기에 요구하는 정제된 형태입니다.

③ 구글분석기 스키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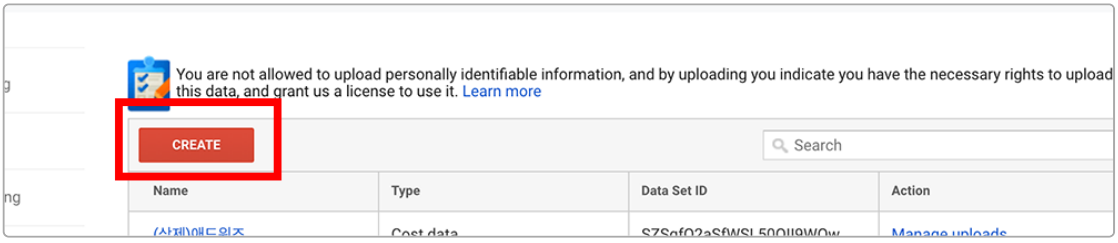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종 변환된 데이터를 구글 분석기에 반영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분석기의 설정화면(Admin)으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하단에 있는 Data Import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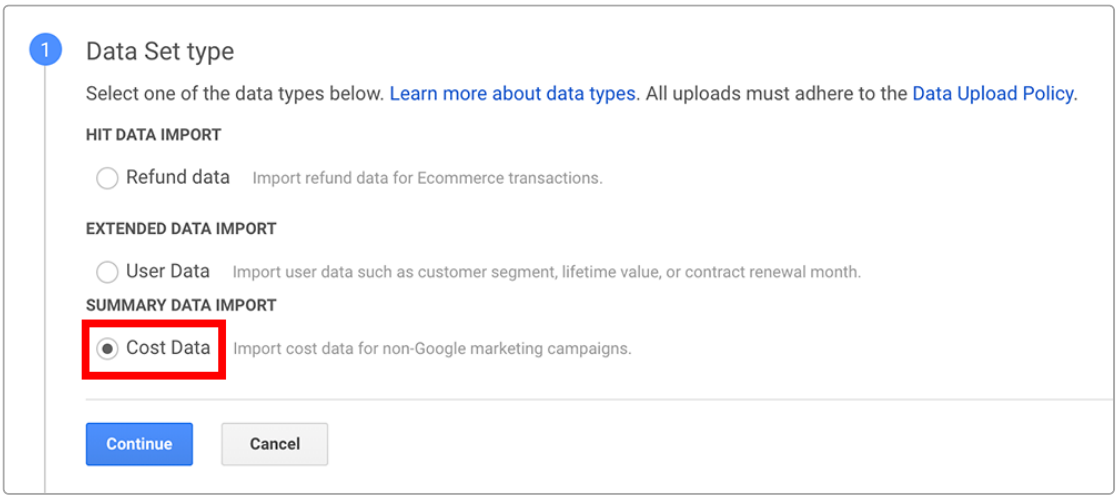
▲ 설정의 Data Import

그리고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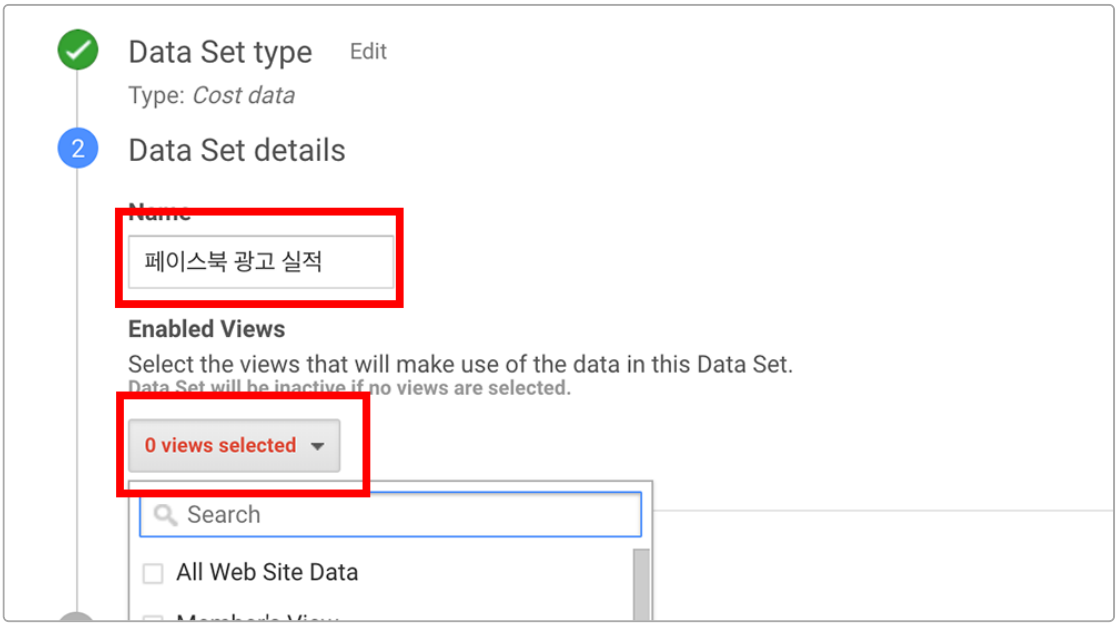


▲ Create 선택

CREATE를 누르고 나면 세 가지 옵션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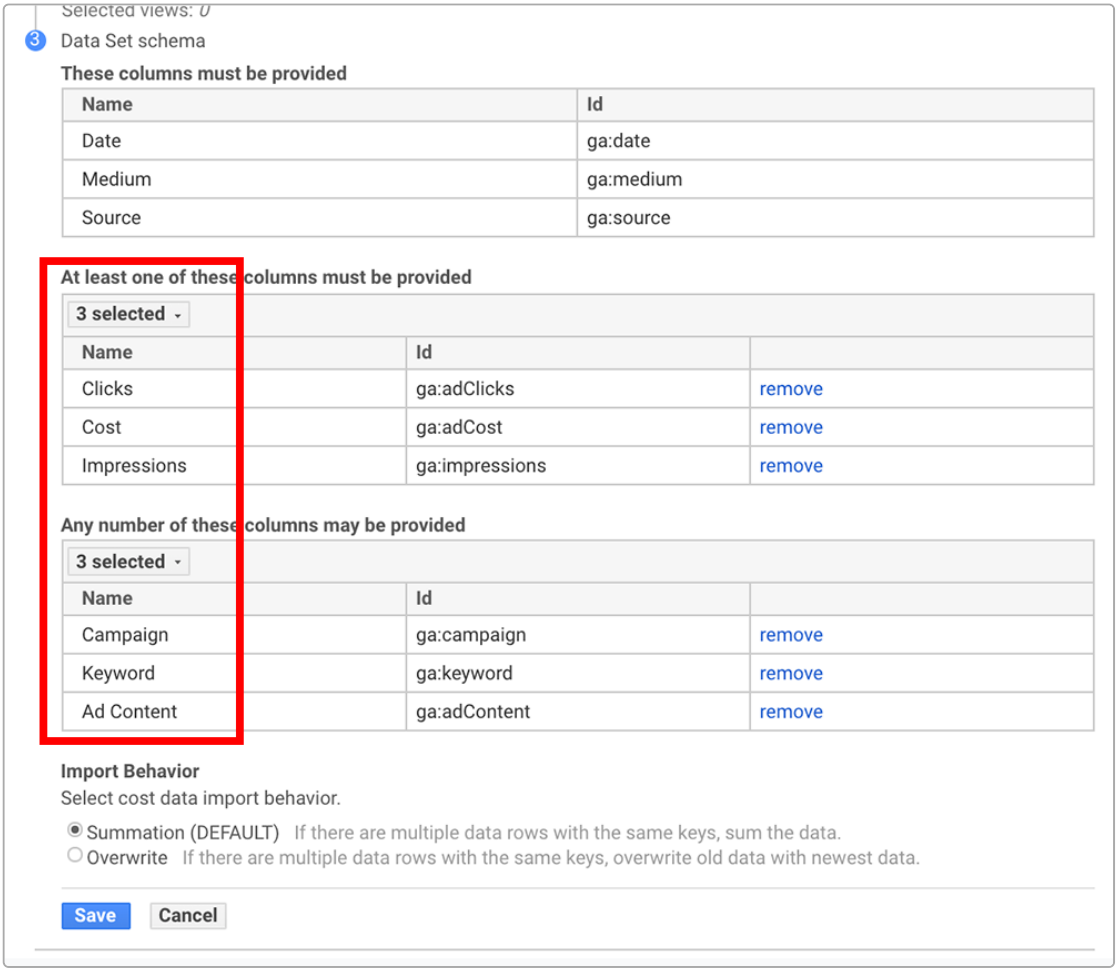


▲ Data Set Type에서는 Cost Data를 선택



▲ Data Set Detail에서는 이름과 대상 보기를 선택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넣을 데이터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의 그룹은 기본 설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Clicks, Cost, Impressions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Campaign, Keyword, Ad Content를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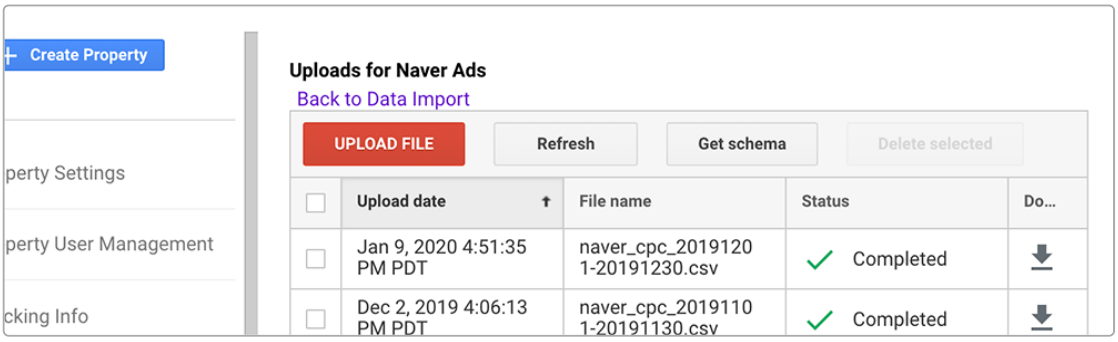


▲ Data Set Schema에서 설정한 화면

그리고 Save를 누르면 업로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④ 데이터 입력

구글분석기에서 스키마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업로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UPLOAD FILES`를 누르고, 변환된 CSV 파일을 하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 업로드 화면

> 페이스북과 네이버는 각각 스키마를 생성하고 별도로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 입력된 데이터는 일정 시간(대략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⑤ 데이터 분석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초기 설정만 하면 다음부터는 재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몰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진짜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분석은 `Acquisition > Campaign > Cost Analysis`에서 볼 수 있습니다.

Source / Medium	Users	Sessions	Impressions	Clicks	Cost	CTR	CPC	RPC	ROAS
	3,676 % of Total: 100.00% (3,676)	16,799 % of Total: 100.00% (16,799)	2,783,138 % of Total: 100.00% (2,783,138)	6,242 % of Total: 100.00% (6,242)	₩3,932,758 % of Total: 100.00% (₩3,932,758)	0.22% Avg for View: 0.22% (0.00%)	₩630 Avg for View: ₩630 (0.00%)	₩2,754 Avg for View: ₩2,754 (0.00%)	437.18% Avg for View: 437.18% (0.00%)
1. naver / cpc	193 (4.22%)	664 (3.95%)	**2,434,123** (87.46%)	2,463 (39.46%)	₩1,349,920 (34.33%)	0.10%	₩548	₩298	54.31%
2. google / cpc	285 (6.23%)	1,050 (6.25%)	**257,467** (9.25%)	2,453 (39.30%)	₩873,507 (22.21%)	0.95%	₩356	₩810	227.58%
3. facebook / cpc	5 (0.11%)	10 (0.06%)	**91,548** (3.29%)	1,326 (21.24%)	₩1,709,331 (43.46%)	1.45%	₩1,289	₩58	4.52%

▲ 비용분석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광고효과 분석

FAQ

고객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신 정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서비스 전반부터 이용 시에 관한 궁금증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서비스 전반

타일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타일의 서비스는 스토리를 가진 카드뉴스 혹은 영상을 손쉽게 제작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편리한 기능, 저작권 걱정없는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타일의 3가지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https://tyle.io`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한가요?

타일은 웹표준 웹브라우저라면 어떠한 것으로단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의 연결은 항상 보장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모든 작업 기록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며, 추출 또한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타일 전용앱이 있습니까

아래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타일의 데스크탑 설치형 프로그램을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yle.io/download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타일에서는 유일한 고객님의 연락수단을 이메일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의 본인 인증은 정상적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본인의 받은편지함에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 스팸함을 열어봅니다. 스팸함에서 tyle.io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타일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신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정설정(https://tyle.io/account/personal) 으로 이동하여 지메일이나 카톡메일 등 다른 이메일로 변경을 시도한 이후에 다시 인증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경우를 했는데도 수신할 수 없으면 [고객센터]을 이용하십시오.

로그인 이메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주로 쓰는 이메일함에서 송신자가 `support@tyle.io` 인 이메일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이런 이메일이 있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주요 이메일을 다 찾아보았는데 없거나, 혹은 과거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메일 주소를 인계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객센터]을 이용해주십시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페이지(https://tyle.io/login) 로 이동
2. 하단의 `비밀번호 찾기`
3. 본인의 이메일 입력
4. 메일함으로 이동 후 타일에서 온 링크 클릭
5.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탈퇴 페이지까지 가서 본인 확인만 한 번 더 하면 탈퇴는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탈퇴시 아직 유효한 유료권한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와 취소를 먼저 진행하도록 유도됩니다.

1.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로그인 먼저 실행
2. 계정설정 페이지(https://tyle.io/account) 로 이동
3. 탈퇴 탭을 선택
4. 본인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완료

요금 및 결제

타일은 유료 서비스인가요?

타일은 가입하신 이후에 유료 결제를 통해서 추출권한을 획득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금제 페이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후 테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추출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종량제 권한을 결제없이 조금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결제하기 전까지는 타일에서 어떠한 요금도 강제하거나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제 카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매월 자동 결제(매월 정해진 날짜에 등록된 결제 정보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경우 결제되는 카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편집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프로필
2. 계정설정(https://tyle.io/account)
3. 기본 설정 탭
4. Plan 하단의 결제카드변경 클릭
5. 변경을 원하는 새로운 카드 정보 등록

카드 정보가 갱신되면 다음 번 결제 주기부터 새롭게 등록된 카드로 요금이 결제되게 됩니다.

가상결제를 했는데 입금 정보를 확인 못하였습니다

가상결제를 신청하시면 마지막 화면에 결제 계좌 정보가 보여집니다. 만약 이를 놓치는 경우, 단순하게 결제 페이지에서 다시 가상결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로 아예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가상결제를 입금했는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가상결제를 진행하면 타일과 계약된 PG사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인지하고, 타일측에 결제 성공/실패 여부를 전달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5~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도 완료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면 [고객센터]으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매월 자동 결제에 최소 유지기간이 있나요?

매월 자동 결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매번 결제하지 않고도, 타일이 등록된 자동으로 결제대행사에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결제정보는 결제대행사측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월 자동 결제에 최소 유지 기간은 없으며, 심지어 1개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도 원하신다면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매월 자동 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 기본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현재 사용자의 Plan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매월 자동 결제를 취소해주시면 됩니다. 취소되는 경우 다음 결제일이 도래해도 추가 결제되지 않으며 권

한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취소에 더하여 기존에 결제된 것도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설정]를 참고해주십시오.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 취소 및 환불받고 싶습니다.

정액제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종량제가 남아 있어도 남은 기간(혹은 사용량)에 따라 취소 혹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1. 편집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프로필
2. 계정설정(https://tyle.io/account)
3. 결제 관련 탭
4. 페이지 하단의 내역으로 이동
5. 원하는 거래내역에서 맨 오른쪽의 취소버튼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별도로 제공중인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매월 자동결제를 하시면 35% 할인, 그리고 1년 선결제를 하시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종량제 슬라이드 차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종량제의 차감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규 슬라이드의 갯수입니다. 신규 슬라이드가 들어올 때마다 서버는 해당 슬라이드에 대해 추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과금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배경 이미지나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신규 슬라이드로 인식이 됩니다. 단,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로고, 20% 이내의 오타 수정, 배치 변경, 사이즈 변경,색 변경 등에 대해서 추가 차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출 가능한 수는 충분한데 왜 추출이 되지 않지요?

이미지 및 동영상을 추출할 때마다 타일의 백엔드 시스템에서 갱신된 슬라이드에 대해서 변환 작업을 진행합니다. 슬라이드 차감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종량제 슬라이드 차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에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편집화면에 남아있는 슬라이드 갯수가 기준이 아니라, 서버상에서 갱신된 슬라이드에 대해서 작업한 내역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차감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상세한 차감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텍스트의 일부 오타가 수정되는 것은 차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의 경우 차감을 매번 신경써야하므로, 사용패턴이 불규칙하더라도 하루 이틀 이상 사용한다면 정액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 왜 다중접속 메시지가 뜨나요?

타일에서의 기본 이용권한은 모두 개인 사용자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타일에서는 이용자의 접속 지역 / 사용하는 브라우저 정보 / 쿠키 및 세션 / 이용 패턴 등을 기반하여 접속된 연결이 동일 사용자인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의 기준을 멀티디바이스 및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다소 여유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나, 동시에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의 접속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단순한 멀티디바이스의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이 장치에서 사용` 버튼을 누르면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실제로 여러 명이 사용을 해야하는 소상공인이나 기관인 경우라면, [여러 유저가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요금제는 없나요?]을 참고해주십시오.

여러 유저가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요금제는 없나요?

타일에서의 한 계정에 대한 이용권한은 한명의 개인 사용자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사용하는 인원수에 맞추어서 요금제가 계산됩니다. 이 요금제를 `다계정 요금제`라고 하며 이 요금제 사용시에는 전용 접속 페이지 및 팀원별 독립된 히스토리 관리 등의 부가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학생 교육용 요금제는 없나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진행하면서 간편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비주얼 콘텐츠 제작 툴로 타일은 이미 많은 교육 기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교육기관이라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용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교내 인트라넷을 통해 별도의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각 학교별로 전용 접속페이지 및 학생 간 파일 공유, 발표 모드, 과제 제출 등의 부가서비스가 더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서비스 소개서를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타일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결제는 온라인 견적서 페이지에서 요금제 설정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견적서 페이지에 접속하신 이후에 결제하시려는(혹은 결제한) 플랜과 기간을 선택해주십시오. 페이지의 URL은 고유하므로 직접 공유하셔도 무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타일 사이트에서 PG사(나이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요청이 가능합니다(결제 시 선택합니다). 모든 증빙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오니, 내부 증빙용으로는 결제 이후 자동 발급되는 위 증빙 문서(이메일)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부의 재무부서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위 증빙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회계시스템이 `세금계산서`만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일측에 문의하여 수동처리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중복신고를 막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오니, 결제 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관련

업로드 가능한 포맷은 무엇인가요?

표준 포맷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파일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포맷제한	용량제한
이미지	.png, .jpg, .jpeg, .gif	0 ~ 10MB
동영상	.mov, .mp4	0 ~ 50MB

추출되는 포맷은 무엇인가요?

타일은 동일한 작업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이 있으며, PDF 형식, 그리고 추출이 아닌 웹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URL을 통한 공유] 기능도 있습니다. 추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및 영상 추출]을 참고해 주십시오.

슬라이드에 갯수 제한이 있나요?

타일에서는 제작하는 슬라이드 갯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슬라이드와 리소스들을 편집화면에 배치하는 경우 웹브라우저 리소스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상적인 900 x 900 크기의 슬라이드들을 작업할 때 20~30여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제한을 넘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추가됩니다(대신 초과를 알리기 위하여 귀찮은 산수 질문이 나옵니다). 각 슬라이드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2000 x 2000과 같이 더 큰 슬라이드는 더 적은 갯수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추출하는 경우, 제한시간이 있나요?

영상 추출의 경우 [슬라이드에 갯수 제한이 있나요?]에 언급된 슬라이드 갯수제한에 더하여 영상의 총시간 제약이 더 추가됩니다. 같은 슬라이드에 같은 내용인데도, [나레이션]을 사용하였거나 [슬라이드 유지시간]을 길게 늘린 경우 영상의 재생시간은 크게 늘어납니다. 적절한 영상의 시간은 최대 3분 ~ 5분 정도로 가이드하고 있으나, 내용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영상 추출 요청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영상을 추출하면 대기된 타일의 서버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알람이 갈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요청된 영상추출이 응답이 없는 경우는 [슬라이드에 갯수 제한이 있나요?]에 언급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볼 부분은 [나레이션]이 걸려 있는지 체크해보고 활성화되어 있다면 꺼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 [슬라이드 유지시간]가 최대시간으로 걸린 경우에도 총 시간을 초과하여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목록에 없습니다

타일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의 사이즈(구글, 페이스북 등)들을 미리 설정해두고, 한 번의 클릭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출하려는 크기가 이 미리 설정된 리스트에 없는 경우 임의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속성에서 추가

사이즈 목록에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면 원하는 사이즈를 등록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사이즈 추가]을 참고하십시오.

파라미터를 통해 추가

편집화면에 진입할 때 URL에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해당 사이즈의 슬라이드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접속하려는 주소 끝에 `?size=666x444`를 입력하면, 첫 슬라이드가 666 x 444의 사이즈를 가진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
https://tyle.io/create?size=666x444
```

새로 시작하는 것 외에, 이미 작업된 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이즈가 적용된 첫 슬라이드를 나머지 슬라이드에도 적용해주셔야합니다.

```
https://tyle.io/create?duplicate_card_id=9soxa5kmrqyj5u&size=666x444
```

이 방법은 파라미터를 이요한 방법으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개발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특정 슬라이드의 사이즈를 다른 슬라이드에 일괄 복사하는 것은 [슬라이드 스타일 복제]을 참고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색상이 목록에 없습니다

타일은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각 색의 조합을 신경쓸 필요가 없도록 미리 어울리는 [색상세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용시 이 세트들을 중심으로 적용을 합니다.

가끔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라 회사의 주요 컬러이거나, 마음에 드는 컬러를 꼭 찝어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자신만의 컬러세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조합 추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컬러 추가]을 참고하십시오.

다운받은 파일은 어디에 있나요?

타일에서 다운 받으면 웹브라우저의 기본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내 컴퓨터(혹은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즉, 익스플로러의 사용자라면 `이 파일을 저장할 폴더와 이름을 지정해주세요`와 같은 탐색기 창이 뜨고, 크롬 및 다른 브라우저라면 지정된 다운로드 폴더로 묻지않고 바로 다운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브라우저의 환경설정에서 지정된 다운로드 폴더가 어디인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폴더를 정확히 확인했는데도 파일이 없다면, [이미지 및 영상 추출]을 참고하여 추출 후 컴퓨터 다운로드까지 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움짤로 만들고 싶습니다.

[동영상 추출 요청]의 기능을 통해서 먼저 영상으로 추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https://ezgif.com/gif-to-mp4 와 같은 무료 웹서비스를 이용하셔서, GIF를 MP4로 변경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mp4`를 `gif`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mp4 to gif를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수 없나요?

타일은 [디자인은 반응형이어야한다]에 따라 요소들의 종류가 통제되며, 이에 따라 텍스트는 제공되고 있는 제목과 본문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더 필요한 경우 본문을 문단으로 나누고, 마크다운 효과를 이용하여 다른 문단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음악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타일은 제공되는 음악이 50여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각 음악은 사용자가 제작하는 컨텐츠의 길이에 맞춰 딱 맞게 끝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별도의 음악을 넣고싶다면, 타일에서 추출된 mp4에 임의의 음악을 삽입하십시오. 아래는 영상에 음악을 입히는 외부서비스입니다. 조건부 유료지만 타일에서 생성하는 간단한 mp4는 무료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kapwing.com/tools/add-music-to-video

내 이미지/동영상을 등록할 수 있나요?

음악과 폰트를 제외한, 이미지/동영상/로고는 모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업로드]을 참고해주십시오.

슬라이드마다 영상 효과를 다르게 주고 싶습니다

타일은 슬라이드로 작업 후 영상으로 빠른 변환 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전체 작업물(카드) 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개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나요?

화면상에 격자무늬로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것은 캡쳐를 통한 결과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제 진행을 하고 [이미지 및 영상 추출]을 이용하면 워터마크가 없는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타일로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타일의 기능을 온전히 이용하셔서 만드신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경 리소스를 직접 업로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타일은 고객님이 업로드하신 리소스까지의 저작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타일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배경/폰트)를 이용한 콘텐츠는 상업적/비상업적/개인적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일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만을 별도로 추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결과물을 변형하여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타일에서 저작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타일로 만들었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에는 위반 사실에 관한 게시물 URL 혹은 캡쳐자료를 같이 보내줍니다. 해당 부분을 타일의 법무팀(legal@tyle.io, 070-8272-8027)으로 전달해주시면 저희 팀에서 대응해드립니다. 전달시 타일의 사용자 이메일과 일치하는 카드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확인이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경우 타일의 정상적 사용을 통해 추출된 결과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이의제기를 한 컨텐츠가 타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닌 경우, 해당 위반 컨텐츠에 대해서는 타일은 보증/관여하지 않습니다.

타일의 결과물을 다른 저작물에 삽입해도 되나요?

정상적으로 타일의 제휴 리소스만을 이용하여 추출된 결과물은, 타 저작물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저작물 전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만 보증합니다. 만약 타일의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 타일의 특정 리소스만을 추출/변형할 목적으로 추출된 것이라면 타 저작물과의 결합과 별개로 보증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동영상의 출처를 기입해야하나요?

타일에서 제공하는 제휴 이미지/동영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를 하했다면 해당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처 여부보다 더 상위에서, 해당 라이센스 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하며,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는 타일이 보증/관여하지 않습니다.